



6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6호

(루계 548)



◆◆◆◆◆◆◆◆◆◆ 차 례 ◆◆◆◆◆◆◆◆◆◆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그 기세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4
수령님께서 시를 쓰시네	7
백두의 새 전설	8
인민의 감사	9
군민의 정	9
내 고향은 보천보	10
백두산과 정일봉	11
생이 빛나는 대문으로 (외 1 편)	11
백가지 도술	13
언제나 내곁에 있는 사람	14
명언해설	15
나는 회답편지를 쓴다	16
불멸의 송가	17
락수물소리 (외 1 편)	18
백두밀영의 마가목	19
이 진달래꽃다발을 받으시라	21
명제해설	22
당의 위대성형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23
석탄이! 석탄이!	29
회답	30
탑이 보이는곳에서	36

바 래 움.....	37
창고앞에서	38
건설장의 봄	44
네게 정들어	46
민족자주정신을 깊이있게 구현한 대사형상.....	47
어느새 아시였을가.....	49
좋은 땅	50
구호해설	61
고 국 송(2).....	62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64
성 장	68
남조선에 류포된 구조주의문학리론의 반동성	72
아들의 탄생	77
조국의 아들 (외 1 편)	78
그대 말이 없어도.....	79
초소로 떠나는 아침에	80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그 기세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말살시키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로서 전국, 전민, 전군에 선포하였던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긍지높은 선언이였으며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문학작품창작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킬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원쑤인 미제는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을 부추겨 공화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나섬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였다.

그러나 적들은 오산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놀래울수도 건드릴수도 없었다.

언제나 당을 신뢰하고 당의 부름에 충실하여온 전체 인민군군인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철벽으로 지키였으며 전체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들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전인민적방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켰다.

우리 작가들은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인민과 작가들의 생명이며 운명인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위할 확고한 결심밑에 한사람같이 종군작가가 되겠다고 탄원하여나섰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고 창작과 생활이 따로 없는 긴장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주었다.

우리 작가들은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이 기세와 기풍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완강한 전투를 벌려 문학작품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과 전체 인민은 준전시상태때의 기풍과 기세를 늦추지 말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이며 일본새이다.

높은 정치사상적각오를 가지고 혁명적으로 창작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없이는 혁명하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으며 우리 문학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나갈수 없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위력앞에서 미제의 침략기도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우리 작가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그놈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전투적인 각오밑에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반대하여야 하며 원쑤격멸의 총창을 비껴든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생활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가들이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혁명에 대한 신념,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심은 곧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 당은 확고한 신념과 대담한 공격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공세를 짓

부시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우리 혁명무력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할 신념이며 의지이다.

준전시시기에 우리 작가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었던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전투적인 창작기풍의 밑바닥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굳건히 자리잡고있었으며 그 믿음을 지켜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굳게 깔리어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이 철석같은 믿음이 우리 작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창작적열정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작가들의 생활과 창작에 전투적기상이 나래치게 한 사상정신적원동력으로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이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깊이 간직할 때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용감히 이겨낼수 있으며 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가져올수 있다.

준전시상때때의 그 기세를 계속 견지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이 창작과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에서 해결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들에게 맡겨진 창작과제는 당이 준 전투명령이며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함이 없이 당에 충실할수 없으며 혁명과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제끼지 못하는 작가를 전투적으로 긴장하게 생활하며 창작하는 우리 당의 작가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조건타발을 앞세우고 창작계획을 미달하며 사소한 애로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지 못하는 일체 안일하고 무규률적인 현상과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리며 그날 계획은 반드시 그날로 집행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기풍을 세우고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하고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 속도전의 불바람을 계속 일으키며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속도전은 혁명하며 투쟁하는 시대,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현실이 요구하는 가장 위력한 창작투투형식이다.

속도전은 또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일본새를 반영하고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우리 작가들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창작하는 기풍의 산 모범을 다시한번 시위하여야 한다.

준전시상때때의 그 기세와 기백으로 우리 작가들은 또한 들끓는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온몸으로 뜨겁게 체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창작의 유일한 저수지이며 우리 작가들에게 창작의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우리 작가들은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받아들이며 그 숨결, 그 기백으로 창작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준전시상때때에 우리 작가들이 발휘하였던 기세와 기백은 창작기풍에서만 아니라 창작되는 작품의 사상주제적 내용과 예술성에서 또한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원수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린 우리의 위력은 다름아닌 주체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준전시기간에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두리에 전당, 전민, 전군이 철통같이 뭉쳐있고 군대와 인민이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는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힘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며 이 위력을 더욱 과시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모든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사람들을 힘있고 아름답게 하는것은 신념과 의지이다. 신념과 의지에 사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사람들에게서 신념과 의지보다 더 귀중하고 값있는것은 없다.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믿음이며 당과 수령께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의지이다.

우리 작가들은 준전시기간에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굳게 뿌리내리었던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그림으로써 우리 작품들이 신념과 의지 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1~12 부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정모의 성격을 깊이있게 전형화함으로써 이 주제분야 작품창작에서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미 이룩한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인간들의 다양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어떤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지켜 끝까지 싸워이기는 불굴의 투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문학작품을 왕성히 창작하는것은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사상미학적 과제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하였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의 예술적구현은 우리 문학작품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유명무명의 수많은 영웅전사들을 런던성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작품이 명실공히 싸우는 우리 인민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창작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예리하게 단죄하며 놈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입증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학작품은 침략과 약탈이 제국주의의 본성이고 생존방식이며 그놈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 특히 혁명의 3 세, 4 세들을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사회주의사상과 제국주의의 반공사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심각한 대결이었다.

전쟁주제작품들은 사회주의리념과 제국주의의 반동적리념의 심각한 대결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교양수단으로 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다.

제국주의자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있을수 없으며 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상 우리 머리위에 떠돌고있다.

오늘의 우리 당은 작가들이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살며 창작할것을 바라 고있으며 더욱더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할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이 기대와 요구를 심장에 새기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어 창작하고 전투적으로 생활함으로써 우리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작품, 우리 당이 바라는 혁명적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가져와야 한다.

수령님께서 시를 쓰시네

정복선

해빛밝은 우리 집
정갈한 벽에는 모셔져있네
력사의 위대한 순간순간을
감회깊이 안아보시며
기쁘시여 기쁘시여 시를 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한줄 쓰시고는
광명성 탄생의 감격에 못이겨
투사들 목메이며 밀림에 글발을 새겨가던
백두밀영고향집 그 아침을 생각하시는듯

또 한줄 쓰시고는
우짚는 새소리가 방해된다며
친애하는 그이께서
장대로 새들을 날려보내시던
정원의 그 새벽을 생각하시는듯

어이 잊으랴
멀리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어버이수령님
기쁨속에 젊어계시라고
만풍의 들판을 가꾸시며 걷고걸으신
못잊을 그 여름날들을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창창하게 열린 미래를 내다보시며

한줄 쓰시고
래일의 행복과 기쁨을 안아보시며
또 한줄 쓰시고

이 땅에 사나운 광풍이 몰아쳐와도
사회주의기치높이 조선을 떨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시기에
더없이 기쁘신 우리 수령님

아, 쓰고 또 쓰실수록
자꾸만 감회깊이 떠오르시는
우리 수령님의 추억

행복도 기쁨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고
진두에서 이끄시는 친애하는 그이를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인민의 그 념원
조국의 밝은 미래를 노래에 담아주시네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우리 인민이 부르고 부르고싶던 노래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며 바라는 마음
어버이수령님은
한자한자 심원한 뜻 새겨 노래에 담으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를 칭송하는
인류의 우렁찬 환호소리를 들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붓을 드시고
시를 쓰시네
인류의 영원한 송가를 지으시네

백두의 새 전설

김형준

무더운 삼복철
대홍단벌은 무더위에 잠겼는데
전쟁의 상처를 쓰다듬으시듯
방금 포연가신 대홍단벌에
위대한 수령님 찾아오셨네

먼길의 피로도 잊으신듯
뜨는 해 무산령에서 맞으시고
돈는 별 차창에 새기시며
어둠 내린 대홍단벌에
차를 타고 가시던 수령님

산촌의 향기 차바퀴에 갈마들고
하늘가엔 하나... 둘... 별들이 창을 여는데
어데선가 울려오는 노래소리
-꿀을 뜨세 꿀을 뜨세
이 꿀을 어서 떠서 평양에 보내세...

차창에 가벼이 팔굽을 엹으시고
땅거미 내린 산천을 내다보시던 수령님
생각에 잠기서 말씀하셔서라
-산천구경에 노래감상이라...
밤꿀 뜨는 저 로인들을 만나봅시다

노래소리 울리는곳을 향해
발걸음 옮기시는 그이앞에
감자꽃 메밀꽃 진한 향기 풍겨오고
자연이 탄주하는 아름다운 노래인양
풀벌레소리 정겨운데

흥취 뜬 양봉공로인들 일터에
조용히 다가서신 어버이수령님
-노래가 명창이어서 들으려 왔습시다
꿀을 떠서 로인들 잡수셔야지
평양엔 왜 보내시렵니까?

벌의 성화에 벌막이를 쓴 로인들
물으신이 어이 수령님이신줄 알았으랴
-전쟁을 이기신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 꿀을 드시구
천만년을 만수무강하셔야지요

꿀개 한송이 집어드신 그이앞에
내리던 어둠도 삼가 멈춰선듯
성가시던 벌들도 길들여진듯 잠잠한데
-원, 벌말씀 장군은 정정할텐데
전쟁도 이겼으니 로인들께서 건강해야지요

진정어린 그 말씀 해빛처럼 따사롭고
너그러우신 그 음성 별빛처럼 부드러워
삼라만상도 생각에 잠기고
어둠신고 흐르던 내물도 조용히
목메인듯 바위를 에돌며 흐느끼네

밤꿀 뜨느라 흥이 난 로인들
길손에게 아쉬운 마음 터놓아라
-어른두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있어 별이 있듯이
장군님 건강하셔야 백성들두 있지요...

아, 로인의 음성 함초롬히 젖었구나
청춘을 태워 솥을 끓던 설음
화전을 쭉쳐 인생을 묻던 원한
못잊게 못잊게 사무쳐와서
다시 찾은 인생이 꿈만같아서

그이의 눈길도 감회에 젖으셨네
장군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꿀을 안고 찾아왔던
유격구마울의 칠순로인
여기서 다시 만나보시는듯

- 고맙습니다, 장군은 정정하니
로인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것이 장군의 평생소원이랍니다!
가실길 다시 재촉하는듯 어둠은 내리고
걱정의 눈물인듯 쭉-욱 밤하늘에 비껴가는 류성

고마운 길손 바래드린 로인들
그이가 수령님이신줄 어이 알았으랴
낮에는 해빛되고 밤에는 별빛되어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계시는
전설이 전설을 낳는 이 땅에서!

인민의 감사

김영근

백번을 허리굽혀 큰절드립니다
천번을 허리굽혀 큰절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장한 아들을
원썬들 손에서 구출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인민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리인모-민족의 아들을
조국의 품으로 기어이 안아오셨습니다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사랑의 손길로 전사 한사람을
죽음에서 삶으로 안아오셨습니다

사랑도 제일 많이 하였고
분노도 제일 많이 불태우셨습니다
전사를 위해 마음쓰신 당신의 분과 초는
인민이 가슴아파 잠들지 못했던
백밤 천밤과도 비기지 못합니다

절을 드립니다
인민은 허리굽혀 큰절드립니다
그처럼 크나큰 정사를 펼치시어
귀한 아들 찾아주신
지도자동지

전사를 위해 기울이고 기울이신
그 뜨거운 사랑만으로도
당신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원썬들을 누르시고
전사를 찾아오신 그 권위만으로도
아, 당신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입니다!

좋은 인민앞에
좋은 아들 찾아서 영웅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공적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 끝에서도 홀로 문힐 전사가 없습니다
신념의 기둥인 당신의 믿음이 있기에
하늘땅 변해도 마음변할 아들이 없습니다!

아, 사랑으로 위대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절을 받으시라
우리 인민모두가
리인모의 모습으로 삼가 올리는
감사의 큰절을 받으시라!

가사

군민의 정

서수일

봄바람에 뿔상모 춤을 출 때면
잊지 못할 병사들 모습이 떠올라요
아, 찬서리 내릴 때
우등불 피우며 뿔상모 지켰지

벼포기들 무성하게 아지를 칠 때
우리 마음 령님어 초소로 달려가요

아, 훈련장 오가며
알뜰히 살뜰히 김도 매웠지

사시장철 농사일 도와준 군대
벼이삭도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는가
아, 군민의 깊은 정
풍년든 들판에 설레인다오

내 고향은 보천보

박용철

내 생의 첫 숨결로 호흡한것은
산촌의 맑은 공기만이 아니었다
내 첫 눈동자에 비껴든것은
푸르른 하늘만이 아니었다

오늘도 푸르른 황철나무 설레임이
투사들 숨결을 안겨주고
가림천기슭의 진달래꽃송이가
투사들의 속삭임을 향기로 뿌리는곳

보천보
여기서 태어난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한 행운아
여기서 몸도 마음도 자래운탓에
나는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

잊을수 없어라
위대한 수령님 동상을 우러르며
예대로 꾸려진 집집의 창문이 열리도록
보천보 옛 거리도 꾸려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

허물없이 아이들과 마주하시고
손수 《삼천리》 연필을 드시여
곤장덕을 그려주시던 그 이야기 전설처럼 들으며
투사들 지녔던 애국의 넋을
이 가슴에도 소중히 안은곳

밤별이 가림천가에 내려앉는 밤에도
못잊을 6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음성 언제나 들으며
집집의 불빛도 꺼질줄 모르는
아 내 고향, 영광의 땅이여

오, 보천보
내 이 땅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은
내가 태어난곳이여만도 아니여라
영원한 이 나라의 낮과 밤에
항일전의 해불을 켜놓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던
친애하는 그이의 심장속에서
영원한 투쟁의 등대가 솟아오르고
조국의 숨결이 이어진곳이기때문이여라

내 고향은 정녕
풍년새 날아에는 별방도
백사장 펼쳐진 바다가마을도 아니건만
온 나라가 다 알고
온 세상 마음이 다 깃든곳

그래서 오, 그래서
보천보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곳에
영원한 자주의 해불이 타오르는 투쟁의 고향으로
높이 솟아있어라

백두산과 정일봉

마리오루나

먼 옛날
신선이 내렸다는
천지의 맑은 물

해뜨고 해질 때면
람홍색 찬란한 빛발이
천지에 비끼누나

깎아지른 봉우리와 천고밀림
폭포들과 절벽들
신기한 나무들과 꽃들로 둘러싸인
호반에 칠색무지개 비졌네

동녘하늘가에
아침해 솟을 때면
그 빛발 밤의 장막 몰아내고
30년대 혁명의 붉은 기치인양
계곡마다 려명 비쳐주네

여기저기 천지조화 신비하구나
 짙은 안개 사나운 눈보라
무서운 돌개바람

그속에서도 흰갈기 날리며
바위에 부딪치는 폭포소리
자연의 우람찬 교향곡인듯

아, 기운차도다
장쾌하도다
매혹적이도다
천하절승 이런 경치
또 어데 있으랴

백두산 정일봉
너는
조선인민과 조선혁명의
불굴의 기상

백두산 정일봉
너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어린 시절의 첫 요람이여라

(필자는 빼루 시인임)

생이 빛나는 대문으로 외 1 편

- 전승기념탑 대문안에서 -

림성희

떠나갈 땐 자그마한 사립문 열고
흰저고리 입으신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불타는 전선길 달려갔던 저 병사들

모두가 끝끝한 영웅이 되어
높이 선 대문으로 들어섰구나
이 나라 후손들의 마중을 받으며

그날의 전우들의 축복을 받으며

예가 고향이어서 모두들 돌아왔는가
어머니 기다리는 정든 집이 이 강반이어서
락원의 기슭에 이렇게들 돌아왔는가

저마다 달랐으리 떠나온 고향산천이

저마다 달랐으리 떠나온 일터들이

그날의 포성이 없었다면

다만 성실한 노동자이고

순박한 농사꾼이었을 그대들이

전쟁의 불길속에서 이 나라의 영웅이 되어

세상이 다 알게 서있구나

싸우던 옛전장의 그 모습 그대로

서둘러 묻지를 말자 병사들의 고향이 어딘가고

서둘러 묻지를 말자 사립문가에서 바래주던

병사들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불구름 타래치던 1211 고지에서

불타는 락동강기슭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저 병사들을 안아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되어 삶을 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데야

그 어머니가 세워준 이 대문안에 들어서면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늙지 않으리

그 어머니가 준 생의 터전에선

영원히 푸른 하늘만을 이고살리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 품에 모두 안긴

영웅들의 큰 집이어

높이 선 영웅들의 이 집 대문안에선

영생의 숨결만이 흐르나니

누구든지 여기 와 그 숨결 안고가면

영웅이 되어 돌아오리

너는 속삭이누나

- 처녀병사의 군상앞에서 -

버들아지 휘늘어지고 잎새도 재롱부리는

여기 금잔디우에서 우리 서로 속삭인다면

그 모습 얼마나 다정할까

강반엔 꽃송이도 아름답게 피었는데

너와 나 함께 어울려

잠시나마 꽃향기에 취할수도 있으련만

처녀의 가슴에 총을 안고

너는 너무나도 엄엄한 말을

말이 아닌 전호속의 모습으로 하고있구나

군모아래 네 머린 내가 곱게 빗어주고

치렁치렁 내 머린 네가 곱게 빗어주며

처녀들의 꿈세계를 속삭일수 있으련만

조국이 불탈 땐 포연속에서도 꽃을 피운 처녀야

행복이 넘치는 이 땅은 어디 가나 꽃인데

왜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섰느냐

아, 꽃을 피워도 불타는 전호가에서

꽃병이 아닌 포탄깎지에 피우던

50 년대의 병사의 자격으로

너는 속삭이누나, 이 땅의 처녀들에게

꽃속의 꽃시절 처녀들의 속삭임도

총과 함께 있다고

침략자가 이 땅을 삼키려 하고

이 땅의 우리를 노리고있는 한

값높은 수호자의 영예속에 처녀들의 세계도 있다고

백가지 도술

김일성 장군님을 조선의 하늘님으로 높이 칭송한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그이께서 백가지 도술과 신술을 지니고계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었다.

특히 간도지방에서 이런 전설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중에서 몇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1. 회오리바람

일제시기 연길일대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도술을 쓰실뿐 아니라 신술을 쓰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

그 가운데는 회오리바람에 대한 전설도 있다.

언젠가 동만에서 활동하던 장군님부대가 갑자기 멀리 북만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는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소멸》해보겠다고 만주의 각 지역에 수십만의 병력을 풀어 산과 골짜기마다 개싸다니듯하던 때여서 부대를 은밀히 그것도 며칠사이에 이동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언제 어디서 불의에 적들과 조우하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만약 왜놈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날엔 도저히 제날자에 가닿을수가 없었다.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격대원들이 모두 모여오므로 주력부대인 장군님부대가 제일먼저 가닿아야만 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모두 초조한 생각에 잠겨 장군님의 얼굴만 쳐다보고있었다.

허나 장군님께서 태연한 표정이시였다.

장군님께서 부대에 출동명령을 내리시였다.

때는 겨울이라 온 산천은 흰눈으로 덮여있었다.

유격대원들은 눈길을 헤치며 행군을 시작하였다.

깊은 눈길을 헤쳐가는 그들의 온몸에선 김이 문문 서려올랐다.

얼마쯤 행군해가시던 장군님께서 어느 산기슭, 바람이 불지 않는 안침한곳에서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대원들은 눈속에 구멍이를 파고 그안에 들어가 휴식을 하였다. 휴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적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조건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디로 가면 무사히 행군해갈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듯 나무에 기대신채 조용히 눈을 감고계시였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땅!》하는 총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모두 화를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만은 여전히 눈을 감고 부동의 자세로 계시였다.

《적이다!》

대원들은 재빨리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이윽고 눈을 뜨신 장군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일없소. 왜놈들이 쏘는 눈먼 총이요. 휴식을 계속하시요.》

대원들은 그이의 말씀대로 모두 자기자리로 돌아가 다시 휴식을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얼마후 《땅!》하고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다. 이어 연거퍼 《땅, 땅》하고 총소리가 났다.

총소리는 앞에서도 났고 뒤에서도 났다. 그리고 좌우 양옆에서 런던아 울렸다.

(포위망에 들었구나.)

대원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태연자약하신 어조로 대원들에게 마음놓고 계속 휴식을 하라고 하시였다.

대원들을 충분히 휴식시키신 다음 장군님께서서는 드디어 부대에 출발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런데 척후대는 망설이고있었다. 사방 적들이 에워쌌는데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척후에게 《저리로 가시오.》하고 부대가 행군할 방향을 가리켜주시였다.

척후대는 그쪽으로 눈길을 헤치며 행군해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겼다. 척후대가 걸어가는 바로 앞에 눈가루를 타래못처럼 휘말아올리며 회오리바람이 일었는데 그 바람은 대오가 나아가는 앞길에 덮인 눈우에다 선을 쭉 그어놓았다.

모두 눈이 휘둥그래서 서로 마주 쳐다보는데 장군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 회오리바람을 따라가시오.》

척후대는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 회오리바람이 숲길우에 낸 표시를 따라갔다.

부대는 척후대의 뒤를 따랐다.

얼마쯤 갔을까? 회오리바람은 홀연 사라졌는데 부대는 어느사이 포위망을 무사히 뚫고나왔던것이다.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하고 기뻐서 서로 부둥켜안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유격대원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폭 휴식을 하였다. 쌓였던 피곤은 붉은죽듯 사라지고 팔과 다리엔 장수힘이 솟구쳤다.

부대는 또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먼 행군길에서 그들은 그후에도 몇번씩이나 왜놈들의 포위망에 들거나 놈들과 맞다들군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오의 앞에는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눈우에다 선을 그어주었는데 그리로 따라가면 매번 무사하군하였다.

그리하여 장군님부대는 그 어느 부대보다도 제일 먼저 북만의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유격대원들은 장군님께서 신술을 쓰시여 회오리바람으로 부대가 무사히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를 우러러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언제나 내곁에 있는 사람

김성일

내 홀로 광맥을 찾아
침침산중 깊은곳에 가고갈수록
더욱더 마음속에 그리워지는
초급당비서 그대의 모습

수리개도 저어하는 날벼랑을 타고서
또 하루 탐사의 새길을 열어놓고
천막안에 들어선 이런 밤이면
내 마음 먼저 나래펴고 달려가
어려움도 기쁨도 서슴없이 아뢰이는 그대

미더운 그 모습
눈앞에 그려보노라
정답고 엄격한 그 목소리
내 귀에 들어보노라

탐사배낭 덜렁 메고 먼길 떠나는
나를 불러 물통도 비웁도 보아주며
앞으로 해야 할 일
헤쳐갈 깊은 골 넘어야 할 령길도
차근차근 가르쳐주던 정깊은 그대

이 책엔 정말 눈물도 많고
이 책엔 정말 웃음도 많다고
탐사배낭 주머니에 새로 나온 소설책도
넣어주며 믿음과 새힘을 주던 손길

내 험한 산덕에서 소낙비를 만나도
들려오더라 그대의 음성
무거운 배낭지고 밤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걷고있더라
수수한 작업복에 신들메를 조인 그대

배낭속의 감기약을 잘 건사하라고
누기차지 않게 성냥을 잘 싸서
배낭의 깊은곳에 잘 건사하라고
편지로 두번세번 알려주는 그 마음
어디 가나 내 손을 뜨겁게 잡아
위훈의 한길에 내세워주거니

내 가야 할 길 아무리 멀어도
초급당비서 그대가 언제나 내곁에 있어
나는 외진 숲속에 홀로 있을 때도
당원의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만을
소중히 안고살게 되더라

걷는 걸음마다 새 보물이 잠을 깨고
그 어떤 명예가 빛난다 해도
그것으로 그대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머리들고 쉽게 말할수 없는 내 마음

당을 받드는 길에서
한걸음도 헛디딤 있을세라
나를 지켜보며 보살펴주는
미더운 당일군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오, 나는 어데 가나 보화의 대문을 열어제끼며
조국앞에 당원 탐사대원의 충성의 자욱을
새겨가게 되더라
별처럼 빛나게 별처럼 영원하게!

명언해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결렬이 생기게 되는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뉴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마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 여름을 회고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켜 주는 불멸의 명언이다.

이 명언은 사람이 신념과 의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하는데 심오한 대답을 주는 감동깊고 여운깊은 명언이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한다.

일반적으로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한 그런 도리를 지키는 마음이며 인정도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동정하는 마음씨를 넘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의리와 인정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저절로 싹트고 발양되는것은 아니다. 의리나 인정의 밑바닥에는 사상과 신념이 놓여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리나 인정은 사상과 신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은 류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하다. 혁명의 승패는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에 좌우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께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혁명적의리를 지켜나가며 반대로 사상과 신념이 견고치 못한 사람이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와 인정도 자연히 저버리게 된다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이다.

사람이 신념과 의리를 지켜나간다는것은 말처럼 험치 않다.

사람은 어려운 때 그 진가를 알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혁명투쟁의 갈피마다에는 혁명선열들과 인민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사상을 받들고 혁명에 다진 맹세를 지켜 그이의 혁명전사된 본분을 다해나간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5.30 폭동의 후파로 파괴된 혁명조직을 수습해나가기 위해 적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하루에도 백수십리 길을 걷고걸으시는 과정에 넘고넘으신 아슬아슬한 고비는 그 얼마였던가.

그때마다 우리 인민들은 그이의 신변안전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련에 찬 1930년대를 회고하시면서 그 당시 자신에게 있어서 한두끼의 식사보다도 숨어있을만한 거처가 더 필요하였다고 하시면서 위기에서 구원해준 은인들에 대해 감회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어느날 해룡과 청원방면의 렬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경찰들의 단속과 수색에서 구원해준 장울화, 혁명에 참가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도 일생 호강하며 살수 있는 부자집자식인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지지하며 보좌해드린것은 바로 신념과 의리를 귀중히 여겼기때문이다.

교하의 어느 한 농촌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경찰들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접했을 때 수령님의 신변을 보호해드린 평범하고 소박한 농촌녀성, 지난날 친분관계를 믿고 찾아갔던 사람들도 외면해버리던 시기 생면부지인 이름모를 교하의 한 아주머니가 그 위기에서 구원해준것은 그가 가장 깨끗한 인정과 의리를 지니고있었기때문이라.

1차북만원정을 끝마치고 왕청으로 돌아가던 유격대의 일행앞에는 가장 엄혹한 위험이 닥쳐왔다.

그때 난국을 타개하고 돌파구를 열어 축한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해드린 어느 한 목재소의 김로인.

바로 이런 의로운 행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셔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이 낳은 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그들을 한시도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이 지금 살아있기만 하면 절을 하고싶다고 감회깊이 회상하시는것이 아닌가.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에서 혁명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의리는 역시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있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우리 인민, 혁명전사들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의리를 다 합치고합쳐도
따를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 있다.

생전에 못다주신 사랑까지 다 합쳐 떠나간 전사
들의 가슴에 영웅의 금별메달도 안겨주시고 혁명렬
사릉에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홀어져 생사를 알수 없는
그들의 일점혈육까지 수소문하시여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
에 대한 혁명적 사랑과 의리가 있기에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
는 참다운 충효의 대오로, 신념과 의리의 대오로 우
후죽순처럼 자라고있는것이다.

나는 회답편지를 쓴다

오광보

이 가슴에 받아안았어라
탄부들의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히 사랑과 믿음을 주신
친애하는 그이의 친필서한

설레는 마음들에 받들려
온 탄전이 들끓는가
내 심장의 박동소리에 발맞추어
나의 굴진기도 세찬 동음 울리는가

나는 쓰리라
굴깊이를 획으로
벨트우에 실려가는 검은금을 굴줄로
어제보다 더 많이 캐낸 석탄에
감사의 마음 담은 충성의 기록을!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소리 들으시며
친애하는 그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다면
그것은 더없는 탄부의 행복

그것은 더없는 탄부의 영광

날마다 늘어나는 석탄의 톤수
깊이 뚫고들어난 굴길의 메터수
위훈의 하루하루를 효자의 도리 다해
맹세를 지켜 땅속깊이에 굴진기로 써나가는
탄부의 편지

사나운 광풍이 몰아와
세상이 열백번 변해도
친애하는 그이께서만 계신다면
사회주의는 영원히 우리의것이라는 신념안고

오, 그 무엇으로도 재일수 없는
조국에 바치는 깨끗한 량심으로
오늘도 우렁우렁 나의 굴진기는
더 깊이깊이 굴길을 내리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드릴
충성의 편지를 울리고있어라!

《위대한 수령님을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
구절을 읽어내려갔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불멸의 송가

송가! 이는 수령을 우러러 흠모하며 따르는 인
민들의 다함없는 감정의 정화이며 대를 이어 영원
히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다하려는 인민들
의 피끓는 심장의 분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가사문학을 지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훌륭히 창작하도록 깊은 로
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실천
적모범이 있음으로 하여 작가들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충성의 송가들을 수많은 창작할수 있었다.

친히 지으신 명가사

비범한 문학적천품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은 명가사들을 친히 창작하시여
시가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실천적모범으로 환히 밝
혀주시고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빛내이게 하시
었다.

1969년 11월 어느날 아침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예술단체에 몸
소 나가시여 작품창작정형을 료해하시고 귀중한 가
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예술단체에 속
해있는 예술영화 《천리길》주제곡을 지은 작곡가
에게 웃음어린 음성으로 자신께서 그 영화주제곡을
가요로 만들었으면 해서 생각나는것을 몇줄 적어보
았는데 한번 곡에 붙여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들고오신 가방에서
허리가 접힌 백지 한장을 꺼내시여 그 작곡가에게 넘
겨주시었다.

작곡가가 두손으로 정중히 받아 퍼든 깨끗한 종
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활달한 필체, 세절
로 된 가사 《충성의 노래》가 적혀있었다.

그 순간 창작가들은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솟구
쳐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가사를 인차 읽을수가 없

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눈굽을 닦으며 가사의 구절

충성의 노래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내 조국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새벽 공장을 찾으시네
크나큰 그 은덕은 만대에 길이 빛나리
인민들은 심장으로 충성을 노래하네

3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가사의 구절구절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
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이 차넘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지으신 명가사
《충성의 노래》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대를 이어 높
이 우러러모시고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형상한 본보기작품이며
우리 나라에서 가사혁명의 새 역사를 장엄하게 선
포하고 금빛찬란한 리정표를 세워준 불후의 명작이
였다.

그날 오후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작하신 명가사를
받고 흥분을 금치 못하던 창작가들은 뜻밖에도 그
이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서는
창작가들을 따듯이 맞아주시후 《충성의 노래》가
사가 어떤가, 마음에 드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창작가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충성의 노래》 가사는 정말 명가사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너무 그러지 말고 의견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라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끝없이 경건한 마음 안고 부르는 불멸의 송가 《충성의 노래》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르는 명가사를 친히 창작하신 것은 비단 《충성의 노래》만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조사업을 지도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가사를 친히 창작하시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일까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럼습니다

새길수록 뜻이 깊은 가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이 구절구절에 빛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신뢰와 서정을 안겨주는 뜻이 깊은 명가사.

진정 이 세상에 주옥같은 시구절이 있다 한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구절이 어디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노래한 완성된 명가사가 있다 한들 이보다 더 숭엄하고 가슴뜨거운 가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지으신 명가사들은 우리 가사문학의 재부이며 혁명적송가문학발전의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단시

락수물소리 외 1 편

안정기

시의 우물은 깊고깊어
파고 또 파다 기가 진한 밤
사색의 정대를 놓고
에-라 그만 쉬려는데

톡, 톱, 톱 누가 날 불러
문열고 로대에 나서니
오, 지칠줄 모르는 락수물이
란간아래 굳은 돌 뚫고있네

귀담아들어두면...

늙어가면서 내 안해
자주 통을 주더라 나에게
젊어선 말 안해 흠이더니
이젠 말 많아 글렀다고

어허, 그렇다면 안해여
내 한마디만 더 하노니
존경도 대접도 다 필요없으니
내 할말은 끝까지 해야겠노라

보는것 듣는것 다 참견이니
젊은애들이 좋아할게 뭐냐고
웬간하면 모른체도 해야지
잔소리투성이니 존대를 받겠냐고

혁명의 2 세가 한생을 뛰며 얻은 교훈을
3 세, 4 세에게 거저 주는것이니
귀담아들어두면 그애들
내가 산 나이 더 얻으리라

백두밀영의 마가목

백두산밀영의 고향집 주변에는 바늘잎나무들 사이에 유묘하게 보이는 마가목들이 자라고있다.

초여름에는 잘고 아름다운 흰꽃이 피고 가을이면 동글동글한 열매가 붉게 익는 잎이 지는 넓은잎 나무인 마가목...

이번두리의 예음이 말의 발모양으로 되었다고 하여 고려약에서 붙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부른다는 마가목에는 예로부터 많은 전설들이 전해져내려 오고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여러가지 약재로 쓰일 뿐아니라 그 치료효과가 매우 좋아 이 마가목을 사랑하고 신비스럽게 여기는것이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고향집주변에 자라는 마가목들에도 항일의 날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 이 나무의 신비스러움을 더해주고있다.

옛날옛적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랑림산줄기의 어느 양지바른 기슭에는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에는 곱손이라는 마음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힘이 장사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있는 곱손이에겐 버들아기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다.

몇해전 나무하러 갔다가 곱에게 쫓기는 처녀를 구원해준것이 연분이 되어 곱손이와 버들아기는 오누이처럼 다정히 지내었다.

그러던 지난해 봄, 온갖 꽃이 산과 골짜기에 흐드러지게 피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데 곱손이와 버들아기는 너럭바위에 앉아 흐르는 시내물에 발을 잠그고 나무잎을 한잎두잎 물위에 띄워보내며 해종일 얘기를 나눈 때부터 그들의 우정은 어느덧 사랑으로 변했다.

곱손이 어머니도, 버들아기 부모들도 그들의 인연을 은근히 기뻐하였다.

마음 어지고 힘이 장사인 곱손이에게 짝지지 않게 버들아기 또한 마음곱고 인물고운것은 물론 레절뽕고 길쌈질에 능하여서 말그대로 그들은 천상배필이었다.

그러나 두 집이 다 석자막대기를 휘둘러도 걸릴것이 없는 가난한 살림이라 당장 성례를 치러줄수가 없어 그럭저럭 미룬것이 벌써 한해가 지났다.

이해 가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례를 치르리라 두 집에서 작정을 하고 한가지 두가지 준비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곱손이의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성이 지극한 곱손이는 레장감으로 보내려던 첫날 색시옷감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의원을 청해 오고 약을 구해 써보았으나 어쩐지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버들아기도 약을 구해오고 병구완을 정성껏 하였으나 좀처럼 어머니의 병이 돌아서지 않아 머리를 외로 돌리고 몰래 깊은 한숨만 내쉬고있었다.

곱손이와 버들아기는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응당한 보답을 주기는커녕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심연속으로 몰아넣었다.

설상가상으로 곱손이가 먼 북쪽 변방으로 수자리를 가게 된것이였다.

사랑하는 버들아기와 헤어지는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앓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아챘다.

곱손이는 수자리변을 다음으로 미루어달라고 관가에 청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곱손이의 귀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렸다.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느니라!》

포수인 곱손이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더는 싸움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공로를 치하하여 임금의 어지로 후한 상을 내리고 상당한 량의 록봉을 주기로 하였다.

마음이 깨끗하고 성품이 고지식한 곱손이 아버지는 그것을 마다하고 여러차례 령이 내렸으나 받지 않았다.

《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당한 일을 하였은즉 그것을 턱에 걸고 록봉을 타는것은 제 집일을 하고 값을 받는것과 같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니 내 뜻을 상감마마께 아뢰옵기 바라오.》

임금의 어지를 가지고 내려온 신하들을 빈번히 이런 말로 돌려보낸 곱손이 아버지는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상감마마의 하사를 받지 않는것은 불손한것이라고 간하여 임금조차 곱손이 아버지를 좋지 않게 여기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공이 하도 크리라 어찌지 못하고 그대로 뒤두고있었다.

나라를 위해 큰공을 세웠으나 곱손이네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가난하여졌다. 그도 그럴것이 곱손이 아버지가 별이를 못하고 누워있는데다가 치료를 받느라고 없는 가산까지 내다 팔다나니 살림은 쪼들릴대로 쪼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 얼굴 한번 찡그리거나 남에게 손을 내미는적이 없었다.

부상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락엽이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말았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서 곱손이에게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느니라.》하고 유언을 남겼던것이다.

이런 아버지밑에서 자란 곱손이의 성미 역시 아버지그대로였다. 그렇다고 앓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3년씩이나 수자리에 가있을수는 없었다.

곱손이는 버들아기를 찾아가 앓는 어머니를 말아달라고 부탁하려 하였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버들아기》하고 부르고는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버들아기는 곱손이의 내심을 알고도 남았다.

《오빠!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떠나세요. 어머니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곱손이는 자기를 여전히 오빠라고 부르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우며 말하는 버들아기가 더없이 고마웠고 오늘따라 유별나게 더 아름다와보였다.

그리하여 곱손이는 어머니와 버들아기네 부모님들에게 하직을 한 다음 자기가 망아지때부터 기르던 애마를 타고 북쪽변방으로 수자리를 가게 되었다.

군사가 된 곱손이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얼마안되어 검술과 창법, 락견, 말타기와 활쏘기가 다른 군사들에 비해 동뜨게 능해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무예에 능통한데다가 힘이 장사고 용감하여 변방을 침노하는 오랑캐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었다. 그는 나무랄데없는 군사로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선 언제나 앓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버들아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것이 어머니요, 보고싶은것이 버들아기였다.

어느덧 3년세월이 거의 흘러 집으로 돌아갈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곱손이가 수자리를 하는 군영에 젊은 의원 한사람이 왔는데 그는 의술이 매우 능하였다.

그는 사람의 얼굴빛만 보고도 병을 알아맞힐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은 가보지도 않고 병증세만 듣고 처방을 내렸는데 그가 주는 약은 신기하리만큼 효험이 있었다.

곱손이는 그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저의 어머니의 병이 중하여 집을 떠나올 때 증세가 이러이러하였는데 그에 맞는 명약을 주시면 그 은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겠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곱손이가 무예에 능하고 용감한 군사라는것을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있는 의원은 그의 말을 귀담아듣고 쾌히 응하고나서 그에 맞는 약 두첩을 지어주었다.

《이 약 한첩만 가지고도 어머니의 병은 알도리가 있겠으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란 여유가 풍풍해야 하거늘 두첩을 드리오니 가져다가 쓰십시오.》

며칠후 곱손이는 수자리를 끝내고 자기의 애마 공갈말을 타고 고향을 향해 달렸다.

얼마나 가고싶던 고향이고 얼마나 보고싶던 어머니와 버들아기였던가. 그는 비호같이 달리는 공갈말이었으나 오늘따라 별로 늦장을 부리는것만 같았다.

수자리살이를 하던 변방에서 고향은 참으로 멀었다.

팡거미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곱손이는 어느 한길가집에 들러 하루밤 묵어가게 되었다.

그 집 내외는 곱손이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무척 친절하게 해주었다.

비록 간소한진 하나 성의껏 차린 주안상까지 받고보니 처음 온 손님으로서 곱손이는 고맙고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저녁요기를 한 다음 주안상을 올리고났을 때였다.

나그네귀 석자라고 곱손이는 분명히 옷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웬일인가싶어 머리를 약간 기웃거리는데 주인이 얼른 눈치채고 손님에게 먼저 말했다.

《옷방에는 저의 어머니이 앓아누워계시는데 벌써 여러해째 일어나지 못하시니 자식으로서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것 같아 조석으로 근심이 떠나지 않고있습니다. 병자의 집에 류하시어 불편하신 점이 많겠으나 제집처럼 여기시고 려독을 푸시기 바랍니다.》

곱손이는 거듭 사례를 하고나서 어머니의 병증세를 자세히 물었다.

어쩌면 그러도 신통히 갈을가, 주인어머니의 병증세는 곱손의 어머니 병증세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곱손이는 피나리보짐을 풀어 그안에서 참지로 쓴 약 한첩을 꺼내주면서 그 연고를 말해주었다.

주인내외는 것처럼 귀중한 약을 하루밤 묵어가는 손님이 준다고 하여 선뜻 받을수가 없이 사양하였으나 곱손이가 하도 지못게 권하는바람에 더는 물리칠수가 없었다.

주인은 그참으로 부엌에 나가 약탕관에 썬물을 길어다 붓고 숯불로 약을 달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곰손이가 잠에서 깨어나보니 일인즉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다.

대여섯살되는 주인집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 잠에 취한채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약탕관을 엎질러 그 귀한 약을 몽땅 버리게 되었던것이다.

주인내외는 철없는 자식을 꾸짖을수도 없고 손님을 보기도 민망스러워 어쩔게 웃으며 매우 딱해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마음착한 곰손이는 되려 제가 잊지르거나 한것처럼 미안해하더니 선선히 보짐을 풀고 나머지 약한첩을 마저 내놓았다.

고향에서 앓고있는 자기 어머니도 귀했으나 병고에 신음하는 환자를 옆에 두고 그냥 갈수도 없는 곰손이었다.

주인내외는 펄쩍 뛰며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완강히 막아나섰다. 그러나 그런 일엔 곰손이 역시 쉬이 물러날 사람이 아니여서 끝끝내 그 약마저 주고야말았다.

곰손이는 아침을 먹은 다음 동구밖까지 견마잡이가 되어 따라오는 주인의 바래움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다음호에 계속)

이 진달래꽃다발을 받으시라

전계승

철창을 넘어
장벽을 넘어
드디어 돌아온 리인모동지여
환호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평북땅의 한 시인이 드리는
마음의 꽃다발을 받으시라

후치령기슭 길가에 반가웁다 웃는듯
꽃망을 터치는 연분홍진달래
풍산땅 산마다 노을빛 물들이여
봄소식 알리는 진달래꽃을
정히 골라 마련한 이 꽃다발

철창에 갇힌 서른네해...
장벽에 막힌 마흔세해...
조국과 가족들을 그릴 때마다
선히 떠오르던 고향의 이 붉은 진달래에
백발이 된 그대의 불을 비비시라
감회깊게 들이키면 그윽한 꽃향기에
그대 투사의 가슴 들먹이시라

눈서리 찬바람 꽃꽂이 이겨내고
5호물동, 조국북변 첫기슭에 붉게 피어나
김일성장군님 그 품에 안겨
설레이던 진달래, 아 진달래처럼
살리라 맹세하신 그대 인민군중군기자여
그 모진 고문도 단두대도 맞받아 싸운
그 투쟁의 낮과 밤을 어찌 다 헤아리랴

《전향》하라 강박하는
악형, 유혹, 굶주림...피비린 옥중에서도

진달래의 시를 지어 노래 부른 그대,
얼음짬에 물맑은 파발강가에
봄을 불러 불타는 진달래처럼
깨끗한 량심으로 절개지켜 싸워이긴
《비전향장기수》 그대 마음 헤아려볼수록...

동서고금에
영웅들의 앞가슴에 빛나게 달아주었다는
그 어떤 혼장인들 건줄수 있으랴
철창속의 서른네해, 장벽속의 마흔세해
청춘시절 다 바쳐, 한생을 다 바쳐
인간의 상상 초월한 온갖 고초 다 이겨낸
우리 민족의 자랑인 그대 신념의 높이에
우리 당의 전사인 그대 의지의 굳세임에

참으로 인간한생에 두번 없는
꽃같은 청춘시절 다 묶이웠어도
청춘보다 귀중한 신념을 지켜싸운 그대
철쇄에 묶이우지 않은 그 마음의 청춘을
진달래처럼 꽃피워 한생을 빛나게 산 그대
우리 당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우고
조국은 불사조로, 영웅으로 받들어주고있나니

누구나 다 뜨겁게 바라보는
고향의 진달래, 조국의 붉은 진달래를
누구보다 몇몇이 맞이할수 있고
누구보다 뜨겁게 뜨겁게 안을수 있는
전사의 권리를 지켜싸워 승리한
아 그대 고향의 자랑이여 조국의 아들이여
이 진달래꽃다발을 받으시라

명제해설

《주체문화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면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문학은 모든 예술의 사상예술적기초이며 문학 예술발전의 선결조건이다. 영화와 가극, 연극을 만들자면 반드시 영화문학과 가극문학, 극문학이 있어야 하며 음악을 창작하자면 가사문학이 있어야 한다. 문학을 확고히 앞세워야 예술부문에 풍년이 들고 우리 문학예술의 전반적수준을 높이 올려세울 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작가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문학의 대표적형태라고 말할수 있는 소설문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옳바른 방침을 제시하시고 작가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설을 많이 창작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그것을 각색하여 훌륭한 영화와 가극, 연극을 만들수 있으며 텔레비죤소설도 만들수 있다. 또한 소설의 종자를 가지고 좋은 무용작품도 만들수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훌륭하게 창작된 장편소설 《새봄》, 《생명수》 등을 비롯하여 《석개울의 새봄》, 《철의 신념》, 《탄부》 등 많은 큰 형식의 작품들과 작은 형식의 작품들이 영화와 연극으로 각색되어 예술계에 풍년이 들게 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많은 소설들이 텔레비죤소설로 각색되어 방영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사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음악발전의 선결조건으로 명가사를 많이 창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는 명곡의 나라로 되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하여주는 시대의 명작이 많이 창작되어 그 어디에서나 투쟁과 랑만, 행복과 신념의 노래가 높이 울리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기다렸습니다》 등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훌륭한 노래들이 창작되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다.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이 나올수 있는것은 명가사에 의하여 그 사상예술적기초가 훌륭히 담보된데 있다.

훌륭한 영화도 그 사상예술적기초이며 선결조건으로 되는 영화문학이 훌륭하게 완성되어야 창조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영화예술을 세계적인 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시면서 영화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훌륭히 완성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구체적이고도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오늘 세계적인 걸작으로 련속 창작되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그처럼 훌륭하게 완성되어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영화예술계를 뒤흔들어놓고있는 그 성과의 기초에는 영화문학의 혁신적인 성과가 놓여있다.

오늘 우리의 극장무대를 장식하고있는 혁명연극, 혁명가극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무대작품들은 다 문학으로부터 시작되고 문학에 의하여 예술형상이 창조된것들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다. 선행관이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해야 그 다음공정들이 지장없이 제대로 진척될수 있다. 주체예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올려세우는데서 문학은 매우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제시된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아직 우리 문학은 당이 바라는대로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있으며 예술의 선행관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문학부문에 풍년이 들어야 예술전반에 풍년이 들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예술의 선행관을 담당한 자기의 책임적인 창작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90년대에 5대가극, 5대연극을 창조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극문학, 가극문학 창작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영화, 연극, 가극으로는 물론 무용으로도 창조할수 있는 좋은 종자가 있는 소설들과 명가사, 명시들을 창작하여 전반적인 예술발전에 힘있게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위대성형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리봉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화론》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활동원리에 맞게 문학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는데서 수령의 위대성형상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형상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완벽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당의 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고 주체문화건설에서 언제나 주선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영원한 형상원천이며 기본주체분야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위력을 옹호하고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본분으로 삼고있는 문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중추를 이룬다. 수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을 창건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근본사명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구현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중추를 이루게 하는것은 당이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뿜어주어 사회의 신진대사과정을 보장하는 사회의 심장이며 수령의 의도대로 자연과 사회, 사람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이며 원동력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그 중추를 이루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그것을 자기의 기본형상원천으로 삼는것은 우리 문학의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의무로 된다.

로작에서는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할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창작실천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그 형상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1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있다. 그러면 우리 당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그 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이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이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새 시대를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가장 완성된 혁명사상으로 된다.

우리 당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어나가시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벌림으로써 가장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독특한 발전력사,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가진 백전백승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첫째가는 특성이 있다.

우리 당의 특성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이라는것이다.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당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이다. 이러한 통일단결만이 당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상적순결체로 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적무기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당안에도 한때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반당적사상요소들이 숨어있으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방해하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음으로 양으로 반당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우리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들과 새로 나타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어지는 실정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최상의 높이로 발전시킨 불패의 당으로 되었다.

우리 당의 특성은 또한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면 어떤 원수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망라하는 주체의 혁명적당을 건설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시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성에 맞게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함께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을 그려넣도록 하시였으며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전체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오직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우리 당의 헌신적복무정신과 인민적인 시책들, 매 가정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치는 우리 당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낳고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놓았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모두가 신념으로 안고 살고있는 이 구호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높은 충성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의 하나가 있으며 또한 여기에 우리 당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특성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당이며 계급적립장과 혁명적립장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견결한 당이라는것이다.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 문제이다. 다시말하

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한다는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이어받아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위업계승문제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혁명의 대가 바뀔 때마다 혁명의 배신자, 야심가들이 나타나기때문이다. 만일 수령의 혁명위업이 옳게 계승되지 못하면 더 말할나위없이 혁명의 배신자, 정치적야심가, 음모가들에게 당과 혁명이 통락당하게 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그 피줄이 끊어지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그러기에 오늘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과 국가 지도간부들과 인민들은 우리 나라에서 수령의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데 대하여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르며 흠모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우리 당은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견결한 당이다. 《E. C》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투쟁로정에는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도 많았고 풍파도 많았지만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견결히 지켜왔다. 우리 당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공세가 집중되는 류레없이 복잡하고 첩예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는 굳건히 고수되어왔으며 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혁명은 추호의 드림도 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위대성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데 대한 리론은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처음으로 밝힌 독창적인 리론이다. 그 독창성은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중심을 새롭게 밝힌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이 수령님의 령도를 받으면서 장구한 기간 끊임없이 강화발전하여 온 그 고유한 특성에 바로 우리 당의 위대성이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그러므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우리 당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사상을 심오하게 강조하고 천명해야 한다.

2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잘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리는것은 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업적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잘 그리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기간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이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이기때문이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과 건국, 건국 사업,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 사회주의공업화의 수행, 조국통일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 마련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향도적력량으로서 국가건설로부터 경제건설, 무력건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있으며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이 찬연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오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90년대의 웅대한 경제건설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네번째해에 진입하여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키고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시기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대체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당의 은덕을 칭송한 작품들이었다. 물론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당이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고마운 인민적시책과 은덕에 대하여 노래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의 고마운 은덕만을 노래하여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할수 없다. 작품창작에서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자면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잘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업적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은 우리 당의 업적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된 정치조직으로서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어떻게 쌓는가 하는것은 그 존망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지 못하면 불순분자들이 나타나고 이색적인 사상이 침습되어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조직적으로 와해되고만다. 더우기는 령도의 계승성문제가 제기될 때 내외의 계급적원수들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음모가, 야심가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기때문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진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가장 빛나는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날로부터 마련해주신 주체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것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터전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의 끝날력량인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당안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율을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반석같이 다져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일심단결, 충효일심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의 공고성과 그 불패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기 위한 투쟁과 활동과정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은 사회주의집권당으로서 우리 당의 창건을 준비하던 시기로부터 당건설과 활동의 진행정에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음으로써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우리 당이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어떻게 빛나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다.

당의 업적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을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난의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민족으로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

우시고 조국땅위에 룡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 놓으셨다.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으로 우리 인민들을 철저히 무장시킨것이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투쟁과 삶의 참다운 진리를 밝혀준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사대와 교조, 민족허무주의의 사상적명예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감정이 높아지고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혁명사업과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열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민족자주정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주체적 관점과 립장이 튼튼히 서게 된것이다.

특히 우리 당이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높은 자주정신을 지니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의 높은 자주정신과 가장 힘있는 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우리 인민이 자기 민족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고 당의 위대성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받는 인민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러한 숭고한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인민이 높은 자주정신과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규정해주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이것

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결실이다.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감동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영예와 행복을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당의 업적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놓은 우리 당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룡성번영으로 이끌으로써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인민대중의 자주적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사회주의하에서의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은 인류의 리상이 훌륭히 실현되어 가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큰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로동계급과 각계각층 군중의 요구뿐만아니라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는것을 밝혀주는 빛나는 예술적형상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형상화에서 특별히 력점을 찍어야 할 문제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그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의 모든 형태들을 다 동원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형식들을 개척하는것도 필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업적을 잘 그릴데 대한 리론은 당의 위대성형상의 폭을 넓히고 그 내용의 심도를 보장하게 하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에 기초하시여 당의 업적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뿐 아니라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은것도 당의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당의 위대성의 폭과 심도를 넓힐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위대성형상원칙을 밝히였을뿐아니라 그 형상방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심오한 해명을 주시었다.

그 형상방도는 3 위일체의 원칙에서 그 지위와 역할을 깊이있게 밝혀내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을 형상할 때에는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당으로 그려야 한다.

만약 수령과 대중과의 련관밖에서 당을 형상한다면 그것은 당이 아니라 개별적인 집단을 그리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줄수 없게 된다.

이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을 수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해야 한다. 오직 3 위일체의 원칙에서 당을 형상하여야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다.

3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중요한것은 송가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응당한 수준에서 높이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송가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송가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의 시가문학이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며 주체문학건설의 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송가문학은 원래 거창한 역사적대상과 사변을 웅장하고 장엄한 서정적화풍에 담아 노래하는 문학이다.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거나 레찬하는 시문학에서 기본은 송가문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송가문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히는데 기초하시여 송가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형상실현에서 나서는 미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송가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을 무게있게 노래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은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사업 체계와 질서이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다. 주체의 령도예술, 혁명적인 당사업 체계와 방법, 작풍을 전당에 확립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창조와 건설의 비상한 조직력과 추동력을 가지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가고있다. 그러므로 송가문학에서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을 무게있게 노래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예술에 대한 예술적형상의 확인으로 된다. 송가문학에서 형상된 당의 풍격은 어디까지나 우리 당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깊이에 의존된다. 장시 《인민은 말한다》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있다. 이 장시가 잘된것은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서 무게있게 노래한데 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송가문학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시적형상을 격식화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을 무게있게 보여준다고 하여 요란한 수식사와 현란한 미사려구를 란발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거나 력사적사실을 분식하거나 과장하면서 공허하게 웅치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송가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념일을 계기로 내보내는 현시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하는것이다. 현시도 시인것만큼 거기에는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얼굴이 있어야 하고 시인만이 노래할수 있는 독특한 시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념일을 계기로 의무감에 의하여 현시를 써낸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이런 시들은 시인의 뜨거운 열정도 체험도 진정도 없이 썼기때문에 대체로 구호적이고 개념적인 시로 되고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송가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분식과 과장을 철저히 경계하는것이다. 송가문학에서 분식과 과장은 금물이다. 송가문학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느낌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우리 인민들이 서정시 《어머니》를 좋아하는것은 거기에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감정이 사실그대로 진실하게 표현되였기때문이다. 이 서정시에서 제시된 어머니는 당이며 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그리고 서정적주인공 《나》는 시인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며 따라서 그 서정적주인공은 우리 인민의 개성적구현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어머니와 《나》에 대한 노래인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머

니에 비유하여 아이들이 어머니없이 살수 없듯이 우리 인민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섬세한 정서와 절박한 감정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심오한 철학성과 높은 사상예술성을 체현한 성과작으로 되었던 것이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송가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의인화를 비롯한 비유와 상징의 수법을 격에 맞게 잘 쓰는것이다. 당을 노래하는 송가문학에서 흔히 당을 의인화하여 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을 시비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의인화를 비롯한 상징의 수법을 활용할 때에는 매우 심중하게 써야 한다는것이다. 당에 대한 비유를 특색있게 한다고 하여 아무런 고려도 없이 아무데나 망탕 비기는 현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의 권위를 손상시킬수 있으며 또 비속화할수 있기때문이다. 당에 대한 비유는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나 형상적으로 사리와 리치에 맞게 신중하게 써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놓으신 송가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일데 대한 리론은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처음으로 밝힌 독창적인 리론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송가문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새롭게 밝히는데 기초하여 송가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그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힌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시가문학분야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형상에서 큰 몫을 말아야 할 송가문학이 뚜렷한 지도리론을 가지지 못하고 당과 수령을 칭송한 일반적인 송가리론의 테두리안에서 소극적으로 취급되어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와 우리 문학과 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에 기초하시어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송가문학창작리론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송가문학창작리론을 창시하시으로써 우리 당의 송가예술이 급속히 개화발전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혁명적시가문학전반이 새롭게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4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전형적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 대한 예술적형상은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전형을 통하여서도 실현된다.》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당조직선과 전형적인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당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즉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당은 수령과 대중사이의 혈연적뉴대를

맺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수령이 대중에게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가도록 살피주고 이끌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며 사람들에게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는 어머니품이다. 여기로부터 당조직선은 사람들이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선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당이 수령과 대중사이에는 노는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전형창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당일군의 전형은 곧 그의 전형적인 성격형상에서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에서 그 성격적특징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다. 여기로부터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충신으로, 인민의 충복으로 전형화해야 한다. 우리의 문학은 지난 시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통하여 우리 당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일군의 전형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문제는 개별적당일군에 대한 형상화에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당일군은 당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당일군을 찾아가는것은 사업과 생활 특히는 가정과 개인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당조직선을 타야 바로 풀린다는것을 자기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이 개별적당일군을 찾아가는것은 그것이 곧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과 태도문제라는것을 말해준다.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곧 수령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로 되며 동시에 그것은 당조직이 사람들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문제로 된다.

또한 그것은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간직하고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것으로도 된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써서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도식적인 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틀과 류형은 죽음이다. 특히 당과 수령의 위대성형상에서 그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한본새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작품들은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의의도 없다.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당일군은 그가 당일군이 기전에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으로 개성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창작실천에서는 개성이 없는 도식적이고 류형적인 당일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관한 문제로 된다. 원래 창작은 독창적이고 창발적인것이다. 우리의 현실생활에는 똑같은 것이란 있을수 없으며 다 제나름으로 개성적이고 고유하다. 생활이 다양하고 모든 사물현상이 고유하고 정황이 다른데 한틀에 맞추어 한본새로 작품을 쓰는것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당일군들의 형상에서는 거의나 모두가 점잖고 틀이 잡히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인물로 류형화되고있다. 그뿐아니라 인간관계설정이나 갈등관계, 감정조직, 지어 양상에서까지 류형적인 틀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대담하게 마스고 우리 시대 당일군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당일군의 형상을 특색이 있으면서도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또 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형상을 잘 그리는것이다.

여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은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보여줄수 있게 잘 그리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은 곧 당이 키워낸 인민의 장한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당조직에 망라되어있는 매 당원들의 구체적인 사업과 생활은 그대로 그 당조직에 대한 충분한 표상을 가질수 있게 한다.

작가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훌륭하게 감득할수 있게 그려야 한다. 이것이 당의 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아가야 할것이다.

석탄이! 석탄이!

김일남

생활은 어제와 같지 않아
집집의 칸수도 늘어나고
귀여운 자식들도 늘고
생활은 날마다
나도 몰래 행복을 실어다주는데

알기나 했던가
우리의 생활에 노래의 음향을 실어다주는것이
두줄기 전기선만이 아님을
발편잡을 자는 등밑에 흐르는것이
더운물만이 아님을

늘어나는 행복한 생활을 위해
늘어나는 그만큼 탄을 위해 바치는
탄부들의 땀방울 해아린적 있었던가

탄부들 바치는 낮과 밤의 대가로
불빛 아늑한 방에서 자고 이는
나의 진정을 말하노니

탄을 위해
석탄을 위해 바치는 한생
그것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우리의 생활을 지키는 삶
날마다 더 번영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한생

낮이나 밤이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성새를 높이 쌓으며
온 나라 어디서나 바라보는 탄전이여

그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나
탄전으로 지원의 발걸음 이어가고
이 땅의 청춘들은 남먼저
위훈의 꿈을 안고 달려가나니

심장엔 피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하듯이
결사의 고지에서 비껴든 총마다
탄알이 있어야 하듯이

오, 이 땅 이 생활
그 어디에나 석탄이 있어야 하나니
석탄이!
더없이 귀중한 이 석탄이!

회답

윤승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송연희는 회의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저녁차에 룡연땅을 떠나 밤이 늦어 평양에 도착하였다.

서관방에 들어서는 그를 황해북도의 벌방농장에서 고문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칠순나이의 전금녀대의원이 먼저 와있다가 반겨맞았다.

《어이구, 우리 짝패가 이제야 오는구만.》

수건을 떨며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나이에 비해서는 퍼그나 껌썸 걸음으로 문턱까지 마중을 나왔다. 잠옷바람이었다. 그의 머리는 이미 백발이었고 갈숨한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다.

머리수건을 푼 연희는 각듯이 인사를 하였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 나야 무탈했지, 그새 보고싶었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집에 편지를 보내주신 일을 생각하문 지금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네. 그대 수령님께 회답은 올렸나?》

《회답이요?》

송연희는 러행가방을 열다말고 전금녀를 돌아보았다. 회답이라는 말이 짜릿하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어린 편지를 받고도 소식한장 띄우지 못한 죄스러움이 한가슴에 가득차있는 그였다.

《못올렸어요. 사실 처음엔 올리자구 했었는데 그만...》

《왜 무슨 곡절이 있었나?》

전금녀는 앉은 자리에서 궁금한 기색을 지었다.

송연희는 얼른 대답할수가 없었다. 느닷없이 한숨이 새어나갔다. 이야기를 하자면 온 한해동안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아야 할터인데 이런 수인사속에 어떻게 그 긴 말을 다할수 있으랴싶었다.

《어서 누우세요. 피곤하실텐데...》

《아니, 난 일없네. 난 평양에 오문 잠이 통 안온다니까. 헌데 자네가 피곤하겠네그려.》

전금녀의 말에는 이야기를 듣고싶어하는 강렬한 심리가 배여있었다.

《전 일없어요.》

《그럼 어서 애길 하라구. 난 그 집 얘기가 듣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야. 그대 어찌다가 수령님께 회답을 올리지 못했나, 응?》

질책에 가까운 그의 물음을 듣고도 한동안 주섬 주섬 자리를 마련하고난 송연희는 사죄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일이지만 지난 2월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희들의 가정에 트랙트르운전수가 14 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분에 넘치게도 치하의 편지와 함께 7대의 트랙트르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지 않았나요.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전 눈물이 앞서요. 정말 온 마을, 온 농장이 감격에 울었어요.》

편지를 받은 그날밤에 우리 방안가득 모여앉았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래목에 앉으시고 시동생들, 동서들, 시누이, 시누이남편, 조카들 모두가 빼곡이 끼었었는데 참 눈물겨운 가정모임이었어요. 모임끝에 바로 어버이수령님께 회답편지를 올리자는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런걸 우리 세대주가 반대했어요. 어버이수령님께 기쁜 소식을 아뢰일만큼 해놓은 일이 없다는거지요. 그이는 농사철전에 개답틀 토지정리나 끝낸 다음 회답을 올리는게 어떠냐구 말하더군요. 전 남편의 말에 공감이 되더군요. 개답틀은 협동화직후에 밭을 논으로 푼것인데 일을 너무 바쁘게 하다나니 논배미들을 아직 규격포전으로 만들지 못했던거예요. 남편은 늘 이제 마음에 걸려 얘기하곤했었지요. 아직 이런것을 남겨둔건 우리 기계화가정의 수치라는것이였어요.》

송연희는 잠시 말을 끊고 전금녀를 돌아보았다. 로파는 까닥않고 앉아있었다.

《어머니, 좀 누우세요.》

《일없어, 어서 이야기하라구. 불을 끄고 이야기할가?》

로파의 말을 따라 송연희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끈 다음 폭신한 침대우에 올라앉았다. 수도의 밤거리에서 명멸하는 색등들의 화려한 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었다. 그는 두눈을 슬벅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개답틀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트랙트르발동소리가 그칠줄을 몰랐다.

남편의 말기로 운토기라는것이 창안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포전정리를 하게 되니 하루가 다르게 일자리가 났다. 운토기는 거의 한토씩 흙을 파들고 껌싸게 짧은 거리를 나룰수 있게 만든 매우 간편한 기계였다. 운토기를 단 14대의 트랙토르들은 설사 없이 움직이며 포전을 넓혀갔다.

멀리 불타산마루로 아침해가 떠오를무렵이면 송연희는 막내딸 현미와 함께 개답들을 향하여 집을 나서곤했다. 그러면 동서들이며 시누이가 바쁜 걸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밤에는 남정들이 차를 타고 아침이면 이렇게 녀성들이 교대를 나가는 것이었다. 교대정비를 마치고 녀성들이 차에 올라 짝패들을 바래올 때면 남자들은 병실거리며 손을 흔들려주곤하였다.

포전정리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날 중낮무렵이었다. 아침에 교대를 하고 들어갔던 남편이 다시금 포전으로 나왔다. 남편은 웬일인지 바쁜 걸음으로 포전을 가로질러오더니 곧장 차앞으로 다가왔다. 송연희는 트랙토르를 멈추고 운전실문을 열어주었다.

《어떻게 나왔어요? 쉬시지 않구...》

자기 교대를 타고서도 일이 생기면 늘 현장으로 달려오곤하는 남편이어서 그는 걱정스레 물었다.

남편은 말없이 팔판을 딛고 운전실로 오르더니 작업복 뒤주머니에서 절반 접은 공책을 한권 꺼내 드는 것이었다.

《이걸 좀 보오. 현미가 무슨 일을 하고있나.》

송연희는 공책을 받아들고 후르르 번져보았다. 공책은 쓰고 지우고 한 어지러운 글씨들로 가득차 있었다. 현미의 글씨가 옳았다. 자세히 보려고 첫장부터 다시금 펼치던 그는 대번에 눈이 콧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 올리는 회답편지의 초안지였다. 송연희는 가슴속이 두근거리면서 막 호흡이 가빠왔다. 현미가 이런 글을 쓰다니... 그는 남편이 딸에게 부탁하여 이렇게 초안을 쓰도록 한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하며 한자한자 글줄을 엮어나가기 시작했다. 딸은 자기가 이 집안의 14번째 운전수라는것을 밝힌 다음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대해 쓰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맹세를 적었다. 감격어린 눈물도 있고 뜨거운 심장의 열도 있고 앞날에 대한 신심과 포부도 있었다.

《참 그럴듯하게 썼군요. 당신이 시켰나요?》

송연희는 가빠오르는 숨결을 가라앉히고 조용한 눈길로 남편을 돌아보았다.

《시키다니, 전번날 그애가 나한테 한번 말을 하더군. < 아버지, 이제 포전정리도 끝나가는데 어버이수령님께 회답편지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구... 그래서 난 <그래 그 준비란게 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애는 <우선 아버지가 초안을 쓰시는거죠.》 하지 않겠소. 난 조용히 말해주었소. <물론 회답편지를 올리는게 도리는 도리이겠지만 어째선지 난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하구... 그런데 아까 집에 들어가 밥을 먹구나서 책을 좀 불가하구 옷방엘 올라가니 글씨 책상위에 이게 놓여있질 않겠소. 원 애가 너무 당돌하다니까...》

송연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미가 기특하게 여겨졌다. 어버이수령님께 회답을 올리는것은 온가정의 공통된 심정이고 응당한 일이 아닐가싶었다. 하지만 현미의 글이 집안을 대변할수는 없는 것이었다. 회답을 올리자면 그래도 세대주인 남편이 가정을 대표해서 모두의 심정을 피력해야 할것 같았다. 그는 남편에게 공책을 넘겨주며 나직이 말했다.

《내 생각엔 회답을 당신이 직접 써야 할것 같군요.》

《그럼 당신도 이제 회답을 올리자는거요?》

공책을 받아들면서 남편은 눈이 둥그레졌다.

《올려야 할것 같아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소식을 기다리실것만 같군요.》

《물론 그러실테지. 하지만...》

남편은 근심에 싸인듯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남편은 아무말없이 차에서 훌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멀리에 보이는 현미가 모는 트랙토르걸로 다가갔다.

송연희는 남편이 현미의 차에 오르는 거동이며 운전실문이 닫히고 다시금 트랙토르가 앞으로 떠나는 모양을 생각깊은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무렵,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송연희는 딸에게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냐?》

현미는 못들은척 잠잠했다.

해는 신화산너머로 잠기고 서녘하늘에 감빛노을이 연하게 물들고있었다. 모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아직은 어머니의 키를 따라잡지 못했으나 현미는 날씬한 몸매로 하여 더 커보이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오희하니 날이 선 코며 도드라져나온 앵두입술이 더욱 예뻐보이는 막내딸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미의 얼굴은 침울해보였다.

《아버진 너무해요.》

딸은 고개를 외로 쏜채 불이 부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송연희는 이것이 현미의 꾸민 표정이고 어리광이라는것을 느끼며 빙그레 웃었다.

《아버진 차에 오르지자부터 막 꾸짖어요. <누가 널보구 이런 글을 쓰라고 했느냐?>, <넌 이런 글

을 울리기엔 아직 일러!)>, <이런 글은 심장에다 새겨놓고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라!> ... 난 그만 났이 빠지고말았어요. 한참만에야 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 영 회답을 안올리실 생각이나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왜 안올려? 나도 지금 궁리하고있는중이다.> 하시잖겠어요. 그러시고는 글썽 날보구 착실하게 일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호호호...》

현미는 처음과는 달리 갑자기 허리를 감싹거리며 웃어댔다. 그러나 어째선지 송연희는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가슴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래, 너도 나도 아버지를 도와 일을 많이 하고 수령님께 훌륭한 편지를 올리자꾸나.》

그는 진정에 넘쳐 말했다. 이제 포전정리나 끝내고 남편이 초안을 쓰면 딸과 함께, 온 집안식구들과 함께 한자한자 금옥같이 다듬으리라.

그런데 어찌하랴. 포전정리가 끝나고 씨뿌리기 철이 다가오도록 남편은 회답편지의 초안지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휴식날이었다.

송연희는 밀린 빨래감들을 비닐버치에 가득 담아가지고 박우물로 나갔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빨래줄을 좀 매주세요!》

그는 토방에 버치를 내려놓고는 방안에 대고 소리를 쳤다.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빨래줄을 좀 매여달라니까.》

《가만 있소.》

옷방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느리게 흘러나왔다. 그렇지만 남편은 무엇을 그리도 꾸물거리는지 나오지를 않았다.

(무슨 일감을 붙잡았기에...)

그는 슬그머니 옷방창문에 이마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책상앞에 고개를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무엇에 열중했는지 도무지 일어날 잡도리가 아니었다.

(아, 회답을 쓰는구나!)

송연희는 얼른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이때 산뜻한 연청색코트를 입은 현미가 노래를 부르면서 프락으로 들어섰다. 어디에 가서 처녀들끼리 즐겁게 놀던 모양이었다. 연희는 급히 딸에게로 마주 달려가며 손가락을 푹푹 세워 입가에 가져갔다.

《췌, 조용해라! 아버지가 지금 회답편지를 쓰고 계신단다.》

《정말이요?》

현미의 커다란 두눈은 웃음을 머금고 환희롭게 반짝이었다.

《정말 아니구.》

송연희는 딸과 함께 빨래줄을 매고는 조심조심 옷가지들을 퍼넣었다. 그제서야 남편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됐어요. 어서 들어가 하던 일이나 마저 하세요.》

연희는 남편을 떠밀어 안으로 들여보냈다.

남편은 오후에도 옷방에 꼭 박혀있었다. 연희와 현미는 아버지가 방해될세라 웃음소리도 삼키며 조용히 제할 일을 했다.

저녁밥을 먹느라 함께 상머리에 둘러앉았을 때에야 현미가 불쑥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초안이 다 되었나요?》

남편은 밥손가락을 입가로 가져가다말고 현미를 돌아보았다.

《오- 그것 말이나. 허허허... 좀 기다리려무나. 밥을 먹구나서 보여주마. 그렇지 않아도 한번 토론에 붙여보자던건데 ...》

《아이참, 밥이 다 뭐예요. 그것부터 보지요. 제가 가져오겠어요.》

현미는 내던지듯 손가락을 상우에 놓더니 빠르게 옷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현미는 인차 내려오지 않았다.

《어디 있어요. 아버지?》

《허허, 내가 올라가마. 참 애두, 밥이나 먹은 다음에 보자니까...》

남편은 수저를 놓고 옷방으로 올라가더니 커다란 종이말이를 하나 들고내려왔다.

《자, 이걸 보아라. 당신도 좀 보구려.》

남편은 그것을 방바닥우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회답편지의 초안지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졌는데 웃머리를 보니 《신성등관발판개략도》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연희는 놀라운 심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이것을 그리느라고 쉬는날 하루를 깡그리 바쳤구나! 그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더욱 돋보이면서 자신이 반성되기도 했다.

현미는 아예 그림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머리로 돌아앉은 현미는 사뭇 울상이 되어 아버지를 결눈질해보았다.

《왜 그렇게 심사가 꼬였느냐?》

남편이 딸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호호, 나때문이에요. 난 오늘 당신이 회답편지를 쓰시는줄 알구 저애한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발판개략도를 그렸으니...》

그는 미더움이 깃든 정겨운 눈길로 남편이 그린 개략도를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진정이 가슴뜨겁게 젖어왔다. 일밖에 모르는 남편, 앓으나 서나 그 언제든 일감을 찾아내어 온 가정을 이끌고나아가는 남편이었다. 이러한 남편에게 자기는 안해로서, 혁명동지로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것만 같았다.

《허허, 그랬됐구만... 현미야, 그러지 말구 이걸 좀 보려무나. 개답틀 토지정리는 다했다쳐두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아무래두 신성등관 관수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것 같다. 물론 재래식방법으로 발판개공사를 해놓긴 하였지만 매해 그제 은을 내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린 거기에다 이렇게 물주머니들을 만들어놓구 강우식발판수를 하자는거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판수를 해놓구 그 소식을 어버이수령님께 아뢰이자꾸나. 그래 어머냐. 아버지가 그린 략도대루 하면 될상싶냐?》

딸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길은 여전히 웃고있었다.

《되겠지요 뭐. 아버지가 언제 틀린 일을 한적이 있나요?》

현미의 대답은 곱게 나오지 않았다.

송연희는 딸이 너무 앵돌아진것 같아 한마디 타일러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현미야, 그러면 못쓴다. 아버지말씀대루 신성등관발판개공사를 마저 해놓구 땀땀한 마음으로 회답을 올리는게 좋을것 같구나.》

이렇게 되어 발판개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공사가 끝난뒤에 편이여 씨뿌리기전투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남편은 회답편지를 쓰자는 말을 내지 않았다. 연희는 남편이 또 무슨 일감을 하나 장만하느라고 편지쓰기를 뒤로 미루는것 같아 입을 다문채로 있었다. 딸조차 더는 보채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리해되는 모양이었다.

온 가정은 일에 묻혀 나날을 보냈다.

아침해가 키높은 백양나무 가로수들사이로 둥근 얼굴을 내밀고 길옆의 애어린 풀잎에서 이슬이 구으로 땀면 송연희는 씨뿌리는 기계를 달고 포전으로 달리곤하였다. 그의 뒤로는 현미며 시누이며 동서들이 보습이며 씨레며 작조기를 단 프락포르를 몰고 줄레줄레 따라왔다. 14대의 프락포르가 하나의 기계화작업조를 뭉고 신바람나게 씨뿌리기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발머리에 다달으면 여기저기서 종달새들이 날아올랐다. 새들은 즐거운듯이 작은 나래를 파닥거리며 프락포르우를 날아서는 멀리멀리로 사라졌다. 연희는 거름을 내고 흙갈이를 하여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밭을 기운차게 내달리었다. 그는 씨뿌리는 기계로 작업조의 맨 뒤에서 일을 마감지어나갔다. 작조기로 이랑을 짓는것은 막내딸 현미였고 씨레를 치는것은 시누이와 조카딸이었고 보습으로 땅을 갈아번지며 선행공정을 다그치는것은 동서들이었다. 동서들은 멀리서 차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어서 따라오라는듯 팔을 휘젓는다. 그러면 가까이에서 시누이와 조카딸이 손저어 화답을 하고 편이여 현미가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보낸다. 송연희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주 웃었다. 프락포르들이 지날 때마다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대지의 모양이 류다르게 눈에 띄었다. 보습날에 겹게 번져지는 땅, 씨레질로 보드라와지는 흙, 작조기로 그어놓는 사래긴 이랑들... 그 이랑이랑에 송연희는 씨앗을 묻어간다. 이

제 줌 있으면 푸른 싹이 움터날것이었다. 그는 풍년 꿈을 꾸는 모양을 상상해보았다.

드바쁜속에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날이 왔다.

신성등관에 새로 한 발판수가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발판수에 특별히 성수를 내는것은 막내딸 현미였다. 땡벌이 내려쪼이면 멀리 불타산쪽에서 목마른 새들이 찾아와 은하수마냥 비껴흐르는 강우기의 물줄기결을 날아예군했다. 우줄우줄 자라오르는 강냉이포기에 소리치며 쏟아져내리는 소낙비, 훑날리는 그 물보라속에 아름답게 어리는 칠색무지개... 송연희는 발동소리를 울리며 황홀경에 잠겨 강우기의 손잡이를 돌리곤했다. 그는 가끔 빨간 비옷을 입은 현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현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딸은 마치 자기가 프락포르를 모는 운전수라기보다 은빛젖줄기를 뿜어 대지를 살지우고 온갖 생명을 자라우는 동화속의 너왕이라도 된듯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딸에게 뜻깊은 미소를 보내었다.

저편 발머리에서는 동서들이 프락포르를 세워놓고 강우기로 물을 쏘올리고있었다. 물줄기들은 마치 거대한 붓이 되어 푸르른 대지우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있는상심기도 했다.

이런 나날속에 어느덧 가을이 오고 송연희는 이렇게 평양에 올라오게 되었던것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증을 품고 그가 집을 떠나던 날 딸은 아쉬움에 찬 어조로 말했다.

《결국은 어버이수령님께 회답을 올리지 못했군요. 그런데 어머니, 수령님께서 저희들의 회답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가요? 전 그게 걱정돼요.》

현미는 눈물이 글썽해져서 고개를 수그리었다.

《물론 기다리셨겠지.》

송연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죄스러운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평양으로 떠나왔다. 그런데 전금녀대의원까지도 이렇게 만나자바람으로 회답편지에 대해 묻고있지 않는가...

송연희는 이야기를 멈추고 건너편 침대를 바라보았다. 전금녀대의원은 베개우에 한팔을 짚고는 이쪽으로 돌아앉아있었다. 밖에서 비쳐드는 불빛에 그의 흰 머리카락이며 삼박거리는 두눈의 옅은 눈시울까지 확연히 드러났다.

《잘못했어. 회답을 올렸어야 할걸...》

전금녀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아예 상반신을 일으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왜 회답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겠나.》

14명 프락포르운전수들이 대견스러워서 친차식처럼 여기시며 수령님께선 편지를 보내주신게 아니겠나?... 그런 어버이수령님께서 왜 그 집소식을 기다리지 않으셨겠나!》

전금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쉬움고 섬섬한 감정과 지어 노여움이 배인 그 말마디들은 송

연회의 가슴을 아프게 찢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전금녀가 자리에 누운 다음에도 점도록 앉아있었다. 밤은 퍼그나 깊은것 같았다. 전차의 경적 소리도 뜨음해지고 다만 밤거리에 명멸하는 색등들의 여광이 은근하게 방안으로 흘러들뿐이었다. 그는 생각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수그리며 천천히 누웠다.

눈을 감으니 불현듯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옵던 일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오른다.

1978년 1월, 전국농업대회가 시작되어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송연회는 첫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사회자가 이름을 부른 다음에도 자리에 앉은채 분홍빛저고리고름단 쥐여짜고있었다. 가슴이 활랑거리고 온몸이 떨려서 일어설수가 없었다. 토론이라고는 꿈에서조차 해보지 못한 그였다.

그는 어제저녁에야 갑자기 토론준비를 하라는 기별을 받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 농업대회에 부부프락트르운전수가 함께 참가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집안형편을 물으시다가 그의 집에서 9명이 프락트르운전수로 일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못내 놀라와하시며 다음날에는 송연회동무의 토론부터 들어보자고 하시었다는것이였다. 그는 토론준비는커녕 밤새도록 흥분속에 모대기였다.

옆사람이 충고를 해서야 그는 겨우 자리를 떴다. 사람들의 무릎을 건드리며 의사사이길로 나섰으나 그는 발걸음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다.

한참만에야 주석단모퉁이로 올라선 그는 중심에 앉아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큰절을 올리였다.

《어디 토론을 좀 들어봅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격려하시듯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송연회는 연락으로 나섰다. 그런데 어찌하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무슨 말로 첫마디를 떼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저는…》하고 그는 힘들게 입술을 떼였다.

《이런 연단에서 토론을 할만큼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였고 얼굴은 확확 달아올랐다.

이때였다. 진정치 못하는 그의 마음속을 헤아리신듯 어버이수령님께서 회의참가자들을 향해 일어서시였다.

《내가 먼저 이 동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무들! 이 동무네 집에는 아홉명이 프락트르운전수요. 남편, 시동생, 동서들 그리고 시누이와 시누이남편 할것없이 모두다 운전수요. 그야말로 이 집은 기계화가정지요! 참으로 훌륭한 농촌로동계급의 모범가정이요!》

두팔을 추켜드리고 손가락으로 꼽아나가시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에는 진한 흥분이 배어있었다. 그이께서는 얼핏 주석단뒤좌석을 돌아보시더니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동무의 남편은 주석단에 앉았소. 어디 있소. 박진구동무!》

남편은 주석단 세번째줄에 앉아있었는데 수령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것도 느끼지 못한듯 무엇인가를 열심히 수첩에 적고있었다.

《어디 있소? 박진구동무!》

수령님께서 다시금 이름을 부르시였을 때에야 남편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자, 다들 보시오. 이 동무는 남편이고 이 동무는 안해요! 얼마나 자랑스럽소. 농촌로동계급의 모범가정, 일잘하는 프락트르운전수부부에게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이께서 먼저 손벽을 치시자 회의장이 떠나갈듯 폭풍같은 박수가 터져올랐다.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온 회의장을 둘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남편을 향해 자리에 앉도록 하시고 자신께서도 앉으시였다. 소낙비가 그치듯이 차차로 박수소리가 잦아들었다. 회의장은 잠잠해졌다.

《자, 이젠 토론을 들어봅시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송연회를 돌아보시였다.

송연회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일던 격량이 잔파도만 남기고 사라져버린것을 느꼈다. 그는 아까와 같지 않게 추연히 머리를 들고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였다.

그는 시누이며 동서들이 프락트르운전을 배우던 일이며 남편과 자기가 기술을 혁신하여 기름을 절약한 사실이며 프락트르정비를 잘하고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여 13년동안 한번도 고장을 내지 않은 사실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송연회는 어버이수령님의 눈길이가끔 피부에 와닿는것을 느끼곤하였다. 그이께서는 쥐고계시는 연필끝으로 이따금 책상위에 놓인 종이장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가 토론을 끝냈을 때 그이께서는 얼굴에 환한 만족의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앉으신 자리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감동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좋은 일이요. 이 동무의 얘기를 들으면서 동무들모두가 많은것을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이 강대하고 농촌이 왕성하게 기계화되고 있는것입니다. 나는 모든 협동농장 관리일군들과 당조직에 한가지 호소하고싶습니다. 동무들, 나는 이 가정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자라는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에 대한 호응으로 일시에 박수가 터져올랐다. 그이께서도 마주 박수를 보내시였다. 드넓은 회의장은 흥분과 격동의 우리로 가득찼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그들 부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다같이 공훈프락트르운전수가 되었고 남

편은 로력영웅으로, 송연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났다.

얼마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운전수가 14 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치하의 편지를 보내주신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크나큰 표창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어린 편지를 받고도 회답조차 올리지 못했으니 이게 어디 잘된 일인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바람에 송연희는 눈을 떴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급히 걸옷을 걸친 다음 불을 켜고는 출입문을 열었다. 젊은 관리원녀인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안됐습니다. 새벽잠을 깨워서... 송연희대의원 동지시죠?》

《예, 제가 송연희예요.》

그는 반사적으로 대답하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방입니다. 들어가보십시오!》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띤 중년의 키 큰 남자가 열려진 문앞으로 다가와 섰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송연희는 약간 고개를 숙이는것으로 답례하고는 그를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어느새 전금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입었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우.》

전금녀가 자기 침대를 가리키며 손님을 친절히 맞이하였다.

《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수령님께서 송연희동무를 부르십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먼저 송연희동무를 만나자고 하십니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송연희는 문가에 섰채로 움직일수가 없었다. 온몸이 찢찢하게 굳어지는것 같았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로 부르시는걸까?

이 딸이 어떻게 그이를 뵈옵는단말인가? 무슨 면목으로 그이앞에 나선단말인가?... 그는 저절로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느끼면서 찾아드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도 회답을 못올린 저희들이온데 그이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시는걸가요?》

《오, 회답말입니까? 수령님께서선 바로 그것때문에 송연희동무를 만나고싶어하십니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의 회답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훌륭한 기계화가정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송연희는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그이께서 회답을 받으시다니?... 커다란 의혹이 머리속을 감돌기 시작하였다.

《허허,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수령님께서선 동무들이 대지우에 쓴 진짜 회답편지를 보신것입니다.

동무들이 기계로 농사지은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선 이게 바로 자신께서 바라시던 회답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백만장의 종이우에 쓴 글줄에 비기겠느냐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선 한가정에서 열네명이 트랙트르운 전수로 일하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내놓은 사회주의농촌체제가 현실로 꽃피난 참모습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네 집 열네명운전수들이 올리는 트랙트르발동소리는 곧 온 세상에 대고 농촌체제의 승리를 선포하는 축포소리나 같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드세찬 충격이 송연희의 가슴을 두드리었다. 심장의 박동이 커지면서 온몸으로 뜨거운 피가 격랑치듯 퍼져가는것을 느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선 전세 우리들의 회답편지를 받아보셨다. 언제나 인민의 마음을 읽으시는 수령님이시기에 풍년든 대지에 바쳐진 우리들의 땀방울 하나까지도 모두 헤아리고계시구나! ... 그는 목이 짹 메여올랐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당초부터 가벼운 종이우에 회답을 쓰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은것 같았다. 그래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온 가정이 농사에 힘쓰며 대지우에 진정을 쏟게 하자고 은근히 마음을 기울여온게 아닌가...

《자, 어서 떠날 차비를 하십시오. 수령님께서 기다리고계십니다.》

데리러 온 일군이 손목시계를 보며 보채듯 말했다.

송연희는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여입고는 거울앞으로 다가가갔다. 그리고는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연회색 코트는 너무 품이 넓은것 같았다. 10 여년전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옵던 그때보다 모습은 또 얼마나 달라졌는가. 들바람에 그슬려 철색을 띤 얼굴, 잔주름이 건너간 볼이며 쌍겹친 눈, 약간 쳐들린 코, 두툼한 입술... 수령님께서선 첫눈에 알아보실까?... 그는 거울속에 비치인 자기모습을 보고 또 보았다.

《그만하문 됐네, 어서 떠나라구.》

뒤에서 전금녀가 말했다.

《참, 아버지수령님처럼 자애로우신분은 이 세상에 없네. 난 공연히 회답애기를 꺼내서 자네한테 근심만 끼친가보네. 용서하라구.》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럼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응, 어서 떠나라구.》

전금녀는 러관마당까지 따라나왔다.

마당에서는 승용차가 그를 대기하고있었다. 러관을 벗어난 승용차는 수도의 맑은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을 시각이 한초한초 다가오고있음을 흥분속에 느끼면서 송연희는 줄곧 앞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동녘하늘에 붉은 노을이 비끼고있었다. 뒤미처 밝고 둥근 태양이 온 누리에 빛을 뿌리며 솟아오를것이다.

탑이 보이는곳에서

박두일

보람찬 금요일로동의 아침이 밝았다.

나는 햇슴같은 안개발이 흩날리는 보통강유보도의 포석을 밟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건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갓 잠에서 깨어난 새들의 청아한 지저귂소리, 첩병거리는 물소리에 이어 간간히 들려오는 새벽닭시군들의 웃음소리.

수려한 자연의 풍치속에 터전을 잡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은 바야흐로 다가오는 7월의 그날을 기다리고있었다.

내가 건설장입구에 들어섰을 때였다.

어디선가 방울 굴러가는듯한 처녀애들의 웃음소리가 새벽정서에 한껏 취한 나의 사색을 흔들여 놓았다.

《애두참, 저 모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것이야.》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그런데 왜 승리한 모습을 세우지 않았을까?》

《글쎄...》

열뒤살남짓한 소녀들이 탑전경도앞에서 호기심에 가득찬 눈길들을 마주하고있었다.

나는 철없는 애들이지만 무엇인가 깊은것을 리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록하여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그들곁에 다가갔다.

나는 함부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끼여들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탑의 모습을 우러렸다.

하늘높이 나뭇기는 공화국기발, 포연탄우를 헤쳐온 군복자락으로 뒤를 향해 내뻗친 억센 손길, 바라보면 볼수록 전사의 믿음과 확신에 찬 눈길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어찌 전쟁승리만을 기념하여 세웠다 하라.

이제는 전쟁의 포화가 멎어 40년, 어제날 전선길을 달리던 꼬마전사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앉고 포연질었던 산천에도 마흔번째 계절이 찾아왔다.

숲이 자라고 오곡이 무르익으며 이 땅은 어디가나 락원으로 전변되어 전쟁의 흔적은 찾아볼길조차 없건만 전후에 자란 새 세대들은 옛이야기처럼 들어온 40년전 전사의 모습을 행복의 노래소리 흘러넘치는 보통강 기슭에 세운다.

생각할수록 가슴후터워지는 일이다.

나는 처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밤 잠못이루며 승리한 전사들의 군상을 제나름으로 상상해보았다.

따발총을 높이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 전승열병식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모습, 그러나 탑우에 세워진 모습은 그 모든것이 아니었다.

나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왜 저 모습을 세웠을까?)

순간 번개같은 섬광이 일며 흉벽을 두드리는 세찬 울림이 온몸에 격정의 파도를 몰아왔다.

후대들을 부르는 모습.

아 그것이였다. 탑우에 세워진 전사는 항일선렬들의 붉은피로 물들여진 기발을 지켜 불비 쏟아지는 락동강을 헤쳐넘은 영웅전사들의 이름으로 시대의 탑우에서 우리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후대들을 부르는 모습, 그렇다. 저 눈빛, 저 손길은 대를 이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 떨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모습이다.

서해갑문과 북부철길, 본계선초소와 서해간석지 그 어디를 가나 저 모습은 당의 명령을 받들어 불길처럼 솟아오른 수많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산군상으로 펼쳐지고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여기도 싸우는 1211 고지다!》

세월을 넘고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서 도도히 맥박치는 이 일편단심은 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50년대 영웅전사들의 의지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대를 이어가는 혁명전통.

전통이 있어도 계승이 없다면 그 혁명은 벌써 원천이 없는 고인물과도 같이 변질되기마련이다.

얼마나 많은 피의 교훈이 이것을 증명하고있는가.

수십년간 쌓아올린 사회주의진지가 물먹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인민의 세기적념원이 유럽의 거리들에서 락엽처럼 짓밟히는 오늘의 현실, 유구한 민족의 자량과 강대한 대국의 존엄이 갈기갈기 찢겨져 조국을 찾으며 우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눈물로 흐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발이 높이 날리던 거리들이 민족불행의 대동란속에서 사람 못살 폐허로 되고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참상인가.

그러나 사회주의의 성세이고 보루인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고립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도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있다.

보라. 가슴마다 피가 끓는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을.

보라.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사회주의고지를 지키고있어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어 언제 한번 신념이 흔들릴 때가 없으며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이 있다 하여 자기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모색한 일이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날뛰어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세계반동들의 아성에 호된 타격을 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나날이나 전화의 나날이나 침략자들에게 빈말을 하지 않는 인민이다.

그날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시대 청년들도 결코 제국주의자들에게 빈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한 청년돌격대원이 읊던 시구절이 생각났다.

당이 심장이 되면 우리는 뛸뛰는 피줄이 되리

당이 번개가 되면 우리는 폭풍을 안은 우뢰가 되리

총포탄이 되어 우리는 지키리라

김정일 그이는 우리 일심단결의 구심점

김정일 그이는 우리 조국의 모든 미래

그렇다, 우리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흥분으로 설레는 마음을 다잡으며 소녀들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직이 그러나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애들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은 혁명의 3세, 4세들을 부르는 선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인민이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세우는 사회주의 신념의 탑이기도 하지.》

까만 눈동자들이 새별처럼 빛나며 오래도록 나의 얼굴에 머물러있었다.

나는 소녀들의 작은 가슴에서 뿜이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있었다. 마치 그 소리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건설장은 더 한층 들끓는것 같았다.

호각소리, 마치소리, 크고작은 기계들의 둔중한 음향소리, 지심을 흔드는 그 소리는 부름과 화답의 메아리로 건설장을 울리며 멀리멀리 퍼져가고있었다.

바 래 움

남련희

하얀 앞치마
한번 빨기도전에
이렇게 떠나는군요
먼 산으로

당비서아바이도 남으라고 했다
지요
갓 결혼한 사이라구
이 봄엔 오손도손 정도 나누며
손을 잡구 새살림도 꾸리라구요

그러나 가세요 먼 산으로
풀물든 옷 나란히 입고
함께 걷던 탐사의 길
이제는 하얀 실험복차림으로
내 손들어 바래줄적에
나를 두고 간다고 생각 마세요

분석실 창문넘어 마을을 넘어
봄잔디 파아란 언덕을 넘어
숲속에 길옆에 먼 산속에
은빛으로 금빛으로 꽃들이 피
었으니
다투어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이

아세요 바래우며 따라서는 내
마음인줄

땀에 젖은 작업복 씻어갈제면
손맛도 부드러운 맑은 풀개물
아세요, 내 마음이 흘러내린것
인줄
아슬한 벼랑 가파로운 츠렁길엔
아세요,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내 마음 그 손도 잡아주는줄

천막가의 밤이면
반짝이는 별하늘 바라보며
언젠가 내 눈 별같다고 했지만
내 눈 그 무슨 별이겠나요
그러나 보내오는 시료를 보며
자꾸만 자꾸만 젖어들 나의 눈빛
아세요, 하늘가에 반짝이는 별
빛인줄

한생을 탐사의 길에
다 바치자고 약속한 사랑
밤에도 낮에도 꿈속에서도
기다리는 내앞으로

오실 땐 오실 땐
꽃빛처럼 다채로운 보화를 안
고 오세요
별빛처럼 반짝이는 광맥을 안
고 오세요

아, 이렇게 바래우고
기다리는것이 행복이어서
손저어 바래우는 내 마음의 하늘엔
한점 작별의 애수도 없는것 아
닐가요
그것으로 하여 어머니조국에
우리는 더더욱 가까와지는것
아닐가요

떠날 땐 꽃잎이 깔렸던 길에
돌아올 땐 함박눈 내릴거예요
봄, 가을 기다린 내 마음이
눈송이 되어 하얗게 내릴적에
행복이 행복이 무엇인지들
우리의 만남으로 마을이 알게
온 조국이 다 알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창고앞에서

한웅빈

《대대장동지- ! 야단났어요- ! 창고에서 창고장아바이하구 3 소대장동지가 대판 붙었어요. 막 소리치구 손을 휘두르면서- !》

《뭐요?》

대대장 광철은 벌떡 일어났다. 결상이 뒤로 밀려나며 자빠지고 만년필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그 소란스런 소리에 통계원처너는 눈이 더욱 동그래져서 기관총사격같은 말씨가 더 빨라졌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아요! 점점 더 목소리들만 높아지구 무슨 일이 날것만 같어요! 3 소대장동진 글썽 …》

광철은 벌써 문을 나서고있었다.

《빨리 가보지요!》

혼합물냄새와 자동차배기가스냄새가 불가결의 원소처럼 배어있는 대기는 각종 기계소리와 방송소리, 사람들의 웅성소리로 진동하고있었다. 광철은 골채더미와 철근더미를 성큼성큼 넘으며 세멘트창고로 성급히 걸었다.

《글썽 3 소대장동지가… 세멘트를 달랬지요 뭐… 그랬더니 창고장아바이가…》

처너는 숨가쁘게 쫓아오면서 토막토막 끊기는 말로 자초지종을 열심히 고해바쳤다.

《…안… 안된다는거예요… 못준다는거죠 뭐… 세멘트를 초과했다면서 말이에요… 소대장동진 어떻게든… 소대병실을 마저 미장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창고장아바이인 절대로… 안된다는거예요.》

《한그람도 더 출고할건 없네! 창고가 무슨 세멘트나오는 셈인줄 아나?》 그러니까… 소대장동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하는데…》

처너는 다섯걸음에 한번씩은 달음질쳐 쫓아오면서 두사람의 격렬한 대화를 록음테이프 풀듯이 그대로 엮어냈다.

《〈그게야 소대장이 생각할 일이지, 세멘트를 비에 맞춰 못쓰게 만들 땐 아무 생각도 없었나?〉

〈그러잖아도 비판을 받았수다. 자기비판도 했구요.〉

〈비판을 했어두 세멘트는 한그람두 도루 생겨나지 않았어!〉

〈아바이, 내 잘못했수다. 빨리 주시구려. 오늘 월총화를 짓는데 미장을 채 못해서 1 등할걸 끌등하면 되겠어요?〉

〈1 등과 세멘트를 바꾼단 말이지?〉

〈이 아바이 정말! 대대장한테도 다 말했수다. 출고증에 있는 대대장수표가 보이지 않소?〉

〈대대장이?〉》

처너는 또 한차례 달음질로 따라왔다.

《창고장은 출고증을 다시 보더니 〈대대장이 아니라 러단장이 수표했대두 안되네.〉 하고 딱 잘라 매는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소대장동지가 왈각하고말았지요 뭐.》

〈대대장도 모르면 아바이인 누구 지시를 받소? 이 세멘트가 아바이의 세멘트요?〉

아바이인 노발대발해서 막-…》

처너는 불로코장들에 걸쳐어 넘어질뻔하면서도 대대장의 얼굴에서 놀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처너가 놀랜것은 창고장아바이와 3 소대장이 싸운다는데 있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이 건설장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닥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했다. 워낙 건설이라는게 격동적인 일인데다가 3 만세대를 전승 40 뿔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긴박감때문에 론쟁도 자주 있었고 그것이 언쟁으로 번지거나 더 큰 떠들썩한 소동으로 번져가는 때도 있었다. 처너가 놀랜것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일을 하자니까 그럴수도 있지.》 하거나 《전진도상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야.》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할줄 알았던 대대장이 불에 덴듯이 뛰쳐일어나 직접 나가는 사실이였다. 처너의 기억에 의하면 대대장은 아직 그런 언쟁을 말리기 위하여 서둘러 나서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년필이 굴러떨어진것도 모르고 서둘러 나선것이였다. 처너는 이번의 언쟁이 이만저만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게 대대장동지가 직접 나섰지.〉

까닭없이 그는 책상우에 올려놓은 만년필이 도로 굴러떨어지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나 광철이 서둘러 나선것은 그것이 큰 사건이여서가 아니였다. 창고장아바이와 관계되는 일이였기때문이었다.

대대에서는 흔히 《창고장아바이》 또는 《성만아바이》라고 부르는 창고장이 광철에게는 단순한 아바이가 아니라 《반장동지》 또는 《직장장동지》였다.

아바이는 로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디디던 시절 광철에게 일을 배워준 사람이었다. 욕도 많이 먹었고 칭찬도 많이 들었다. 성만반장은 성질이 무척 급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화선성격》이라고 말했다. 광철은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거의 숭배하듯이 존경했다.

공장에 들어가 한달남짓했을 때 있는 일은 광철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작업반은 후야근교대여서 여느날처럼 몇 시간 앞당겨나와 휴게실에 누워들있었다. 교대시간이 될 때까지 미리 한잠 자두려는 것이었다. 광철은 성만반장의 옆에 누워있었다. 반장은 인차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광철은 밤교대에 습관되지 않아 한동안 뒤척거리다가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한창 어수선한 꿈속을 헤매던 그는 귀가에서 울리는 벼락치는 듯한 소리에 화닥닥 놀래여 깨어났다.

《돌격앞으로-!》

성만반장이 상반신을 일으켜세우고 웨치고있는 것이었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반원들이 모두 깨어났다. 광철은 공포에 가까운 놀라움에 차서 반장을 쳐다보기만 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반장동무-! 반장동무-!》

반원들이 잡아흔들어서야 반장은 조용해졌다. 허나 둘러보는 두눈은 피발이 서있었고 불이 황황이는 듯했다. 잠자던 사람의 눈갈지 않았다.

《...》

이윽해서야 반장은 긴숨을 내쉬며 털썩하고 도로 누워버렸다.

그제야 광철은 반장이 잠꼬대를 하였음을 깨달았다. 반원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중대장, 소대장이 모두 전사하고 많은 전우들이 쓰러진 X X 교지 전투가 꿈에서 나타날 때면 그러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투가 성만반장에게는 마지막 전투였다고 한다. 중상으로 후송되었고 후방병원에서 전승의 날을 맞았다는 것이었다.

광철은 다시 누웠으나 잠들수 없었다. 방금 보았던 성만반장의 모습만 눈앞에 서물거려서였다. 불을 뿜는 듯하던 두눈, 목이 터질 듯 웨치던 부르짖음... 저 가슴속에 적들에게 채 쏘지 못한 총탄을 얼마나 품고있기에, 쓰러진 전우들에 대한 아픈 추억이 얼마나 사무쳐있기에, 꿈에서까지 소스라쳐 일어나는 것일까... 그밤 성만반장은 광철의 뇌리에 영원한 존경의 대상으로 깊이 새겨졌다...

성만반장은 성이 나면 앞뒤를 가리지 못했고 참을성을 잃었다. 그 때문에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으나 고치기는 무척 어려웠다. 비판받을 때는 고치겠

다고 결의하고서도 며칠 후에는 도루메기가 되어버리곤 했다.

《안되겠어. 난 아무래도 반장을 못할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는 직장장으로 되었다. 직장장이 된 후에도 그의 성미는 여전했다.

광철은 그의 손에서 자라났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게 무슨 일하는 본때야? 우리가 무슨 밥벌이를 하고있는 줄 알아? 미국놈과 싸우고있단 말이야! 일이 싸움이야!》

광철의 드센 일본새도 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마 광철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다. 광철은 군대복무를 마친 후 다시 로동생활을 시작했고 오늘은 여기 수도의 3만세대건설장에서 대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종종 성만아바이를 회상하곤 했다. 더우기 신입로동자들을 받을 때면 그는 자기의 입직첫날에 해주던 성만아바이의 말로 자기 말을 시작하곤 했다.

《로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첫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소. 미국놈들과 싸우는 전선에 나선 것이요...》

그러다보니 신입공들을 받을 때면 의례 성만아바이를 회상하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광철은 그 회상에 즐겨 자신을 맡겨버리곤 했다. 로동생활의 첫 시작이 유년시절의 회상처럼 아름답게 추억되는 때문이었다.

그런데 몇달전 광철은 러단지휘부에 갔다가 뜻밖에도 성만아바이를 만났다.

《아니?! 반장동지!》

광철은 옛날 성만아바이가 직장장으로 되었을 때도 그냥 《반장동지》라고 불렀었다. 습관이라고 할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마음에 들었었다...

《여기엔 어... 어떻게 왔습니까?》

놀라움에 찬 인사들이 오간 다음 광철이 이렇게 물었을 때 성만아바이는 씨무룩이 웃으며 대답했다.

《일할려구 왔지, 3만세대건설장에서...》

《정말입니까?》

《그럼! 여기루야 온 나라가 다 오는데 나라구 못오겠나? 전승 마흔뎡을 여기서 맞고싶더구만.》

《그래요? 그런데 참! ... 반장동지, 우리 대대에...》

하던 광철은 입을 다물었다. 심중팔구는 러단지휘부에서 지휘일군으로 임명하리라는 생각이 떠오른 때문이었다. 아마 본때를 보일 것이다. 광철은 그의 지휘능력을 잘 알고있었다. 그때보다 별로 늙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광철은 그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다시 함께 일해보고싶었다. 그러면 러단적으로는 물론 3

만세대전설장적으로도 으뜸가는 대대로 만들수 있었다. 그는 리더장에게 들어가 다짜고짜로 제기했다.

《최성만동지를 우리 대대 대대장으로 보내주시시오.》

리더장은 의아스레 쳐다보았다.

《동문 자기가 대대장이라는걸 잊어버린게 아니요?》

《그렇지만 최성만동지는 나보다 몇십배 낫습니다. 나같은건 최성만동지에 비하면 꽃병아리란말입니다.》

광철은 그가 반장으로, 직장장으로 일할 때 어떻게 본때를 보였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리더장은 한번도 말을 막지 않고 대단한 흥미를 나타내며 들어주었다.

그러나 광철은 말을 끝냈을 때 이야기한것을 후회했다. 리더장이 수첩에 최성만이라는 이름을 적으며 이렇게 말한때문이었다.

《아주 좋소! 리더지휘부를 강화할수 있게 됐구만.》

광철은 화가 나서 나오고말았다. 능구렁이같은 리더장에게 업히워 넘은것이 여간만 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후 성만아바이는 광철의 대대에 나타났다.

《반장동지, 어떻게 우리 대대에 왔습니까?》

광철은 그가 리더지휘일군으로 대대실정을 료해하러 내려온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성만아바이는 히죽이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대대창고장으로 일하라고 해서 왔네.》

《예?》

광철은 참모장이라고 하는줄 알았다. 대대는 그때 마침 참모장이 결원이었던것이다.

《반장동지가 참모장을 한다구요? 안됩니다! 참모장은 제가 해야 합니다.》

성만아바이는 그를 의아스레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 하나? 참모장이 무슨 상관인가? 난 창고장으로 왔네.》

《예?!》

광철은 너무도 아연하여 미처 말을 못했다. 그러나 아바이는 그의 기분은 전혀 느끼지 못한듯 태연스레 말했다.

《창고를 인계받아도 되겠나?》

광철은 대답대신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리더장동지방에 대오!》

그는 교환수의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되기라도 한듯 소리쳤다. 그러나 리더장의 말에 그는 멍청해지고말았다.

《동무네 대대창고장으로 보내달라고 고집하는데 난들 별수 있소? 리더지휘부에는 있지 않겠나지.》

그래서 기어이 대대에 가겠으면 참모장으로 가라고 했더니 꼭 창고장으로 보내달라는게 아니겠소? 다른 일은 못하겠다는거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못하다면서... 래년이 환갑이더구만.》

《...》

광철은 앞에 앉아있는 성만아바이의 얼굴에 가로세로 얹힌 잔주름들을 그제야 톡톡히 알아보았다. 모자밀으로 빠져져나온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별로 구부정해보이는 자세, 정말 이제는 완전한 아바이였다. 광철은 부지중 한숨을 쉬며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그런데 내 한가지 요구가 있네.》

담배만 피우고있던 아바이의 말이였다.

《말씀하십시오.》

《이젠부터 반장동지나 직장장동지라고 부르지 말아주게, 그저 창고장동무라고...》

광철은 채 듣지 않고 손을 저었다.

《아, 그렇게야 어떻게...》

《그럼 아바이라고 부르게나. 창고장아바이라던가 성만아바이라던가. 어떻나? 늙은이를 아바이라고 부르는거야 뭐라나?》

하고 그는 정말 늙은이답게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광철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섭던 사람도 늙으면 이렇게 되고 마는가. 세월이란 이렇듯 무정한것인가. 잠결에까지 《돌격앞으로!》를 웨치던 그 모습은 영영 사라졌단 말인가. 불시에 눈물이 핑 돌아 광철은 눈길을 옆으로 돌리며 그 서글픈 약속에 급급히 동의하고 말았었다. ...

처음은 아바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억지로 몇번 입밖에 내고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 역시 서글픈 발견이였다.

그런데 성만아바이는 창고를 인계받은후 여러가지 말썽을 일으켰다. 한번 소비기준대로 출고한 자재는 추가로 더 내주는 법이 없었다. 당장 일이 걸렸다고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해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대장을 찾아와 호소하기도 했으나 광철은 못들은척하거나 《창고장아바이가 요구하는거야 옳지 않소?》 하는 말로 대답해주곤 했다. 성만아바이가 얼마나 딱딱하게 굴었던지 대대에서는 누가 지내 융통성이 없으면 《이 친구 <창고아바이> 보다 더 하구만.》 하고 말하게끔 되였다.

얼마전에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어 대대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제까지 필요하면 퍼가던 세멘트창고에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잠그어놓은것이였다. 세멘트도 소비기준만큼 출고전표가 있어야 가져갈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대대장동지, 제발 이것만은 그만두게 합시다. 어느 련대나 대대에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이거야 어데 시끄러워서 일해먹겠습니까?》

이것은 건설자들만이 아니라 지휘일군들속에서도 제기되는 의견이었다. 광철이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제기하는 사람들앞에서는 단마디로 잘라 버렸다.

《세멘트는 무슨 막 퍼써도 되는 물같은건줄 아오?》

대대에서는 이제 창고장이 끝재나 물까지 통제하려고 들지도 모른다고들 우스개소리까지 했다. 며칠전에 광철은 세면장을 지나다가 몇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었다.

《여, 물을 망탕 쓰지 말라. 〈창고아바이〉가 소비기준을 따질수도 있어.》

《수도꼭지에도 쇠를 채워?》

한바탕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3 소대장의 거칠은 음성이 들렸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사람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의 위협대상이 성만아바이라는것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광철은 우려를 느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성만아바이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자칫하면 웃음거리로 될수 있었다. 이것은 광철이로서는 참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기회를 보아서 아바이에게 조용히 한번 말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아바이에게 한다는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망설이는 사이에 하루이틀 나날이 흘러갔고 오늘에는 그만 일이 이렇게 터져버린것이였다.

광철은 그사이에 주저했던것이 후회막심했다.

그런데... 그는 세멘트창고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생각을 계속했다. (세멘트창고는 지휘부에서 초간히 떨어져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바이는 왜 굳이 창고장을 하겠다고 했을가. 처음에는 나이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아픈 련민의 정과 쓸쓸함을 느꼈었다. 그렇게 호랑이갈던 사람도 늙으니 조용한 자리를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광철은 의혹을 느꼈다. 출고시간만 끝나면 축조현장이나 타입현장에서 일하는 아바이를 볼수 있었는데 일손이 얼마나 드센지 젊은이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옛날의 일본새 그대로였다. 그것은 매일 계속되였다. 어찌보면 두몫을 한다고도 할수 있었다. 광철은 드디어 그가 편안하거나 조용한 자리를 찾아 창고에 간것은 결코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면 왜 련단지휘부는 물론 대대참모장도 마다하고 굳이 창고장일을 선택했을까. 혁신자로 3 만세대건설장에 알려질수 있는 제 1 선지휘일군을 마다하고 말밥에나 오르기 좋고 전투원으로조차 일러주지 않는 창고장이라는 직무

를... 정말로 도저히 리해되지 않았다. 이것을 단순히 겸손성(?)에서 비롯되는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가 있었다.

세멘트창고지붕이 보였다. 광철은 총돌이 끝나고 조용해졌으면 하고 바랬다. 아바이에게 무슨 말인가 충고비슷한 말을 해야 한다는것이 괴로웠다.

그러나 먼저 앞질러 달려가보고는 눈이 둥그래서 돌아보는 통계원처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기대가 헛된것이였음을 깨달았다....

《아바인 그래 오늘 일을 못해도 좋다는게요? 미장을 채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거요?》

3 소대장의 극도로 흥분된 음성에 비해 창고문턱에 앉아있는 아바이의 음성은 너무도 담담했다.

《세멘트를 랑비한 표식으로 그냥 두게나.》

《뭘요?》

3 소대장의 분노는 폭발하고말았다. 방금전의 높은 목소리도 이때의 폭발에 비하면 시내물소리였다.

《말 다했소? 이 령감이 정말! 령감이 도대체 뭘요? 대대장이요? 련단장이요? 우리한테 령감같은 창고장이 필요없소! 일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게 창고장이요?》

그의 억센 손아귀가 세멘트창고문을 덥석 틀어잡았다. 와락 잡아제끼고 들어갈 태세였다.

광철은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소대장동무!》

그는 창고문을 틀어진 소대장의 손을 잡아떼며 뺨 돌려세웠다.

《이게 뭘요? 무슨 행동이요?》

《뭘말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부르짖던 3 소대장은 광철에게 달려들었다.

《우린 의견이 있습니다. 대대장동지한테 의견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둥니까? 난 못참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는 령감을...》

《그만두지 못하겠소?》

광철은 벽력같이 소리쳤다.

《동문 뭘요? 동무에겐 옷사람도 없소? 창고장아바이의 년세가 얼마요? 동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벌써 아바이는 총을 메고 전선에 나가 싸웠소. 피를 흘렸단 말이요! 그런데 뭘 뭘라구?... 설사 아바이가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젊은 사람이 도덕도 없이 그게 뭘요? 당장 아바이한테 사죄하요!》

《...》

《알겠소?》

《...예.》

광철은 돌아보았다. 그런데 창고문앞에는 아바이가 없었다. 아바이가 있던 자리에는 담배꽂초만

몇개 널려있는데 그중 한개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금방 자리를 뜬것이 분명했다.

광철은 3소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중으로 아바이에게 사죄하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오!》

3소대장은 어깨가 푹 떨어져서 돌아섰다. 그의 소대원들도 풀이 죽어서 따라갔다.

광철은 창고뒤로 돌아가보았다.

아바이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후들거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어대고있었다.

모자밀으로 흘러내린 흰 머리칼, 더 깊어진듯한 얼굴의 주름살... 광철은 다시 가슴이 아파움을 느꼈다. 늙음이란 얼마나 서글픈것인가. 이제는 아마도 잠결에 뛰쳐 일어나며 《돌격앞으로!》를 부르는 일도 없을것이다. 먼저 떠나간 전우들에 대한 가슴저미는듯한 상실의 아픔도 세월의 이끼로 덮이지 않았을가. 다시한번 《이건 미국놈과의 싸움이란 말이야!》하는 절규를 듣고싶었다. 허나... 그 모든것은 이 먼지오르고 불품없는 창고와는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것인가. 또한 가슴속에 채워져있다고 생각했던 채 쓰지 못한 총탄들은...

아바이는 여전히 성냥을 그어대고있었다. 그러나 성냥가치만 부러져나갈뿐 불은 커지지 않았다.

광철은 불을 켜서 내밀었다. 아바이는 그의 불권 손을 뻗 밀어버리고 다시 성냥을 그었다. 역시 성냥가치가 또 부러져나갔다. 그러자 아바이는 담배고 성냥이고 모두 주머니에 와락 쑤셔넣고는 돌아서버렸다.

《아바이!》

《왜?》

돌아보는 아바이의 이마에서는 손가락같은 힘줄이 불끈거리고있었다. 옛날의 성났을 때 인상그대로였다.

《씩 사라지게!》

《예?!》

《뭐? 나이가 얼마인가구? 전쟁때 싸우고? 그런것때문에 사죄하라우? 액끼! 그래도 대대장이야?》

《?!》

광철은 얼머름해졌다.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그게 무슨 중요한건가? 그게 초과된 세멘트와 무슨 상관인가?》

광철은 억지로 웃었다.

《아바인 참, 그거야 이미 비판한 문제가 아닙니까? 3소대장이 그 세멘트를 뭐 팔아먹기라도 했습니까. 제집 바람벽을 바르기라도 했습니까? 리해해줘야지요.》

《리해? 세멘트가 쓸모없는 돌로 되어버렸는데두? 누구네 집수리를 하라고 내주었다면 죄가 되지만 비에 적서 못쓰게 만든건 죄가 아니라는거지? 나라재산이, 술한 노동자들의 땀이 돌로 되어버렸는데두?》

《...》

광철은 일순간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그리고 의혹을 느꼈다. 정말 이상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세멘트를 안면관계로 누구한테 퍼주었거나 제집에 실어갔다면 그것은 이만저만한 비상사고가 아니다. 틀림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세멘트가 비에 젖어 못쓰게 되거나 바람에 날려가거나 반복시공때문에 초과되는것은 범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국가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큰 손해가 아닌가. 완전한 무로 돌아갔기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초과》에는 무척 너그럽게 대한다. 광철이부러가 그랬다. 이상하지 않은가...

《내 물론 몰라서 말하는게 아니야! 물질적인 손해보다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손해가 더 무섭다는것을 누구나 알기때문이겠지.》

옳은 말이였다. 바로 그것때문이였다. 허나 전자나 후자나 나라에 손해를 주었다는데서는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나는 혐오스럽고 하나는 가슴아프다는데 차이가 있을뿐이다. 광철은 긴숨을 내쉬었다.

《저도 뭐 그일루 아바이를 탓하는게 아닙니다. 옳지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리해해줘야지요. 어떻게든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흠짓 쳐다보는 아바이의 눈길에 광철은 얼른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눈길은 또 한차례의 폭풍우를 예고하고있었다.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대대장이 언제부터 그런 거간군이 뻘나? 이쪽저쪽 리해시키는데 대대장인가?》

《예?》

광철은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 〈리해〉에 녹아나는건 나라재산이야! 대대장이라는게 옳지 못한걸 보면 범처럼 되여야겠는데 이런 거간군이 되었으니 대대재산은 뭐가 되나?》

《...》

《자넨 프로수에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맹과나 뻘단 말이야! 그게 자기기름과 나라재산을 바꾸는게 아니면 뭔가? 제이름이라는게 도대체 뭔가? 애비에미가 제자식 표식하느라구 붙여놓은거지! 그러나 우리가 쓰는 자재는 그런게 아니란말이야! 오늘을 위한거구, 래일을 위한거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거야!》

《...》

무슨 말을 하라. 광철이 역시 알고있는것이다. 다만 생각하러 하지 않았을뿐이다. 왜? 왜? 여기에 성만아바이와 그와의 차이가 있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가. 그 역시 당원이었으며 지휘일군이였다. 매일 매시각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다지는 시간임을 자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왜 ...

아바이는 다시 주머니에서 담배와 성냥을 꺼냈다. 이제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광철은 불을 켜서 내밀었다. 아바이는 내키지 않는듯 잠시 내려다 보고서야 담배를 가져다냈다.

광철은 저도 모르게 긴숨을 내쉬었다.

《이사람, 광철이.》

아바이의 목소리는 담배연기에 폭 잠겨버린듯 무척 낮았다.

《내 오늘은 이야기합세... 내 배치되어온 날에 려단에선 지휘부에서 일하자고 하더구만. 싫다니까 대대참모장으로 가라더군. 자네하고 손발이 맞을테니 본때있게 일을 내밀어보라는것이였네. 그렇지만 난 창고장으로 보내달라고 했네.》

《?》

광철은 숨을 죽이고 말을 들었다. 이제 곧 아바이가 왜 굳이 창고장으로 되었을가 하는 의문이 풀리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아바이와 자기사이에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가 하는 의혹에 대한 대답도 얻을듯한 예감을 느꼈다.

《물론 참모장일도 좋지. 그러나 자네대대에 대하여 알아보니 대대장에게 필요한건 참모장이 아니라 창고장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만. 일을 많이 할줄 아는 사람,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대에 얼마든지 있을게거든. 그러나 창고장만은 없는것 같더라 말일세. 없어. 없단말이야. 진짜 창고장이 있었으면 지난해 자재총화에서 대대가 자재초과 1 등이 되었겠나?》

《아바이!》

희끗희끗한 머리칼로 하여 별로 날카로와보이는 얼굴 옆모습, 담배연기가 천천히 머리우를 떠올라 대기속으로 퍼져간다. 세멘트냄새를 풍기는 바람이 희속희속한 머리칼을 흔들어놓는다. 지휘일군을 했으면 대대, 아니 려단이라든가 능히 지휘할 아바이, 허나 그는 창고장의 위치를 선택했던것이다.

《이사람 대대장, 생각해보게, 지금 일을 적게 하겠다는 사람이야 있나? 일을 많이 못하면 어데 가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니 말일세. 그러나 자재를 랑비한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만...아까 소대장은 창고장의 세멘트인가구 큰 소릴 쳤는데 이 건 내것두 대대것두 려단것도 아닐세. 나라것이지!

모든 사람들, 전쟁때 피흘린 사람들, 전후복구 건설때 땀을 흘린 사람들, 이미 저세상으로 떠난 사

람들도 다 합쳐 이 제도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의것이란 말일세. 이 건 피야! 땀이구! 목숨이구!》

《!》

바로 이것이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것을 눈에 걸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속에 맥맥히 흐르는 붉은피를 볼줄 아는 심장의 눈, 광철에게서 빛이나 색채를 보는 눈은 있었으나 심장의 눈은 멀어있었다! ...

높지 않은 그 목소리속에서 광철은 옛날의 그 웨침-비분에 떨리던 《돌격앞으로!》의 웨침을 들었다. 그리고 《이건 미국놈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하던 불같은 웨침, 가슴속에 채워져있는 채 쏘지 못한 총탄의 예리한 발사음을 들었다. 40년전의 그날이나 오늘이나 성만아바이의 가슴속에서는 그 총소리가 변함없이 울리고있었다! ...

광철은 눈을 들었다. 그러자 거대한 성벽처럼 지평선을 가리우며 일어난 3만세대살림집의 웅장한 골조들이 가슴을 꼭 메우며 안겨들었다. 저 하나 하나의 집, 하나하나의 창문이 바로 《돌격앞으로!》를 부르짖고 미제와의 결사전을 선언하고 이 땅, 이 제도를 고수해가는 격렬한 총성을 울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마흔번째로 맞는 전승의 날에는 정열의 불빛으로 빛날 3만세대의 창문들...

《이사람,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겠나?》

아바이는 벌써 창고앞으로 돌아가고있었다.

광철은 그를 따라섰다.

《아바이,》

《왜?》

《창고일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가구?》

아바이는 ब्ल록으로 조금씩 쌓아 우툴두툴한 창고벽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런 일이 마음에 들 사람이 어데 있겠나? 사람이야 다 같지, 내가 바라는건...》

《바라는건 뭘니까?》

아바이는 처음으로 눈가에 미소를 지었다.

《창고장이라는게 필요없게 되는거지.》

《...》

부르릉거리는 차소리가 들렸다. 세멘트차들이 줄지어 창고앞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창고문앞에서는 3소대장과 통계원처녀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하고있다가 서둘러 허리를 펴며 아바이와 광철을 당황한 눈길로 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문가에 흘러떨어졌던 세멘트를 쓸어모은것이 두어삼십되게 소복한 무지를 이루고 있었다. ...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일

방문기

건설장의 봄

손광영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마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들끓는 통일거리 제2계단건설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았을 때 우리의 머리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것은 수도건설에서 언제나 큰몫을 맡아 해체끼고있는 10월 9일려단의 미더운 모습이였다. 준전시기간에 발휘한 그 기세, 그 기백을 늦추지 않고 더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하고있을 그들을 찾아 취재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은 벌써 려단안의 미더운 건설자들 속에 가있었다. 문수-토성행 궤도전차를 타고가다가 종점에서 내리니 통일거리 2계단건설장이 우리의 눈앞에 거창하게 펼쳐졌다. 락랑의 넓은 들판에 20층, 25층, 30층 살림집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우줄우줄 치솟았는데 사방에서 용접불빛들이 번쩍거리고 조립식벽체들이 하늘을 날았으며 부채를 가득 싣고 달리는 자동차의 발동소리, 아찔한 상공으로 혼합물을 쏘아올리는 고압펌프의 동음으로 봄날의 대기가 진동하는듯하였다. 갈팡거리느 눈길을 애써 다잡으며 아직 포장되지 않은 원암방향도로를 따라 조금 걸노라면 토성의 나지막한 둔덕우에 자리잡은 40층초고층 살림집이 보인다. 살림집의 중심부에는 《일심단결》이란 대형구호가 멀리서도 볼수 있게 높이 걸려있다. 여기가 바로 10월 9일려단이 일하는 건설장이였다.

우리는 현장에서 려단정치부부장 권종근동무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의 취지를 알자 저으기 난처한듯 두손을 벌여보였다.

《잘못오신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이곳 건설장의 어디를 가나 들을수 있을겁니다. 준전시기간에 우리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바로 통일거리 2계단 건설장의 어디서나 이룩되고있던 성과의 작은 한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따스한 봄별이 꽃샘을 하는 바람을 엮는 4월초의 한낮이다. 우리가 서있는 40층살림집만장에서는 통일거리는 물론 동평양과 서평양일대 그리고 저-기 만경대지구에 일떠선 웅장화려한 광복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였다. 공간에 뽐안 운무같은것을 피워올린 바람은 락랑벌에 숲처럼 일떠서는 초고층 주택들과 건설장의 여기저기에 서있는 철근구조물

들사이를 누비며 휘파람소리를 냈다. 그는 광란하는 질풍의 회오리속에서 힘겨웠던 건설의 나날들을 돌이켜본듯 기어이 대답을 받아내려는 우리를 즐겁게 바라보았다.

《작가동무, 저기를 좀 보십시오. 저 멀리 광복거리에 우뚝 솟은 40층목음식초고층살림집들과 통일거리입구에 펼쳐진 병풍식살림집들... 수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건물들은 바로 우리 려단이 맡아서 건설한것입니다. 그래선지 우리한테는 남다른 긍지가 있지요. 누가 과연 이 자리를 두고 몇달전만 하여도 황량한 둔덕이었다고 상상인들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한 건설속도는 사실 보기드문것이다. 수도건설에서 《가장 힘있는 부대》, 《큰몫을 해체끼는 강철의 대오》로 자랑떨치는 10월 9일려단의 건설자들은 들바람 넘나들던 이 둔덕우에서 1만천여립방미터의 흙을 밀어내고 5-5가동 350세대 40층초고층살림집을 녀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것이다. 이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석탄대신 연재를 때는 보온이동식난로를 만들어 실내온도를 보장하면서 강추위속에서도 내부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런데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긴장된 정세는 건설자들로 하여금 조국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를 자각하게 하였으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모험적인 《림스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던것이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며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에 들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령에 접한 건설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건설장공지에 모였다. 시내의 곳곳에 나갔던 자재, 후방조 성원들도 같은 시각에 려단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의 긴장된 얼굴마다에는 비상한 각오와 결심이 내비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수도건설지휘부에 갔던 려단장인 로력영웅 리만화동무가 돌아왔다.

《누가 건설을 중지한다고 하였소? 동무들은 어째서 여기에...》

려단장은 곧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말없는 눈빛에서 불같은 마음을 읽었던것이다. 그러자 그자신도 마음이 격해진듯 마침 경제선동 나왔던 방송차에로 걸어가 마이크를 틀어잡았다. 그의 격동된 목소리는 출력높은 확성기를 통하여 건설장구내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여도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생산과 건설을 중단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매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밤까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동무들, 더 높은 건설속도로 원썬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립시다.》

그리하여 려단전투원들의 집합은 자연히 최고사령관 명령 《0034》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건설자결기모임으로 되었다.

《그때 우리의 기세는 대단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우고 곧 밤낮이 따로없는 전투에 진입하였습니다. 준전시상태가 해제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제쳤는가를 깨닫고 스스로도 놀랐던것입니다. 지휘일군들과 전투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긴장한 전투를 벌린 여기에 성과의 비결이 있었지요.》

지나간 3월을 뒤돌아보는 정치부부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어떻게 하면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올리겠는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았다. 마침내 질제고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들이 일치되었다. 매 현관마다 시범세대를 하나씩 꾸리고 방식상학을 조직하였다. 하여 조선반도 남쪽에서 화약내 질은 전쟁의 불구름 밀려들고있을 때 수도 건설장의 어디를 가나 그러했던것처럼 이들도 원썬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탄을 박는 심정으로 세대완성을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던것이다. 새로운 작업에 익숙되기 위한 기술학습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사소한 결함도 허용되지 않았다. 강창달기, 운수관늘이기, 내부간벽 축조미장… 그것도 하나의 전투였다. 준전시기간에 이들은 만장우에 있던 2대의 자승식기중기를 해체하여 땅우로 안전하게 끌어내렸으며 스끼브에 의한 자재운반체계를 실현하였다. 했으나 려단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비하여 자재보장속도는 너무도 굼뻤다. 그러자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 배낭과 맞들이를 리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나르기 위한 운동이 전 려단안에 파급되어갔던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시범세대란 무엇인가를 비로소 리해할수 있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이사집을 들여놓으면 살림할수 있게 꾸려진 3칸들이 완성된 살림방들이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니 온화하고 정갈한 가정적인 체취가 안에서 풍겨나왔다. 알뜰하게 꾸린 매 방의 가구와 비품들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적인 향기였다. 타일을 붙인

부엌과 세면장, 위생실은 보기에도 산뜻했으며 벽지를 바르고 장관까지 한 방들은 완벽한 수준에서 꾸려져있었다.

우리가 들어선 살림방에는 벽장을 제외한 나머지 3면 벽들에 패도들이 주련이 나붙어있어 마치도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다. 완성되는 모든 세대들을 시범세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서는 작업공정들과 기술적요구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있었다. 방금 모임이 끝난 뒤였다. 려단참모장 렬정철 동무가 패도앞에 서서 직맹위원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방금전 4월의 봄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중간총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과들이 어긋비슷하니 어디 정확히 판정할수 있어야지요. 그래 지금 직맹위원장동무한테서 새로운 경쟁요강을 듣던 참입니다.》

《어떤 요강인데요?》

우리는 저으기 흥미를 느끼며 다가갔다. 그러자 벽면가에 나붙은 패도들에서 《기준총확대 평면도》, 《석분메움재에 의한 시공방법》, 《부엌평면도》, 《위생실방수작업방법》, 《벽지붙이기방법》...이런 글발들을 읽었다.

《말하자면 좀더 세분화하여 소대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자는겁니다.》

《아니, 소대간 경쟁을 한단말입니까?》

《예, 경쟁이 경쟁이니만큼 판정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겠는데 소대간의 경기가 알맞는 방법이지요. 아마 이번에 진행되는 전 려단적인 소대별 사회주의경쟁은 우리 려단이 생겨 가장 치열한 경쟁으로 될것입니다. 전승 40 뚝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참모장의 목소리에서는 이러한 경쟁으로 등수는 가를수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하신 수도건설구상을 관철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려단내 천체 건설자들의 높은 충성의 열정은 결코 판정할수 없다는 확신이 울리고있었다.

모처럼 마련되었던 우리의 대화는 려단장의 출현으로 중단되었다. 려단장은 량해를 구하듯 우리에게 말했다.

《참, 취재하러 왔지요. 우리 려단이야 뭐 소개할 체계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당장 종합봉사망부와 새로 맡은 건설대상부지를 보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대상이라니요?》

우리는 지금 취재하고있는 이 초고층살림집이 이들이 맡은 대상의 전부인줄 알았었다. 그런데...

려단장의 설명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져 자신없이 물었다.

《그 대상은 언제까지 끝내야 합니까?》

《물론 전승 40 뚝까지는 전부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7월, 전승기념일까지는 이제 남은 기일이 불과 석달...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짧은 기간에 이들은 5-5 가동 40 층초고층살림집을 준공해야 할 뿐 아니라 종합봉사망과 새로 맡은 대상건설도 전부 끝내야 한다. 너무도 아름다운 과제였다.

허나 로력영웅 리만화려단장은 말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어이 해내야지요. 아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건설 대상으로 육박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작가동무, 통일거리 2 계단건설이 완공되는 날 우리 려단을 꼭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훌륭하게 일떠선 종합봉사망과 우리가 맡아 건설한 살림집을 보게 될것입니다.》

더 물어서 무엇하랴, 우리는 려단장이 지난날 자기 려단이 쌓아올린 귀중한 경험과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급보로 달려온 자랑스런 경력으로 자기가 한 말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미더운 사람들인가. 이들에게 있어서 영웅적위훈은 지나간 세월속에 돌이켜보는 추억이 아

니었다. 그것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즐기치게 달려갈 미래의 그 나날들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준전시기간에 발휘하였던 그 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전승기념일을 향해 진군하는 이런 충신들에 의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는것이며 시대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오르는 통일거리 제 2 계단건설로 하여 통일의 길은 더 앞당겨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건설대상부지를 밟아보기 위해 가는 이들의 걸음을 더는 지체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10월 9일려단의 미더운 건설자들과 헤어져 토성의 나지막한 둔덕을 내리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층살림집들이 숲처럼 솟은 건설장을 바라보았다. 대기를 진동하는 봄별은 어디라없이 건설장구내를 온통 뒤덮었다.

봄이다!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안아온 승리의 봄이다. 기적과 혁신으로 불리우는 위훈이 전승 마흔뉘이 되는 7월을 맞아 더 아름답고 무성하게 울리고 자라오를 건설장의 봄...

뜨거운 계절을 향하여 다가가는 봄의 건설장에 우리는 오래도록 서있었다.

네게 정들어

-한 지원자총각의 고백-

최종석

나서자란 탄광마을 두고
판곳에는 정 불이고싶지 않아
너는 혼연히
탄전의 운전공 되었다지

노란 안전모밑에
머리칼 감싼 빨간 수건짓
마치 탄밭에 핀
한떨기 꽃이런듯

-탄이 나와
기계 돌려!-
너의 목소리
막장 한끝에 부딪쳐 휘둘레면
온 장벽이 흥에 뜨누나

파란 단추 하얀 단추
번갈아 누르는 너의 손끝이
탄을 쏘아내누나
너는 마치
탄전의 능란한 조종사인듯

젊은 탄부 헤덤빌 땀
《로동안전!》
새초롬한 눈길로 막아서고
일욕심에 다툼질 하면
웃음으로 시비 갈라주는 너

채탄공들 하는 말이
너 없이는 안된단다
《우리 순녀!》
《우리 순녀!》

헤판 눈 판적 없이
꽃나이 한시절을
탄전에 살아
탄과 인연 맺은 처녀

너를 본 다음에야
내 어딜 가랴
네게 정들어
탄전에 정붙었네

민족자주정신을 깊이있게 구현한 대사형상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대사를 두고-

김영송

문학예술이 산 인간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대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크다.

그것은 대사가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집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여주기때문이다.

대사와 인간, 명대사와 인간생활의 호상관계를 옮겨 푸는것은 명대사창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를 옮겨 해결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하여 대사의 진실성, 생동성여부가 좌우되며 나아가서는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가치가 규정된다.

그때문에 작가는 대사형상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는것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걷도록 고무추동하는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대사가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탐구적으로 세련되게 구사된데 있다.

영화는 민족과 운명에 관한 종자에 기초하여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주제일주의사상을 극적인 운명로정을 겪는 최현덕을 비롯한 인간들의 복잡한 호상관계를 사색과 탐구를 거친 대사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명문장, 명표현, 명대사의 기본표징은 뜻이 깊는데 있다. 그래서 글속에 글이 있고 말속에 말이 있다고 한다. 문학의 언어는 깊은 뜻을 담은 명문장, 명표현, 명대사로 되여야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예술영화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대사를 잘 형상한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대사를 뜻이 깊으며 명백하고 알기 쉽게 쓸데 대한 원칙은 대사형상에서 지켜야 할 근본요구로 된다.

작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영화문학에서 대사는 현실반영의 기본수단으로 된다.

극적묘사형식에 의하여 창작되는 영화문학은 대사를 통하여 사회력사적환경과 등장인물들의 호

상관계와 그들의 직접적인 충돌을 보여줄뿐아니라 작가가 강조하려는 사상적지향을 실현하며 인물들의 사상과 감정, 심리를 표현하고 이야기줄거리를 발전시킨다.

대사는 특히 성격창조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등장인물들의 계급적처지와 성격적특징을 집약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성격을 개성화한다.

그러므로 인물의 성격을 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사가 매개 인물의 성격적특징에 맞게 명료하게 표현되여야 하며 생활과 유착된 행동적대사로 되여야 한다.

영화의 2부에서 최현덕은 《안기부》요원놈이 총으로 위협하고 그의 죄과를 들추면서 북에서 그것을 단단히 계산할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자신에겐 계산할것이 너무도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죄많은 인생이 이제는 죽어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덕은 쌓은데루 가구 죄는 짓는데루 가는게 천하인류산데 내 나머지 인생을 내 아닌 남의 땅에서 고통스레 방황하기보다는 내 뼈를 물어줄 조국에 찾아가 사내답게 심판을 받고 죽으려다.》

최현덕의 이 말은 자신의 극절많은 인생을 량심적으로 총화하고 고통스럽게 방황하던 한 인간이 자기의 뼈를 물어줄 조국의 품에 안겨 지나간 세월에 지은 죄를 깨끗이 속죄하고 심판받으려는 결곡한 마음을 지니기까지의 인생전환의 계기를 폭넓고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하고있다. 대사의 역할이 이처럼 큰것이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일치한 요구이며 한결같은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대사가 진실하고 생동하게 되려면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풍부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대사는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에 따라 그에 적당하게 씌여져야 하는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매개 말마디는 그 인물의 개성적특징과 작품에 반영된 생활발전의 논리에 따라 적당되어야 한다.

이 영화에서 최현덕의 다음과 같은 내면독백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최현덕의 가슴속에 갈마든 고향과 조국의 모습, 그것은 조상전래의 고유한 미풍량속과 민족의 숭고한 녀이 그대로 살아있는것이였다. 오랜 세월 헤여져있었지만 만나는 첫 순간부터 간격없이 가슴속에 흘러드는 뜨거운 혈육의 정, 민족애의 고결한 정신, 고상한 인간적품모, 이 모든것은 최현덕의 추억속에 간직된 그것보다 몇배나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였다.

하기에 을밀대에 올라 평양시를 부감하면서 《이렇게 달라질수가 있을가?》라고 하였던 현덕의 내면독백은 《아, 순결한 사람들, 때문지 않은 마음들, 뜨거운 인정, 조상전래의 민족혼이 살아있는 내 고향! 내 고향사람들...》이라는 말로 변하는것이 다.

이것은 이질화되였다던 공산주의자들, 잘못 리해하였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자주적인 민족정신을 확인하게 된 최현덕의 인생전환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대사형상이다.

이 영화의 간결하고 성격적인 대사들은 심오한 사상정치적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대사형상의 깊이는 그의 사상정치적내용의 심오성과 관련되어있다. 대사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시대의 본질과 역사적사실, 시대의 절박한 사회정치문제점이 체현되어있을 때에만 예리하고도 뜻이 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이것은 대사에 심오한 사상적내용이 있고 귀중한 생활의 진리가 담겨있을 때 얼마나 큰 감화력을 가지는가를 잘 보여준다는것을 말한다.

태권도련맹의 분렬을 피하려는 홍영자에게(6부, 7부) 매수된 사범들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사범들에게 하는 차흥기의 다음의 대사를 보자.

《한국의 군부정치사는 이렇게 시작됐소. 정치는 시대의 산물이지만 민족은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것이요.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때로 배반의 길로 갈수도 있소. 애인을 버리거나 친구를 버릴수도 있지. 그러나 죽어도 버려서는 안되는것이 민족의 녀이요.》

이러한 진리를 골절 많은 운명로정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험한 차흥기이기에 더는 남조선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리간책동의 희생물이 될수 없기때문에 태권도는 명실공히 민족대단결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견결히 주장하는것이다.

이 대사만 보아도 차흥기의 사상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있으며 생동한 언어로 개성적으로 씌여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차흥기는 태권도를 만들고 그것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루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챈 박정희와 마주했을 때에도 《난 민족의 통일을 모든것위에 놓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나의 태권도 리념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라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증명하는 진리이며 따라서 차흥기의 통일 의지는 분명 애국적인것임에 틀림없을것이다.

참으로 이 대사는 그 계기와 정황이 옳게 설정되고 알맞게 주어진데서 그 뜻이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인물의 대사는 성격에 맞아야 하며 구체적인 생활정황에 어울리어야 한다.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대사의 높은 사상에술성은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으며 여러가지 언어수법이 능숙하게 구사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대사에서 여러가지 표현수법을 탐구적으로 세련되게 구사하는것은 대사의 뜻을 두드러지게 밝혀내고 그 형상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대사언어의 특징은 영화 전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제 5 부 영화의 첫머리에서 꽃놀이로 아이들속에 끼였던 윤상민과 그의 안해 수임이가 꽃밭속에 나란히 누워 속삭이는 말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들의 솔직한 감정을 감명깊게 받아안게 된다.

자기는 아름다움, 향기, 꿈결같은 생활에 취해 있다는 수임이에게 상민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난 지금 어대인가 다른 행성에 온것만 같소, 처음보는 세계, 소박한 사랑, ...선량한 눈, 친절한 미소, 인간이 어떻게 꽃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울수 있는지 ...》

이것은 40년 긴세월 망명객의 설움을 안고 자본주의사회의 진흙탕속에서, 더구나 남조선과 같은 생지옥에서 인권을 유린, 모욕 당하고 한가닥의 생의 지향마저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내면심리에서 터져나오는 너무도 솔직한 감정이기때문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꽃밭에서 밝고 명량한 웃음만을 안고 뛰노는 어린이들의 형상이 안겨주는 길은 정서와 함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참말 그래, 남의 나라 꽃이 고울수가 없지. 아, 저 어린것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어쩌면 해외생활의 한생을 보낸 나의 마음그대로일가.》

이렇듯 영화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한 해외동포작가의 체형체계를 깊이있게 개방한 내면심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증한데

기초하여 주인공의 회상으로 남조선사회의 진상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이 대사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진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인정세태적인 생활화폭으로 뜻깊고 인상깊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준 참으로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대사이다.

또한 군사파쑈도당의 하수인으로서 민족분렬주의자들의 책동에 놀아나던 홍영자(8 부, 9 부, 10 부)가 그와 정 반대되는 길,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극적인 인생전환을 보여주는 그 모든 대사들은 그가 누구이든, 또 어떤 길을 걸어왔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조국과 민족의 편에 돌아서서 우리와 손잡고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고 풀어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자애로운 우리 당의 품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최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 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펼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보여준 철학적으로 심오한 대사들은 민족과 운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은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며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민족이라고 하는 운명공동체에서 생명의 중심인 수령의 품속에서만 개척될수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참으로 대사들은 민족자주성을 깊이있게 체현한 명대사로 창조됨으로써 한마디의 대사에도 높은 정치사상성, 심오한 철학성이 담겨지게 되었다.

사실 이런 대사들은 쉽고 명백하게 되어 인민대중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에 따라 커다란 미학적감화력을 가지고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대사에 의한 생활의 폭넓고 깊이있는 반영, 생활의 본질에 대한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개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대사들로 이루어진 문학예술작품들은 레외없이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생활과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참된 교과서, 길동무로 되고있다.

오직 창작적사색을 깊이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임으로써만 우리 인민의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으며 그것을 작품에 깊이있게 반영하고 훌륭한 대사들을 창조할수 있다.

작가들은 자기의 정치실무적 자질과 기량을 부단히 높여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명대사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가사

어느새 아시였을가

진춘근

영예군인총각을 만난 그 사연
어머니 어느새 아시였을가
내 눈치 다르다고 말을 하라네
아이참 부끄러워 어이 말할가

한생의 길동무 되고싶은 맘
어머니 어느새 아시였을가

네 마음 다 안다고 웃음 지시네
아이참 안다면서 왜 물어볼가

그 동무 돕는 일은 내 삶의 기쁨
어머니 어느새 아시였을가
내 딸이 장하다고 칭찬하시네
아이참 그게 무슨 장한 일이람

좋은 땅

동성림

무더운 한낮이었다.

역에 들어서는 열차로 등산복차림의 애티나는 한 처녀가 내렸다. 처녀의 모습은 인차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켓, 돌격대가 야영소인줄 아나부지.)

마중나가는 소대장의 뒤를 묻어서며 승규는 처녀에게 온몸지 않은 눈길을 던졌다. 분갑속에서 자란듯 뽕얇고 수줍음 잘 타는 갈람한 처녀의 모습은 늘 깔깔대고 지분거리기 일쑤인 돌격대처녀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더우기 두시간전에 돌격대를 떠나는 친구 하나를 열차로 바래주고난 그의 울적한 마음이 민들레씨같은 이 처녀를 환영할리 만무했다.

개찰구를 나서는 그들의 일행은 올 때처럼 다시 금 셋이 되었다. 달라진것이라면 총각이 처녀로 바뀐것뿐이다. 소대장에게서 처녀의 배낭을 받아준 승규는 뒤에 홀로 떨어져 시적시적 따라걸었다.

소대장과 처녀의 주고받는 말이 뒤로 들리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오?》

《김송미라고 해요.》

《돌격대생활을 더러 해보았소?》

《처음이에요. 사회에 나온지 두해밖에...》

《그러니 우리 막내하고는 동갑이겠군.》

승규는 실췌해졌다. 그가 바로 소대의 막내였던 것이다.

...록음진 야산의 절벽밑을 안고 낮가락같이 구불하니 휘여든 남강은 해빛에 번쩍거리며 유유히 흘러갔다. 자갈이 펼쳐진 하얀 강변으로는 미역을 잡느라 옷등을 벗어내친 잠실잠실한 조무래기들이 오구구 뛰어나왔다. 이 가까이에 작업장을 정하고 있는 돌격대는 지금 한창 발판개를 위한 수로를 짜는중이었다. 산등성이의 강냉이포전이 크게 남강신세를 지게 된것이다.

무더운 삼복도 다 기운 팔월중순이건만 더위는 여전히 누리를 찌물쿠었다. 피약벌에 금방 파울린 녹녹한 진흙은 잠간새에 포스터카라처럼 부실부실 해졌고 바람한점 불지 않는 자연풍경은 더더욱 숨가쁜감을 자아냈다.

승규는 송미와 함께 해벌을 피해 곁에 있는 도토리나무 그늘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노트만한 화판을 펼쳐들었다. 소대의 유일한 미

술가인 그는 어딜 가도 이 화판을 몸에서 떨구어본 적이 없다. 휴게실에는 이보다 네배나 큰 걸면이 검고 번쩍거리는 멧쟁이 화판이 있다. 그속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승규에게 있어 하나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속사, 삽화, 소묘... 오늘은 들국화를 시작했다. 지금은 들국화가 화창한 때여서 어딜 가나 청초한 연보라빛의 꽃덤불이 구름처럼 피어있었다. 들국화를 목격한데는 특별한 동기가 없다. 식당근무를 서는 처녀가 앞치마에 수를 놓겠다면 부탁하기에 어제 한장 그려줬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채색할 욕심이 굴뚝같이 생긴것이다. 들국화도 한철이다.

더우기 뒤에서 자기의 그림을 놀라게 들여다보는 송미의 시선까지 감촉하자 어깨가 더욱 으쓱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못한 사이이다. 나이는 열아홉, 그의 나이이자 처녀의 나이, 한창 발랄한 시기다. 그런데 송미의 모습은 마치 빈방에서 호젓이 타오르는 초불과도 같은 가냘프고 쓸쓸한감을 주었다. 얼핏 보기에도 무척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웃음속에서만 자란듯싶은 그의 모습이였다. 이 조화롭지 못한 처녀는 실패한 그림과도 같이 안겨와 승규에게 의혹을 던져주었다.

사실 아침 작업조직때는 아득했었다.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소대장이 그를 넉덕 송미와 한조로만 들어놓았던것이다.

《참 승규! 〈반짓부리〉를 벗구실지 않아?》

다른때라면 소대장의 이 말에 환성이라도 지를 그였으나 그때만은 단번에 얼굴만 지지벌개졌다. 어쨌든 짝패는 그가 요구했고 소대장은 그때문에 갖은 성화에 시달렸으니 일은 제대로 됐다고 봐야 할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송미는 수줍어할뿐이었다. 온실의 꽃과 같이 자란 처녀가 삽질인들 해봤으랴. 고생문이 열려도 단단히 열리었다.

《우리 막내가 점수 따는데-》

《점심부턴 밥도 곡상 줘야겠군.》

저마끔 던지는 룬은 이날 오히려 그의 부아를 돌구기만 했다. 그런데 송미는 그의 공구까지 타들고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 승규는 공연한 걱정을 했음을 알았다. 서툰 삽질이나 마 송미는 내색없이 부지런히 일해나갔고 그만하면

손세가 맞았던 것이다. 원체 송미는 그의 기분같은 건 전혀 아랑곳않고있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한동안은 크게 싸우고난 뒤처럼 숨소리마저도 땀에 잦아든듯싶었던 그들이었다. 그런 송미가 그에게 시선을 주고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결코 소대의 웃음거리가 아님을 시위하고싶었다. 이 처녀까지 자기를 막내로 봐선 안되였다. 그러나 그는 점잖게 묵묵히 그림만 그리었다. 시시하게 누구의 눈에나 들기 위해 미술을 하는 그가 아니었던것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긴 그래. 똑똑한 처녀라면 이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나의 금새를 판단할지야. 이 동무가 미술을 알기나 할가? 박물관에나 나들었겠지. 미술가의 세계는 큰것이야. 나를 저처럼 여겼다가 오산이지.)

그림을 끝내면서 그는 어차피 이 처녀에게 자기의 창조물이자 내면세계인 이 화판안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남자로써 통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도 유익했다. 송미는 큰 영광이라도 받아안은듯이 수집음을 타며 조심히 화판걸로 나앉았다.

《우리 돌격대사람들이요!》

송규는 그림속의 인물들을 한장두장 소개해주었다. 처음엔 말을 떼기가 거북스러웠으나 이야기 과정에 흥이 오른 그는 돌격대의 생활이며 아름다운 일화들에 대해서까지 자연스럽게 하나 둘 풀어 나갔다. 송미의 눈빛은 부러움으로 짙어졌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특출한 사람들은 기본저 휴계실의 대형화판에 들어있지. 그속에 한번 들기 위해 꼬박 밤을 새우면서까지 모델을 서는 사람들도 있소. 채색까지 멋있게 해놓으면야 꺼칠한 남자도 새색시 못지 않게 고와지지. 잘하면 동무도 그려줄수 있어.》

송미의 얼굴은 감빛으로 물들었다.

송미에 대해 품었던 송규의 처음의 감정은 어느덧 봄눈죽듯 사라졌다. 해픈것이 그의 성미랄가. 송규는 무엇이든 더 자랑하고싶어졌다.

《여기 가까운곳에 영웅의 묘가 있어.》

《영웅이요?》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송미를 이끌고 그곳으로 안내했다. 인차 그들의 눈앞에는 양지바른곳에 자리잡은 크지 않은 평범한 묘 하나가 나타났다. 묘뒤에는 등이 휘여든 로송 한그루가 언제나와 같이 그늘을 드리우고 묘지기처럼 서있었다. 비석에는 《애국농민 ×××지묘》라는 소박한 글자가 새겨져있었고 상돌에는 누가 왔는지 한다발의 들장미가 성의껏 놓여있다. 송규는 얼른 주위의 들국화 한줄을 꺾어 제단의 꽃과 바꾸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늘 생신한 꽃이 놓이곤하는 이곳이다. 들장미, 들국화, 이스라엘치... 어떤 때는 먼곳에 있는 과수반의 사

과꽃이나 아카시아꽃이 놓이기도 했다. 모두 산과들의 수수한 꽃이다. 작업장에 올라온 그들이 놓을 때도 있고 읍에 학교가는 마을애들이 지나며 놓기도 했는데 대체로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타지방사람들도) 꽃을 꺾어놓을 때가 많았다. 주위로는 아카시아와 이스라엘치의 짙은 향기가 훈훈하고 건조한 바람에 실려왔다.

《누구나요?》

정적을 깨칠가 저어하듯 송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전 관리위원장이구 로력영웅이야. 여기 사람들이 영웅아바이라고 부른다는것밖에는 나두 더이상 아는것이 없어. 아직 나에겐 이 영웅의 그림이 없지. 이를테면 작품의 핵이랄가...》

《영웅!》

송미는 가만히 불러보았다. 어쩐지 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말이였다.

송규는 설렘했다.

《여긴 너무 비좁아. 한 삼사십년후에나 영웅이 될는지. 판데 간 동창들은 편지마다 표창메달소리야. 첨부터 <속도전> 이나 <충성의 4.15 돌격대> 쫓 잡도리했어야 하는건데.》

송미는 말없이 눈만 내리깔았다. 송규의 말대로 구역에서 모집된 자그마한 이 구역돌격대는 사실상 《위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묘를 내렸다. 송규는 내려오면서도 무엇인가 한동안 더 력설했으나 송미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참, 아버지 뭘 하시여?》

그가 물어서야 송미는 무아경에서 깨어났다.

《식물원에 있어요.》

《관리원이나?》

《연구사예요.》

《약하지 않군. 내가 동무라면 그런델 들어가겠어. 처녀들에겐 딱소리나는 직업인데...》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듯 송미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용서해.》

송규는 그가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예? 어마... 아니 일없어요.》

당황해진 송미의 얼굴은 바람맞은 불씨마냥 더욱 빨개졌다.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으나 송미는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았다. 겉싸게 곡괭이질을 하는 송규와 그의 땀배인 작업복을 보느라니 불현듯 아버지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그리웠다. 먼곳에 출장을 떠난지도 어느덧 서너달이 돼왔다. 송미는 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기쁨에 잠겨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젠 우리 집에 어른이 하나 더 늘었구나. …송미야, 생활은 이제부터다. 사실 사람의 한생을 식물로 놓고보면 너희들의 사회진출은 첫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다. 물론 씨앗중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뿌려지고 또 백에 하나가 싹트는 때도 있다만 당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란 너희들이 결코 허실되리라고는 난 기대하지 않아. 넓은 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지 않니. 물론 그곳에는 비도 내리고 눈도 덮이며 따스한 햇빛이 있는가 하면 차디찬 바람도 분다. 난 네가 온실의 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허허, 너의 어머니는 날더러 꽃씨는 화분에 심으면서 자기씨는 밖에 내던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까지 내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키워야 옳겠니. 사람이 관상용으로 자라선 무엇에 쓰겠니…》

…송미는 《호-》하고 한숨을 내쉬며 얼음처럼 차가워진 가름한 손을 해촉한 뺨에 가져다댔다.

일은 제시간에 끝났다. 작업장을 돌아보던 소대장은 그들의 구간을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

《괜찮아!》

승규는 으쓱해서 송미를 돌아보았으나 그는 무슨 생각인가 움해있었다. 소대장의 이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송미는 모르고있는듯했다.

그들은 산을 내리기전에 소대와 함께 숲에 들어가 나무를 했다. 그것도 일과에 속한것이다. 승규는 나무짐우에 특별히 굵은 나무통 하나를 더 얻었다. 호기심을 가진 송미에게는 좀 쓸데가 있다며 얼버무리고말았다. 녀자들처럼 남자들에게도 비밀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산을 내렸을 때는 벌써 저녁노을이 강물에 자기의 색조를 진하게 타고있었다. 그들이 마지막이었다. 강건너에서는 어느새 멀리 나서서 들어가는 소대동무들의 노래소리가 마을의 저녁밥짓는 연기를 타고 느릿느릿 울려왔다. 물속에 들어서니 강태깅 잘디잔 자갈들이 생명이라도 가진듯 발 밑에서 움지락거렸고 여울물의 잔즈러운 주름이 고기지느러미와도 같이 종아리를 간지럽혔다. 송미는 하는수없이 얼굴을 붉히며 승규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미끄러웠던것이다.

《저-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버릇과도 같이 주저하는듯한 송미의 물음에 승규는 가슴이 바람맞은 가랑잎같이 활랑거렸다.

《무엇인데?》

그는 무엇이든 대답해줄 결심이었다.

《저- 〈반짓부리〉 라는게 뭐예요?》

뜻밖의 이 물음에 그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다행히도 강물의 반사된 붉은 노을빛이 별개진 그의 얼굴과 하나의 조화를 이루었다.

《자주… 들어서 그래요. 힘든가요?》

지곳은 송미의 호기심은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부끄럽지만 한달전의 일이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벌어진 분수식발판개는 마감에 들어서며 부쩍속도를 다그쳤다. 도급제가 실시되었다. 처녀총각끼리 무어진 조는 (이런 면에서는 소대장의 타산이 빨랐다) 자연히 능률이 오르지 않을수 없었다. 짝이 안차레진 승규는 한동안 소대장의 조수(이를테면 예비였다)로 따라다니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의 불만을 터뜨리었다.

《나한테도 도급제를 달라요. 내가 남보다 못한게 뭐예요. 어리다구요? 고추는 작아도 맵대요. 사실 키를 재봐두 내가 소대장동무보다 크문켰지 작지 않아요.》

한번은 총화뒤끝에 우물거리며 들이댔더니 모두가 웃는것이였다. 그러나 소대장은 면도날로 베듯 잘랐다.

《동문 〈반짓부리〉 가 돼서 곤난해. 생각해보라구. 짝패두 없지. 게다가 힘은 남보다 딸리지…키가 일을 한다든. 그닥 크지두 않은 키를 가지구 우물거리긴 쟤장, 그리구 지금은 나한테도 짝패가 필요한 때거든. 맵졌으면 맵고 시쿨졌으면 시쿨고 〈반짓부리〉 소리를 듣는대도 할수 없지. 결정은 결정이니까.》

이때부터 누군가 먼저 《반짓부리》라고 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은 자연히 별명으로 번져지고말았다. 그들은 장난삼아 식사때 절반 남긴 밥그릇에 저가락을 하나만 꽂아 상우에 내놓는 희극까지 부렸다.

《넌 〈반짓부리〉 니까 모든걸 절반씩 해야 돼.》

소대장은 한동안 불이 부은 승규를 얼리느라 애를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난 널 생각해서 그렇게 한거야. … 그래 넌 그렇게두 머리가 안도니. 그림은 돌아가며 잔뜩 그려주구 체내 하나 꼬이는 재간도 없는가 말이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도 팔아 먹었다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승규는 그런 재간이 없었다. 인차 송미가 나왔기망정이지 그는 아찔한 《반짓부리》가 될번했었다.

《이건 수치야. 수치는 힘든 정도가 아니지.》

이 사실을 들려주며 승규는 송미가 비웃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송미는 아무런 내색없이 그저 고개만 수그릴뿐이다.

송미는 《반짓부리》를 신대원들이 첫 기간에 받는 그 어떤 로동정량으로 생각했던것이다. 그의 빨개진 얼굴 역시 승규는 알아보지 못했다. 저녁노을의 불타는듯한 잔광은 이미 그들을 불찌처럼 만들어버린것이다.

승규의 생활에서는 일종의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전에 없이 부지런해졌다. 소대원들은 송미가 온후부터 그가 입까지 무거워진게 꽤 어른스러워졌다고들 하였다. 더우기 그가 주인집의 돼지구유통을 새로 만드는데를 보고 (언젠가 지게에 저운 나무통이었다) 소대장은 물론 모두가 혀를 딱 찼다. 그 생각이 얼마나 엉뚱하고 기특한가. 원래는 부끄러워서 강변의 강냉이밭속에 숨겨놓고 다 완성시킨 후에 보란듯이 내놓을 잡도리였는데 역빠른 누가 벌써 훑쳐보고 소문을 돌린 모양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중도에 췌버릴수 없는, 더우기 체면을 위해서도 기어이 완성시켜야 하는 어쩔수 없는 처지에 떨어지게 했다.

《저 친구 이젠 〈옹근벌이〉라고 별명을 고쳐야겠군.》

물론 롱이지만 승규는 소대원들의 이 찬사에서 자기의 성장을 보는듯하여 무뎡 기쁘기도 했다. 그러나 그까짓것은 무대박의 일이다. 무엇보다도 성과적인것은 송미에 대한 그림을 시작한것이다. 원래 인물묘사란 특징의 묘사와 같다. 매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있다. 웃는다든가 성을 낸다든가 사색한다든가 이를테면 자기의 성격이라고도 볼수 있는 모델이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송미의 특징을 잡은것은 아니였다. 아직 송미의 그림은 미완성품에 불과했다. 어떻게 그는 그림을 완성할것이다. 그리고 왜그런지 송미는 요즘 늘 우수에 잠겨있곤했다. 그가 벌써 돌격대에 싫증을 느꼈단말인가.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그를 밋게 볼 까닭은 없었다. 처음엔 그도 그랬던것이다. 그때 소대장은 그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그는 지금 그 소대장을 하나도 탓하지 않는다. 강건너 볼보듯할수 없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송미가 극복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조장인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리해할수가 없었다. 송미가 그 영웅의 표에 가질 두려워하는 문제다. 그것도 밝은 날에 혼자도 아니고 자기가 옆에 있는데도... 승규에게는 이렇든 저렇든 송미의 일이 아리송하게만 안져왔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은 그야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짬도 없이 바빴다. 저마끔 도급제로 경쟁이 붙은것이다. 승규의 밥값질같이 새까맣게 탄 잔등에서는 땀이 비오듯했고 송미의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 되었다.

이날따라 뜨겁게 달아오른 태양이 꽤 게을리보였다. 정수리우에 딱 틀고앉아서 마치못해 움직이는듯한 뚱뚱보 태양이 승규에게는 얼마나 밋광스러운지 몰랐다. 권태감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그는 종내 곱쟁이를 집어던지고 녹녹한 흙무지우에 큰대자로 나가너부러졌다.

《야- 난 기권이다! 좀 쉬었다 하자구.》

송미는 이마의 땀을 흠칠뿐 아랑곳없이 삽질해나갔다.

(너자들은 확실히 남자들보다 이악스러운데가 있거든. 하긴 내가 이제 롱이 되겠나. 굿이나 보다 딱이나 먹지.)

승규는 머리를 제치고 넓으나넓은 가없이 푸른 하늘을 시름없이 바라보았다. 구름이라고는 멀리 기슭에, 바람에 불리어간 대패밥같은 조그마한것밖에 없었다. 아득하니 보이는 새매 한마리가 활공기같이 창공에서 빙빙 돌았다. 한바퀴, 두바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송미의 삽질소리는 초침소리처럼 여전히 울렸다. 승규는 미안한감이 들었다.

《그러다간 몸이 양초같이 녹아내리겠다. 휴식을 좀 한다고 그새 땅이 불어나겠니.》

인젠 주고받는 말도 퍼그나 자연스러워진 그들 사이다.

송미는 눈을 할기는것이였다.

《아이참, 우리가 제일 망코린데!》

《일없어- 동무두 〈반짓부리〉소리 들을가봐 그러니? 그것두 좋은 경험이드라.》

년장자처럼 외우는 승규의 이 말은 그만 송미를 발끈하게 만들었다.

《그말하기 부끄럽지두 않담.》

어느덧 다른조에서 주섬주섬 일손을 거두는것이 보였다.

또 도와주러 오겠지.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남들보다 바위를 세개나 더 들어내지 않았는가. 승규의 생각은 거칠데가 없었다.

그러나 송미는 그렇지 않았다. 얼굴이 달아오른 그는 다급히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쌔평두 좋네. 사람들이 와요. 어서 일어나요.》

송미로서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은것이다.

《일없어. 다 계획에 물린거야.》

마이동풍격이였다.

송미는 기가 막혔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도 도움을 바라고있다. 한때 그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는 승규의 느렁뱅이같은 성질에 일종의 반발심이 솟았다.

《창피하지두 않나?!》

《무엇때문에? 난 뭇뭇해. 이상하게두 달달 붉은구나. 무슨 죄라두 졌니? 조장이 휴식을 좀 진하게 하는데 그리두 심술나니?》

승규는 송미의 붙잡은 손을 뿌리쳤다.

송미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안착되었던것이 놀란 새처럼 화닥닥 박으로 날아가버린듯한 감을 느꼈다. 모욕으로 온몸은 재라도 뒤집어쓴듯 핫핫 달아올랐다. (뭇뭇하다구...) 그런 편한 마음을 꽤쪽처럼 내걸고 아무런 구속없이 집단속에 생활해내는 사람들이 이토록 증오스러워보이기는 처음이였다. 그리고 그자체가 지금 웅당한듯이 눈앞에 나타나있

는것이 더욱 분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수로옆에 짝여던진 회초리를 잡아쥐었다.

눈을 감고있던 승규는 이 찰나 발목에 따끔하니 회초리가 감기는것을 느꼈다. 놀라 몸을 일으키니 송미의 자그마하고 가냘픈 줄안에는 나긋나긋한 회초리가 쥐여있었다.

《안일어나면...》

땀에 젖고 해별에 달아오른 송미의 얼굴은 파리 알처럼 빨갛게 익어있었다.

단단히 애가 나는 모양이다. 승규는 빙글거리며 시까슬렀다.

《꼭 영화배우같구나. 이젠 조장의 명령이야. 대원 김송미, 손에 든 무기를 던질것!》

《정말 일어나요. 하다못해 일하는척이라도 해야 않아요.》

송미는 호령하다싶이 하였으나 승규는 기지개를 켜며 다시 드러누웠다.

《날 들자면 아마 기증기가 와야 할게야.》

송미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반짓부리같은것!!》

맷짠 소리와 함께 뒤따라 회초리가 그것도 무자비하게 찌라찰라 그의 몸에 안겨졌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라 승규는 후닥닥 몸을 일으켰다.

《왜그래? 정신나갔어!!》

《동문 바보야! 세상 일등바보!》

송미는 아랑곳없이 계속 채찍을 안겼다.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승규는 황황히 흠무지너머로 흠덩어리마냥 굴러났다.

채찍까지 그의 뒤에 힘껏 쥐여뿌린 송미는 설분에 못이겨 그만 《후-》하며 돌아섰다.

(어쩌면 저다지 뻔도 없담. 하긴 저 동무야 무엇 때문에...)

승규는 그야말로 당황했다. 뒤미처 가볍게 떠는 송미의 땀에 젖은 어깨를 보자 그는 뿜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말도 세번 하면 나쁘다지 않는가. 그런데 앞친데 덮친격으로 일이 안될때라 이곳으로 몰려오던 소대원들의 눈에 띄이였다.

《무슨 일이야? 사랑싸움이야!》

《원 이제부터 갈라 일을 시켜야겠군.》

소대장은 가볍게 질책하며 먼저 수로에 뛰어들어 샅을 들었다. 뒤이어 모두가 합세하여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승규는 허둥거리기만 했다. 벌개진 얼굴에 그도 비지땀을 흘리며 그속에 묻혔다. 일이 끝났을 때는 송미가 곁에 없었다.

한편 송미는 맛바람이 세차게 부는, 인젠 해가 넘어가 퍼그나 그늘진 등너머 바위우에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야산언덕에 날아와 부채살처럼 흠어지는 서늘하고도 세찬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야살궂게 흐트러놓았다. 식어든 송미의 파리한 두볼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고립무원한 자신

이 서러웠다.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것이다. 언제부터인가는 남들이 알면 안되는것으로 가슴속에 들어앉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건만 지금에 와선 오히려 몰라주는 그들의 차거운 마음들에 (그렇게 생각되였다) 보다 더 서러워진것이다. 그는 다시금 아버지가 그리웠다.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다문 얼마만이라도 알아주는건 아버지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뜨면 해지듯 필요한 때마다 곁을 떠나곤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호소했다.

(아버지, 나는 추워요. 여기는 따스한 햇빛뿐이건만 나는 추위를 타고있어요. 언제면 이 구속에서 벗어날가요. 일년? 이년?... 여기 사람들을 대하기조차 인젠 하루가 다르게 부끄러워요. 나는 그 매일매일을 이들을 속이며 생활하고있거든요. 아버지, 난 차라리 눈도 비바람도 햇빛도 다 맞고싶어요. 어디로든지 데려가주세요.)

일이 끝났는지 승규가 찾아왔다. 송미는 말없이 스적스적 따라섰다. 그가 고마왔다. 이곳에서 벋삼을 동무는 그래도 그밖에 없다고 송미는 생각했다. 그만은 마음속의 화풀이도 받아주었고 외로움도 덜어주었던것이다. 그들사이의 멧적은 침묵만이 흘렀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빌어야 해. 그가 용서할가? 이 동무는 아마 단번에 용서할거야. 위낙 그런 성미니까. 차라리 때리기라도 했으면...)

그들이 애국자묘를 지나려니 그곳에서 제단의 꽃을 바꾸어놓는 소대장이 눈에 띄였다.

《에이구- 다 큰 체네가 울었구만. 승규는 예술적인데가 없어. 사람의 겉모습을 그리는 솜씨는 있어두 그 속마음을 그리는 솜씨는 없거든.》

웃는 소대장앞에서 송미는 부끄러움을 탔다. 승규는 고개를 빼돌려서하게 튼채 기다란 개꼬리풀만 푹푹 잡아뜯는다.

소대원들이 다 내려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작업장은 적막하였다. 그들은 소대장과 함께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그 영웅의 묘가 있는곳을 다시금 돌아보며 소대장은 무엇때문인지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어느 시에선가 이렇게 썼던군. 영웅은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역적은 살아서도 고향에 오지 못한다고... 사실 사람이 살아꾸나 하면 한세기를 넘어살수도 있소.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사는것일가. 더우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볼수 없지. 그가 한세기를 넘어산대도 값이 없이 죽으면 일단 그것으로 생이 끝이 나지만 영생하는 삶을 지닌 인간들은 오래오래 만사람의 심장속에까지 남아있거든.》

소대장은 길가에 환하게 피어난 들국화덤불옆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들국화를 보라구. 이 꽃을 화분에 심으면 이렇게 피어날수 있을까? 글썽 피기야 피겠지. 그러

나 그건 들국화가 아닐거요. 왜냐면 들국화는 이름 그대로 달리는 뿔수 없는 들판의 꽃이니까.》

그들은 소대장이 무엇을 말하고저하는지 짐작이 갔다. 더우기 소대장의 성미를 잘 아는 승규로써는 이 말속에서 오늘 있는 일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을수 없었다.

고요한 들판에 어둠이 깃들었다. 들판은 풀벌레의 기운찬 울음소리로 삽시에 차고넘쳤다. 신선한 밤기운은 슬며시 기여들었다.

작업종화후 승규는 저녁먹을 생각도 않고 자그마한 손도끼를 든채 강변으로 나갔다. 달빛어린 강변은 환했다. 그는 강냉이밭에 숨겨놓은 구유통을 꺼냈다. 인젠 제법 모양새가 잡힌 구유통은 조금만 다듬으면 되었다. 그는 옷등을 벗어제끼고 일에 달라붙었다. 금시 도끼날에 튀어난 나무밥이 부나비처럼 주위를 날았다. 자갈을 굴리며 내닫는 남강의 여울물소리를 짓누르며 도끼질소리는 그의 얼음속같이 빈 강변을 텅텅 울리었다.

(안되는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승미가 다른 조에 가면 편해질거야. 나같은게야 《반짓부리》가 적당하지.)

그는 종화때 스스로 일어나 갈라줄것을 제기했던 것이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모두가 침묵만 지켰었다. 종화후 소대장은 따로 만나 혼연히 웃으며 묻는 것이었다.

《승미의 의견도 그렇든?》

손맥이 풀린 그는 손도끼를 구유통안에 집어던지고 달빛아래 기름처럼 번들거리며 내닫는 여울을 한숨속에 바라보았다.

누군가 몸에 옷을 걸쳐주는바람에 흠칫 놀라 돌아보니 어느결에 승미가 와있었다. 승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뭐-해요...?》

승미의 나직한 물음에 그는 침울하니 대답했다.

《숙소의 돼지구유통이 다 낡았드라니... 〈반짓부리〉를 면해볼가해서 야간전투를 벌리는중이요.》

다른때같으면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겠으나 지금은 대수롭지 않았다.

《자- 받아요. ...》

승미는 그의 손에 무엇인가 쥐여주는 것이었다. 파스한 강냉이이삭이 엷은 종이를 통해 손바닥에 미쳤다. 내달리던 마음속의 그 무엇이 막힌 여울목의 물살처럼 뻗고 퍼졌다.

《날 용서해요... 내가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승미의 이 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난 바보야! 정말 일등바보야! 이런 승미를 다른 조에 보내다니...)

그는 승미의 두손을 와락 움켜쥐었다.

《승미! 죽일놈은 이놈이야. 날 용서해.》

숨가쁜 침묵이 오갔다. 그들은 오래도록 강변에 앉아있었다.

승규는 물집이 잡힌 송미의 자그마한 손을 어루쓸었다.

《아프지 않니?》

송미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힘들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우둔하긴 우둔해. 나같은 놀부와 조를 무엇이니 송미는 고생하겠어.》

승규의 이 순박한 고백은 송미의 얼었던 마음을 한결 덥혀주었다.

《아이참, 몰래 좋은 일만 하면서...》

《첻- 나만 하는가 뭐. 소대장은 부뚜막까지 손질해줬는데...》

그들은 서로 웃었다.

《처음엔 다 그렇게 힘들단다. 난 더했는데 뭐.》

《아이, 일이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같은 일감인데도 남들은 얼마나 쉽게 일해요. 그런데 난...》

《차츰 일해보느라면 되겠지 뭐, 아까 소대장이 한 들국화얘기 생각나지? 들판의 바람은 좀 세단다.》

《나두 그런 들국화가 될수 있을까?》

여울물소리만이 강변을 흔들었다. 수많은 반디불이 어둠속을 날아왔다. 그들은 그 대답을 알고있는지 ...

×

어느덧 한달 보름이 지나갔다. 복스럽게 생긴 하얀 보름달이 프락의 대추나무가지에 살그머니 올라앉았다.

잠이 오지 않은 승규는 토방에 나앉아 아까부터 송미의 미완성소묘를 들여다보고있었다.

(그가 가다니?!)

승미가 돌격대를 떠난다는것이 그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

대체로 그의 동무들은 사귄만하면 헤치는것이 특징이다. 다만 자기의 모습들을 그의 화첩속에 사진처럼 남길뿐이다. 그런데 승미는 그 모습조차도 남기지 못하지 않았는가.

오후 서너시쯤이었으리라...

세멘트상하차를 마친 소대가 모두 강에 씻으러 나갈 때 소대의 막내인 그는 심부름으로 비누와 수건을 가지러 숙소로 뛰어갔다. 물론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 대신 그들은 밤청대를 할 때 (인차 하게 된다) 한사람이 다섯알씩 모아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가 헐레벌떡 옷방에 들어서느라니 아래방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말소리만 듣고도 소대장과 로동지도원임을 알수 있었다. 로동지도원은 이틀전에 일이 있어 이곳에 내려왔는데

래일 다시 들어간다고 했다. 그래서 무엇인가 토의하는 모양이다.

《송미를 꼭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소대장의 목소리였다.

《어찌겠소. 래일 낮차로 함께 가는수밖에.》

(보내다니...?)

이 소리는 송규에게 우뢰처럼 울려왔다.

이야기가 끝났는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침 소대장이 먼저 밖으로 나갔었다. 신발을 꺾어 신은채로 덤벼치며 묻어선 송규는 성급하게 물어보았다.

《송미가 어딜 가나요?》

《누가 그러든?!》

무엇때문인지 소대장은 눈살을 찌프리는것이였다.

《문잠으로 들은걸요.》

소대장은 어של픈 웃음을 그리는것이였다.

《왜? 적적해서?... 멀리 안가.》

송규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다. 혹시 송미가 알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급히 강가로 달음질을 쳤다. 송규는 송미도 만날겸 따로 떨어져 씻는 처녀들에게도 비누를 가져다주었다. 그러자 처녀들 속에서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애.》

《나한테 비누 가져오는 총각은 없나.》

《〈반짓부리〉가 썸이 들었구나.》

가득이나 속이 뻐뻐해진 송규는 큰소리로 으름장을 쳤다.

《이자 말한게 누구야?》

하지만 처녀들은 막무가내였다.

《호호, 요 좁쌀친구가 으른다 애.》

《우리 혼내줄가.》

처녀들은 깔깔거리며 물까지 뿌리기 시작했다. 햇빛을 받은 물방울들이 구슬처럼 반짝이며 부서져 날아들었다. 송규는 하는수 없이 주먹을 내두르며 쫓기지 않을수 없었다. 뒤따라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물보라처럼 뿌려졌다.

《여 송규! 화력지원이 요구되지 않니?》

이쪽을 넘겨다보던 남자들쪽에서도 와그르르 웃음이 터졌다.

송미를 만나자던 일이 수포로 돌아간 그는 별수없이 멀리서 소리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송미동무- 좀 만나지요! 말하게 있소-》

축포처럼 터지는 모두의 웃음속에 얼굴이 파리알처럼 빨갱게 익은 송미가 뛰어왔다.

《아이참! 동문 아무때나 부르면서.》

《불의의 정황이 조성된걸 어찌했니.》

송규는 싱글벙글 웃으며 소대장에게서 엿들은 말을 단숨에 얘기해주었다. 너무 입이 빠른것이 탈이랄가... 그렇게 활달하던 송미의 얼굴은 삽시에 먹장구름같은 하늘처럼 새까맣지고말았다.

《모르고있었니?》

송미의 어깨는 젖은 빨래처럼 축 처졌고 눈은 뿌옇하니 생기를 잃었다.

송규는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짐작했다.

(그러니 알고있는거로구나. 그런데 왜 그럴가? 혹시 지금껏 고민하던 그 일이 아닐가?)

소대장을 따라다니며 지꼇게 캐물어서야 어렵뜻이 알수 있었다. 소대장은 심중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아직은 정확치 않으니 소문내지 말아. 어쨌든 송미는 다시 올것 같진 않더라, 그애 어머니가 여간 뒤질 않던데. 하긴 자식을 외지에 내놓고 마음놓 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사회생활에선 첫신발을 바로 신어야 하는건데.》

그는 어수선한 기분에 휩싸였다. 소대장의 말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그런 말을 하는 소대장이 싫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편견이거든. 송미는 깨끗해. 집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겠지.

한편 송미는 송규의 그 말이 거짓같이만 여겨졌다. 어느때든지 피할길 없는것이라고 직감은 했으나 막상 지금에 와서 불시에 닥쳐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던것이다.

(처음부터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단말인가?)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송규는 강변에 홀로 서있는 송미를 보았다. 무슨 말로 달래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괜히 앞질러 말한것이 후회되였다. 기다리던 밤청대가 벌어졌으나 그는 즐겁지 않았다. 동무들은 약속대로 노릿노릿하게 구운 밤알들을 송규에게 모아주었다. 따끈한 밤을 손에 쥐니 그는 송미생각이 났다. 그는 정신없이 강변으로 허겁지겁 뛰어갔다. 송미의 마음을 밝게 해줄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결심이였다. 그러나 송미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밤알을 모아싸는것이였다.

《왜 먹질 않니?》

《건사할래요...》

울먹이며 말하는 송미를 보자 가슴이 찢르르해진 그는 그자리에 있을수가 없었다.

(난 왜 이렇게 바보노릇만 하며 돌아다니랴.)

송규는 한숨을 쉬며 대추나무에 걸린 보름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송미에게 대추를 털어주던 한 주일전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소대장이 웃으며 소리치던 일도...

《여 송규, 너 어찌자고 송미에게 대추를 자꾸 먹이니. 많이 먹으면 배에 바람이 찬단다.》

모두가 웃음속에 대추처럼 얼굴이 빨개진 송미는 종주먹을 쥐고 소대장에게로 쿵쿵 뛰어갔었다

인체는 대추나무를 흔들던 그 즐거운 웃음도 한갓 추억으로 돼버렸다. 그리고 그가 없으면 저 보름달도 이전처럼 밝지 못할것이다. 그는 미완성소묘를 시들하니 접어 작업복주머니에 넣었다. 찢어버릴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소대장은 작업조직을 하기에 앞서 매 사람들에게 종이를 한장씩 나누어주었다. 종이들에는 제각기 다락발들에 널린 수로배치도가 나무가지처럼 그려있었다. 모두들 웅성거렸다.

《오늘 동무들의 과업은 중요한것입니다.》

소대장은 말은 구간에 따르는 지원로력들의 안내며 숙식조건, 작업분담 등 모든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인원이 팔리므로 한방향에 한사람씩 가야겠소. 독자적인 행동이므로 절대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인원이 렬차와 빠스로 새벽에 떠났다는것을 전화로 미리전에 알려왔으니 빨리 서둘러야겠소.》

모두들 봄비며 일어섰다.

그때였다.

《전... 파제를 안주나요?》

문득 구석에서 날아온 이런 말은 사람들을 무참거리게 하였다. 그곳에는 불쌍하게도 송미가 홀로 앉아 겁질린 눈빛으로 기둥처럼 서있는 사람들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소대장은 마치 잊었던듯이 범상히 말하는것이였다.

《음- 동문 오늘 할 일이 따로 있소.》

송규는 송미의 시선을 가까스로 피했다.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소대장은 송미가 모르고있는줄 아는것이였다.

순간 구석에서 《좌르르-》하며 방바닥에 밤알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송규는 오한을 느꼈다. 어제 그가 준 밤이였다. 그 밤알들은 마치 그의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듯했다. 허둥지둥 밤알을 주어모으던 송미는 그대로 백지장같은 얼굴을 싸친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모두들 술렁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얼마후 송규는 빈방에 홀로 선채 돌덩이처럼 나뒹구는 밤알들을 슬프게 내려다보았다. 꿇어앉은 그는 송미의 뒹마냥 방바닥에 가볍게 흘러떨어진 손수건을 집어들고 흩어진 밤알들을 변명이나 하듯 주어담았다.

송미는 토담뒤에 숨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송규는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그런데 송미는 뜻밖에도 야멸차게 쏘아붙이는것이였다.

《동문, 날 멀리하지요?!》

《멀시라니?》

《몽문 날 비웃고있어! 팡포쟁이! 나같은게야 사랑값에나 드나. 후-》

송규는 어제밤 그의 미완성소묘를 버린것이 연중 생각났다. 뭐라고 변명할것도 못되였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그를 위한 자기가 아닌가. 손수건에 쓴 밤알이 이번에는 그의 손에서 툭툭떨어졌다. 무엇보다도 팡포쟁이라는 말에 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헤질 때는 헤지더라도 그 원인을 알고싶었다.

《도대체 무슨 일때문에 그러니? 내가 뭘 비웃는단 말이야?》

송미는 젖은 눈을 훔쳤다. 정말 이들이 모르고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든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그는 자신의 눈길을 피했을까. 그보다도 인젠 어차피 숨겼던 모든것을 털어놔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펴려왔다. 송규는 이해할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다시 뒤따를 그 비난들... 그는 토담을 타고 줄줄이 올라간 줄당콩넨출만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송규는 송미가 것처럼 싸안고 수심에 잠겨있던 근원을 알게 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송미의 학급동무들은 모두가 당이 요구하는 X×곳의 집단진출을 탄원해나섰다. 얼마나 벽찬 시대의 순간이었던가! 학급전원이 배낭을 지고 환호속에 렬차에 오르던 날 그는 학교로부터 좀 남으라는 뜻밖의 지시를 받았다. 무언가 잠깐 지체될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내 인차 따라설게.》 순진한 그는 동무들과 이렇게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작별이 될줄 누가 알았으랴. 역전의 개찰구밖을 나서니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어머니가 눈에 띄였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서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되였다. 외동딸의 장래를 어머니는 무시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뒤미처 기다리는 어머니가 주선해준 그 좋다는 새로운 직장이 그의 마음을 안착시키기에는 가슴속 상처가 너무나 컸다. 모든것은 그때부터 하강선을긋기 시작했다.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다 비난이 실린것만 같았고 그를 꾸짖는듯했다. 아무리 백결음을 내짚어도 남들이 웃으며 내짚은 그 한결음만 못하게 여겨졌다.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왜 그때 뿌리치고 집을 나서지 못했는가...

오랜 고민은 그를 피약벌아래의 잡초처럼 시들게 하였다. 《글쎄 혼자 빠졌대. 어머니가 활약한다나.》 어느날 누군가의 소곤거리는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작업도중에 얼굴을 싸친채 집으로 뛰어왔다. 그가 얼굴이 뜨거워 더이상 못있겠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넌 이담에 이 에미에게 절이나 해라. 상급학교를 눈앞에 두고 일이년이야 못지내겠니.》

출장을 마친 아버지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은뒤였다.

돌격대는 스스로 택한 길이였다. 명예가 아니라 량심의 정화를 위해 남들에게는 위훈과 멀게 느껴지는 자그마한 구역돌격대를 자원한것이다. 그러나 피로운 우수의 나날은 개이지 않았다. 마치 찬물로 식힌다는것이 화독이 더욱 몸에 배여드는격이였다.

《직장의 며칠 동원으로 어머니는 알고있었어. 인젠 어쩌면 좋아!》

송규는 늙은이처럼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약을 먹고 낫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송미

문제는 단순한 생활을 하여온 승규에게 있어 참으로 복잡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아이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집에서 아예 들구나와! 나갔으면 못참아.》

《어마나?》

송미는 눈이 둥그래졌다.

《그럼 언제까지 눈물만 짜구있겠니. 인제야 당당한 공민증을 지닌 어른이 아니야?! 출생증과 공민증이 갈을수 있니.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줄 알아야지. 이제 당장 소대장을 만나자. 길구 짧구 대박야 해!》

승규는 지기가 금시라도 무슨 일을 칠것만 같았다. 송미를 위해, 아니 혁명동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그의 어머니의 리기적인 습성부터 김을 매듯이 말끔히 뿌리빼야 하였다. 좋은 집단에 뿌리를 내리고 싹트려는 딸의 마음을 그의 어머니는 어째서 못보는지. 왜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좋은곳과 나쁜곳이 있다고 보는지. 청춘이 약동하고 그속에서 창조가 들끓는 거창한 현실은 이 시각도 더욱 앞으로만 내달고있다. 여기서 락오자가 된다는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한 처녀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보다도 앞으로 더는 손대기 싫은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될 자신의 환멸을 안겨주는 미완성작품의 종말을 위해서도 그는 용화할수 없었다. 집단의 사랑만이 있고 그 사랑속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이 사는 지금 사회는 완전한 걸작들과 명작들만을 안고있어야 한다.

《제발 그만뒤요.》

《넌 정말 햇병아리구나!》

승규는 팔에 매달리는 송미를 옥박지르며 휴계실로 들어갔다.

마침 소대장은 방안에 있었다. 막상 들어가 마주앉으니 격한 나머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소대장은 그의 기분같은건 아랑곳않고 오히려 다행이라며 하나의 락도를 더 주는것이였다.

《난 아무래도 관리위원회에 들렀다 가야겠는데 좀 늦어질것 같애. 네가 대신 좀 움직여야겠어. 네 구간은 아마 낮에야 올테니까. ... 자동차루 오는게 빨리 와내겠니?》

그사이에 송미는 토방에 나와 앉아버렸다. 소대장의 눈과 마주치자 그는 눈물이 갈쌍해서 돌아왔는것이였다.

여기에 힘을 얻은 승규는 소대장의 팔을 덥석 잡았다.

《소대장동무, 난 참을수가 없어요!》

승규는 의아해하는 소대장앞에 가슴을 터놓고 절절히 호소했다.

《왜 우리는 송미가 락오자가 되게 해야 하나요? 왜 그를 구원 못해요? 그는 지금 울고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에겐 그래 잘못이 없다고 보는가요? 소대장동무나 나나 또 우리 소대는 이 사실앞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는 봐요! ... 송미는 성실한 동무예요. 내가 그와 한조가 돼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아마 내가 그만큼 일했다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다른 또 누군가 지금 송미의 처지에 빠진다면 그건 우리의 불만을 안 살것 같애요? 난 이런 불만이 우리 머리속에 강태처럼 들어앉는게 인젠 막 싫어요. 혁명이라는게 뭐 다른거예요. 해보자요. 도와줄수 있어요!》

승규는 송미가 안고있는 그 불행에 대해 하나하나 털거해나갔다.

《이게 눈먼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이젠 비극을 가져오는것밖에 더 없어요.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따로 없는 우리 나라가 아닌가요? 그 인식을 말짱이 들어내면... 그게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지요. 마음만 굴뚝같아선 뭘해요. 소뿔은 단김에 빼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개인주의적인 근성을 없애주는 것은 한시가 새로와요. 우리는 이 기회에 송미도 그의 어머니도 그의 가정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어요. 이젠 다 〈하나의 대가정〉에 속하는 우리 집 문제거든요.》

《우리 집 문제라!》

소대장은 빙그레 웃었다.

《승규가 인젠 체법인걸. 사실 난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줄을 몰랐다. 그래! 우리 집 문제구말구. 〈우리 송미〉를 우리가 도와주자!》

승규의 두눈은 기쁨으로 번쩍였다.

드디어 방안에서는 송미와 소대장간의 심각한 이야기가 오갔다. 승규는 밖에서 진정하지 못한채 뜰안을 왔다갔다하였다. 마치 수술받는 환자를 기다리는 심정이였다.

잠시후에 밖으로 나온 송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기쁨으로 붉게 물들어있었다.

《어떻게 됐니?》

송미는 성급한 그에게 차근차근 대답했다.

《소대장동지가 안보내겠대요. 이곳에서... 소대장동지가 직접 지도원동지하구 같이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보겠대요.》

《만세!》

승규는 환성을 질렀다.

《바루 그제야. 인젠 떼논 당상이다. 우리 소위동지가 할줄 알거든.》

송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구 소대장동진동무와 함께 하라는걸 내가 우겨서 따로 말았어요.

동무한테 준게 있다면서 넘겨받으래요. 관리위원회에 갔다 인차 온댔어요.》

《뭘!》

환해졌던 승규의 얼굴은 허상이 지어졌다. 소대장의것은 제일 힘든 구간이었던것이다. 소대장이 인차 돌아선다 해도...

승규는 자기것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낮에야 올것이다. 그때는 자기가 도와줄수 있었다. 그러나 분담된 내용을 상세히 그에게 알려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납덩이처럼 가슴속에 들어앉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에잇, 고집쟁이!

《절대 덤비지 말어!》

송미는 략도를 만지작거리며 생글거리기만 했다. 그에게는 자기도 파체를 받아안았다는 그자체가 큰 기쁨이었던것이다.

그들은 마치마리별이기라도 하듯 서로 손을 굳게 잡았다.

×

승규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하질 못하였다. 일을 끝내기바쁘게 그는 송미가 있는곳으로 달음질을 놓았다. 산길을 질러가느라니 바지가랭이가 다 찢어지었고 온몸은 땀으로 물침봉이 되었다.

그곳에 이르니 다행히도 주위는 아직 고요했다. 한동안 찾아서야 애슬들이 다복다복 앓은 벼랑턱에 홀로 그린듯이 앉아있는 송미를 발견할수 있었다.

《어마나! 언제...?》

그의 찢어진 바지가랭이를 보자 송미의 눈은 더욱 울롱해지는것이였다.

승규는 싱글벙글 웃으며 그의 옆에 다가가 펄쩍 주저앉았다.

《안내자가 이런 높다란데 와있으면 어떡하니. 사람들이 오겠는데?》

《끝났는데 뭘. 사람들이 숙소에 간지 언제예요.》

《뭘?》

그제야 승규는 배관을 한 기다란 수로를 볼수 있었다.

송미는 놀라와하는 그에게 옆에 싸놓은 종이꾸레미에서 어린애머리만한 시뻘건 사과 한알을 꺼내주는것이였다. 《싫다는걸 이렇게 꾸러줬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어안이 병병해서 눈만 껌먹이는 그에게 새물거리며 있는 일들을 들려주었다.

《사실 첨엔 겁이 좀 났댔어요. 내가 꽤 해낼수있을가 하고 말예요. 그런데 모두가 도와주니 얼마나 쉽던지... 내가 한 일이란 그저 도면이나 설명해

준것뿐이에요. 난 일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구 오락회때 사람들앞에서 시까지 읊은걸요.》

승규는 입을 딱 벌렸다.

《난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들어볼래요?》

송미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움쭉 일어나는것이였다. 거센 바람에 그의 부드러운 머리발은 기폭처럼 흩날리였고 옷자락은 팽팽히 뒤로 젖혀졌다. 벌에 그슬린 발길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청신한 처녀의 얼굴은 탄력있게 봉긋한 가슴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아름다운 조각의 한모습을 방불케했다. 그의 흑보석처럼 빛을 뿜는 까만 두 눈동자는 불꽃이 튀는듯했다.

...

오 조국이어 조국이어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

이 시를 읊는 송미의 두눈에선 맑은것이 해빛에 번쩍였다. 승규는 가슴이 몽클해지였다. 지금 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던것이다. 그래서 인지 이 시각 자신의 심정까지도 송미와 하나로 융합된듯이 느껴졌다. 송미가 이전에 품었던 슬픔과 되찾은 기쁨들이 마치 자신의 일이런듯만싶었다.

《난 한마리의 새가 되어 훨훨 날아가고싶어.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 돌아봤으면...》

송미의 소원은 영웅이 되고싶어하던 그의 소원과 달리 참으로 소박했다. 그저 자그마한 새가 되겠다는것뿐이다. 승규는 정말로 자기들이 두마리의 새로 변하여 저 멀리 목화섬처럼 부풀어오른 구름너머로 훨훨 날아가는것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침묵속에 잠겨 눈앞에 펼쳐진 멀리 아아히 굽이쳐간 산발과 그우에 흐르려져 널린 아름답고 깨끗한 구름들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이 벼랑은 그들을 태우고 하늘위로 뚱뚱 떠가는듯싶었다. 밑에는 풍요한 가을이 손끝에 닿을듯이 펼쳐졌다. 불길에 휩싸인듯한 단풍이 붉게 물든 주름진 야산들, 시누렇게 익고 무겁게 실린 황금의 벼바다, 그뒤로 작은 야산들을 떠이고 거대하게 감돌아흐르는 강냉이숲의 바다, 붉고 건강한 태양, 번쩍이며 굽이쳐흐르는 남강, 색감통같이 납죽하고 굵고 감쪽한 오봇이 모여앉은 문화주택들, 이 모든것은 하나의 커다란 조색판을 련상시켰다. 커다란 붓이 하나 있다면 이 색감들을 남강의 푸른 물에 타서 듬뿍 묻혀가지고 시원하고 푸른 저 창공에 풍요하고 아름다운 략원의 자연을 채색하고싶었다.

《지금은 우리 나라가 제일 고을거야.》

송미는 자연의 미에 현혹되어있었다.

승규는 송미도 미술가의 눈을 가지고있다고 느껴졌다. 자연은 미술가에게 있어 언제나 아름다운 모델이었다. 그가 설사 다른 눈으로 보건대도 지금은 송미의 말대로 고왔다. 더우기 이날따라 늘 보아오던 이곳은 류달리 아름답게 안겨왔다.

문득 인기척과 함께 등성이우로 나타난 소대장으로 하여 그들의 명상은 깨어졌다.

《소대장동지!》

송미가 먼저 뛰어났다.

소대장은 땀을 흘리며 현장을 둘러보는것이였다.

《내 오늘 무슨 정신에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승규는 벌개진 얼굴로 뒤덜미를 문지르며 비죽 비죽 웃었다.

《송미가 수고했더구만. 내 여기 사람들을 오다 만났드랬소.》

소대장의 칭찬에 송미는 새죽이 웃었다.

《참, 송미동무, 아버지가 왔소!》

그들은 하나같이 놀랐다.

《출장길에 잠시 들렸더구만. 내 좀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봤소. 참 좋은분이더구만. 그리구 아버지 나와 의견을 같이 했소. 아버지는 편지까지 남기었소.》

송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였다.

《송미야,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이 크구나. 네가 모진 결심을 안고 그곳으로 떠난뒤에 너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걸 보니 나의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그러구보면 너의 소대동무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좋은 집단속에 있는 너를 보니 마음이 놓이누나. 그러니 넌 네 스스로 뿌리 내릴 좋은 땅을 찾은 셈이다. 그 소대장을 오빠처럼 따르거라.》

동무들과도 서로 도우며 잘 생활하고... 난 너의 결심을 지지한다. 끝까지 대담하게 나가거라. 너의 미래는 네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해라. 너를 잘 도와주지 못한 이 아버지도 용서해다오. 앞지 말아라. 아버지는 너의 앞길을 기대한다.》

《소대장동지!》

송미는 기쁨의 절정에 올라섰다.

소대장은 뜻깊게 말하였다.

《우리들에게는 심장과도 같이 뻗어놓고 살수 없는 그런것이 있소. 그것은 집단속에서만 꽃피는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삶의 보람이요. 이 보람을 떠나서 나나 송미 그리고 승규가 그 어떤 새로운 생활을 생각할수 있을까? 설사 그러한 생활에 산다고 해도 정신적불구가 돼버릴것이요. 더우기 집단주의

가 꽃피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활이란 있을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지. 구슬 서말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소. ...당의 품속에서 바치는것보다 받는것이 많은 우리 인민이 아니요.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심장으로 내걸었지. 이밑에는 <일심단결> 이라는 변함없는 우리 인민의 커다란 정신적기초가 있는것이고. 이 거대한 집단의 흐름밑에 조국은 아름답게 변모되고있소.》

소대장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빙그레 웃으며 송미를 바라보았다.

《참, 송미동무는 아버지가 식물원에 있으니까 그곳엘 자주 드나들었겠구만... 꽃들이 한창 피어나는 시기에 아름답게 펼쳐진 화원을 보았소? 한송이의 고운 꽃도 그 불타는듯한 화원앞에서는 무색해지는 법이요. 그러나 그 한송이의 꽃을 화원에 옮긴다면 그 아름다움은 한송이때의 아름다움보다 몇갑절 아름다워지거든. 내가 이야기하자는것은 보람이란 곧 자기의 창조라는것이요.》

(창조!)

송미는 생각했다. 우리가 씨앗이라면 이러한 창조는 그 씨앗으로부터 자라 열매에 이르는 장기적이고도 매 순간순간의 호흡인 커다란 생의 총체가 아닌가. 그것이 큰 집단을 이룬다면 그 화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화원이야말로 이 좋은 땅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송미는 눈물이 나도록 즐거웠다. 이 들판의 꽃들처럼 그도 인젠 태양의 빛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었다.

《소대장동지, 여긴 참 좋아요!》

송미는 벅찬 감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그 어떤 풍부한 말도 《좋다!》는 이 두글자를 더 대신할수 없었다.

《그렇소! 우리 나라는 어딜 가나 참 좋은곳이요.》

소대장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승규의 눈앞으로는 지금껏 지나온 가지가지의 추억들을 낳은 아름다운 마을들과 고장들이 주마등처럼 흘러지났다. 그는 그 추억들을 다시금 펼치고 싶었다. 그것은 불독처럼 뜨거운 그들의 마음이 갈피갈피 새겨진 성장의 로정도였고 성장의 자서전이였다. 아-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여...

(그래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 땅이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지!)

승규는 자랑스러웠다. 바로 그러한 땅우에 자기가 서있는것이다.

그는 들국화를 꺾어 다발을 엮는 송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 넣었던 송미의 미완성소묘를 꺼내들었다. 대담하게 찢어던졌다. 앞으로는 새로

운 송미를 그려야 할것이다. 그는 화판이 지금 없는 것이 후회되었다. 오늘은 무슨 정신에 두고왔는지. 하지만 그런들 어떠랴... 이후로는 송미의 그림이 아무때건 완성될것이다. 그리고 이 시각 마음속으로 열번도 넘게 그의 소묘는 완성되었다.

《꼭지요?》

들국화다발을 안은 송미가 다가왔다.

소대장은 웃으며 뜻깊게 덧붙였다.

《들국화는 어디서나 피기때문에 사랑을 받지!》

그들은 천천히 산을 내렸다.

《승규동무... 저기에 가자요.》

뒤에 떨어졌던 승규는 송미의 속삭이는 소리에 어리둥절해졌다.

송미는 가까운곳을 손짓했다. 그곳에는 지금은 승규 자신이 자기가 부끄러워진 영웅의 묘가 있었다. 송미는 쭈뼛거리는 그에게 꽃다발을 안기며 눈을 할기는것이였다.

《아이참, 동문 정말 〈반짓부리〉야!》

구호해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 돛에 즈음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이 혁명적구호는 우리 식 사회주의 종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우리 당의 최종목적과 확고부동한 원칙적립장이 구현되어있으며 당의 령도에 충실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도 반영되어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이다.

하기에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속에서 적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유린하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가장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하여왔다.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희망도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는 곧 우리 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다.

우리 인민이 사느냐 죽느냐, 다시말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느냐, 남의 노예가 되어 천대와 멸시를 받느냐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들 자신이 택하고 건설한 사회주의를 절대로 버릴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 실생활체험속에 간직한 사회주의신념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악랄한 책동이 로골화되고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느냐 저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문제로 나서고있는 현시기 준엄한 시련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자면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힘있는 무기이다.

우리는 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미제와 반혁명세력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다시한번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고 국 송(2)

(중국) 황장석

갈 매 기

서해갑문의 만년언제를 사이두고
바다와 강은 갈라져있었네
어데선가 날아온 갈매기 한마리
우리의 머리우에서 자유롭게 날았네

의의깊게 빙빙 원을 그리다
어데론가 날아가는듯하더니
또다시 소리없이 날아왔네
나의 머리우에 앉을듯말듯

길손이 반가와 원을 그리는걸가
서해갑문 보자고 원을 그리는걸가
갈매기, 갈매기는 날개로 말하였네

저는 남녘에서 날아왔어요

통일의 위업에 끌려 날아왔어요
겨레의 힘을 다 합칠 때
위대한 통일폭풍이 될거지요...

갈매기 소행이 하도나 기특해
이 길손도 대답하였네
한피줄 이은 겨레기에
통일의 성업은 우리의 위업
뜨거운 피라도 기꺼이 쏟으리! ...

갈매기는 또다시 원을 그렸네
자유로운 날개로 말을 하였네
민족의 녀이 깃든 그 말
남녘에도 널리널리 전하겠어요! ...

신기한 평양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 평양 북판에서는
때없이 뻐꾹새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동강가의 나지막한 언덕에선
뽕들도 푸르릉 날음질칩니다

세계에서 이름난 웅위로운 대도시건만
도시의 번잡함도 무질서함도
신경을 자극하는 소음이나 공기의 오염도 없습
니다

걸어보면 공원속을 거니는것 같고

어찌 보면 수림속을 누비는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별장에 오른듯한 기분입니다

공기가 어찌나 맑고 상쾌한지
물이 어찌나 순결하고 시원한지
해빛이 어찌나 밝고 환한지

평양은 정녕 아침의 수도입니다
도시북판에 높이 솟은 저 주체사상탑을 보십시오
또 저기 일떠선 류경호텔을 보십시오

누리의 높이에서 인민들 자신있게 행진합니다
그것이 좋아 뻐꾹 뻐꾹...뻐꾹새도 노래합니다
푸르릉...뽕들도 날음질칩니다...

심 정

나는 돌처럼 속이 굳은 사람
돌엔 그래도 이슬이 돌건만
내 눈에선 이슬이 돈적 없었습니다

인자하신 어머님 로환으로 가실 때에도

속에 눈물을 떨구었지만
눈에는 이슬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건만 내 어이하여 고국에서
돌처럼 굳었던 마음 그렇게도 쉽게 녹았는지

나는 여러번 눈물을 흘렸지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천진한 아이들이 가야금병창을 할 때
콧 쏟아지는 눈물 막을수 없었지요

오늘은 또 창광유치원을 돌아보며
고사리같은 애들의 손이 막 감겨들 때
저는 공연도 못보고 울었습니다

내 어린시절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내 가슴에 파도쳐오는 세찬 힘에
울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슬퍼서 운다고 하지만

저는 지나친 행복의 순간을 볼 때에
어쩔지 눈물만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왕들을 본것입니다

민족의 왕들속에 빛을 뿌려주는
따스한 태양과 찬란한 별을
걱정에 넘치는 심정으로 우러른것입니다

아아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가
나도 고국에 와 어린이로 태어나봤으면
하지만 안되지요, 저는 반백이 넘은 늙은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저는 날마다 평양의 거리를 거닐며
우중충 높이 솟은 건물을 보고 명상에 잠깁니다
이것이 과연 조선사람이 해낸 걸작이 옳단말인가

설계마다 독특하고 건물들이 너무도 높아
나는 도저히 믿을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하건만 일떠서는 거리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조선사람의 일숨씨를
정녕 평양은 조선사람이 일떠세운 수도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당의 결심대로
세계의 전렬에서 주체시대의 탑을 쌓았나니
조선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
니다

보통병사의 손에서

내 조선의 최전연에서
한 보통병사를 만났다
검실검실한 얼굴
싱글싱글 웃는듯한 눈

우람한 체구는 아니여도
어덴가 균형이 잡힌 몸
병사는 스물이 되었을가
어머니의 품도 금방 벗어났으리

하건만 나를 경탄시킨것은
병사의 귀염성스러운 얼굴도
균형이 잡힌 몸매도 아니였다
예지로운 눈길도 아니였다

내 병사의 손에서
장알도 아닌 한덩이의 썩살을 보았나니

새끼손가락뿌리옆으로부터
손목까지 웅근 누런 썩살이 깔려있었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예리한 칼
원췌를 친다면 썩둑 허리라도 끊으리
부르르 털이 돋힌 가슴팍을 친다면
한자루의 비수처럼 들어가박히리

오 일당백이란 이런것이로구나
해와 별을 우러르며
평소의 훈련으로 온몸을
하나의 무쇠덩이로 만들었나니

무엇이 두려우랴
내 보통병사의 손에서 느꼈노라
조선의 병사는 모두다 일당백
자위의 길에서 언제나 무적이리!

너의 영구화점 까부시리!

조선의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까지
독사처럼 구불구불 뻗어간 군사분계선
장장 2백 40 킬로미터구간에
철근콘크리트로 쌓아올린 분단의 장벽

너는 지금 자유롭게 오가던 짐승들도
다니지 못하게 길을 막아놓았구나
바로 너때문에 저주를 받는 너때문에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두동강이 났구나

너를 어찌 장벽으로만 보라
너는 전쟁광신자들의 낯관대기
너는 통일의 탈을 쓴 분열주의자들 강도의 팔뚝

민족의 뉘를 지닌 사람이라면

너를 보고 치를 떨며 통탄하리라
민족의 뉘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너를 보고 만약의 죄인들을 칼탕치리라

날아가고 날아오는 흰구름도
너를 보며 저주의 소나기를 쏟고
짐승들도 증오의 이를 부드득 갈리라
너에게 놀라운 땅도 참지 못해 활화산으로 터치
리라

콘크리트장벽아, 너의 영구화점을 까부시며
바야흐로 평화는 조선의 치욕을 가시려니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너 분단의 독사를
성스러운 민족의 대단함으로 처단하고야말리라!

시초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신흥국

나는 지금
전쟁이야기로 시작되고
전쟁이야기로 끝나는
전승기념관의 긴 복도를 걸어
이 집의 문을 나선다
60년대 첫기슭에서 태어난 세대
나는 처음으로
준엄한 50년대
3년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전선과 후방의 탄우속을 이 집속에서 걸어보았다
집은 왜 여기에 서있는것인가
인류사에 수백번의 전쟁이 고래쳤어도

이런 집 그 어느 땅에나 세워지던가
웃음꽃 날리는 유원지 한복판에
달덩이같은 아기를 안고 녀인들 웃는
락원의 거리 행복의 창가앞에-
내 다는 몰라도 말하련다
내 가슴속에 뿜어번지는
이 순간의 증오와 사랑을
묻어두고는 묻어두고는 건딜수 없어
나로 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이 집이 나에게 깨우쳐준 그 진실을
나는 오늘 여기서 말하련다

6월의 교훈

해방의 격류를 안고
꿈같은 행복을
난생처음...난생처음...하고 외우던 사람들
또 하루 새날에
희망을 엮던 그 새벽

간밤의 고운 꿈을 찢으며
노을이 아니라
하늘에 검은 연기 불어치고

둥지잃은 새무리
꺾어지는 나무가지에서 날아오를 때

아이에게 젖을 물렸던 어머니
가슴도 채 여미지 못한채
허둥지둥 산으로 오르고
잠도 못깸 어린것이 어머니 따르다
그대로 함께 쓰러졌다
아 1950년 6월

날마다 아침이면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의 시체
여기저기서 거짓말처럼 보이고
정을 다해 가꾸던 고향산천
낯설은 고장처럼 파헤쳐졌으니

가슴떨리는 참상앞에 울고만있으랴
싸워야 했다
제 집에 뛰어들 강도를 잡아야했기에
기어코 이겨야 했다
지면 또다시 노예로 되기에

누구나 바란 사람 없었어도
겪어야 했고 싸워야 했고 이겨야 했던 전쟁
자각과 맹세가 불길처럼 솟아

피어린 3년간의 격전끝에
마침내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변하지 않았다
누가 대신해 침략자를 막아주고
제집을 지켜줄것인가
사람들아 어느때든 싸움에 준비하라!

이 땅에 침략자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때엔 영웅조선의 명예 걸고
끝장을 봐야 하리
걸음걸음 등뒤에서 소리쳐 깨우쳐주는
오 전승기념관이여

한 농민에 대한 이야기

흰 머리 끌어넘기며
강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읍 거리 담벽에 선전화가 나붙고
소잔등에 위장망이 씌워지던 여름날
분여지 밭이랑의 풀들을 말끔히 뽑아놓고
군사동원부르락으로 들어서던 한 농민이 있었소

평생 호미밖에 모르던 그가 전선에서
탄우속을 달리며
처음으로 미군놈을 찔러넘겼을 때
자기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것을 놀라워하지 않았소

남한테 돌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어제날 지주집머슴군
집 떠난 그때부터 농사짓는 땅을
그리워한 농민병사

분대의 한 고향내기가 숨졌을 때
그는 슬퍼할새도 없었소
돌격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는 밤새 잠 못들고 그의 이름을 불렀소

기다리던 고향의 편지속에
자식없는 안해의 눈물이 뚫으며 왔소
그때부터 짐차 보기가 두려워지던
그런 편지조차 그에게는 영영 없어졌소

그는 말이 적어졌고 자주 생각했소
못살던 때는 팔자인줄 알았어도
해방후 행복한 생활을 누리보니 그런것도 아닌것을
다시 깃밟혀 옛 생활을 되풀이할수도 없는것을

살아있지 않는 자식들이 꿈속에서 보여왔소
술한 사람들이 땅속에서 소리쳤소
복수하라고
수천생명들을 지키라고
그리고 주인된 그 땅으로 돌아오라고

울분을 씹으며 그는 사나워졌소
고향으로 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총창으로 보병삽으로
평생 해내지 못할것 같던 일을 해내면서
매일 한놈이라도 더 잡지 못한것을 분해한
이들이 전쟁을 이긴 우리의 주인공들이요

승리한 주인공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벌써 고향의 밭이랑에 앉아있었소
알고있던 사람들은 적어졌고
누런 땅에 저절로 피어난
이름모를 꽃들만 이슬방울 떨구고있었소

순간,
그는 쓰러지듯 땅을 그리안으며 소리쳤소
땅아! 너를 떠나 너에게로 다시 오는 3년은
진정 가혹했어도
이겼기에 다시 왔다
태를 묻은 내 땅아
너의 주인은 바뀌우지 않았다...

짜악-살불이 땅을 그리안은
그리고 놓지 않는 그 농민의 웨침소리가
부푸는 대지에로 창을 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울린다
오늘에서 래일에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 되어

금 별

전사는
원췌의 불구멍에 가슴을 내뼌 때
민들레 핀 동쪽길을 달리며
시를 읊던 그날을 생각했어라

전사는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뛰어들 때
홍겨운 민요가락 넘기며
발을 갈던 그날을 그려보았어라

자식을 키우던 젖품에
수류탄뭉음을 안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었다
육탄으로 적함을 부시라고
등을 민 사람도 없었다

허나 그들은 스스로 그길로 갔구나
생의 귀중함을
정말로 몰랐던 사람들인가
정말로 그것을 안 그들의 가슴우에
지금은 금별이 빛난다

목숨보다 무엇이 귀중한가
청춘보다 무엇이 소중한가
내 금별앞에서 뜨겁게 생각하노라
자기가 있어 조국이 귀중함을 알게 되던가

아니여라 그들은 조국이 있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자신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지켜야 했기에
조국에 피를 바쳐 숨결을 더해진 사람들

한번 가면 다시 못오는 그 길에
나서라고 나서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었던
등을 민 사람도 없었던

그들은 갔구나 땀뿜이 웃으며 그 길로
육신은 아낌없이 바치고 갔어도
영원히 살아 그 뜻을 가르치는
그 정신의 빛발이 없혀 빛나는
오 금별 영웅의 금별이여

천년이 흐른대도

나는 지금 여기서 생각한다
패배를 몰랐다는
미제의 침략력사 100 여년과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우리 조국창건의 2 년을

그리고 또 세여본다
미제의 대군수독점재벌들이
열을 올리며 뽑아낸 비행기 땅크 함선의 수와
보습을 두드리던 야장간과 선반기들에서
우리가 깎아낸 수류탄과 보총의 수를

광활한 땅과
수억의 인구를 가진 미제
동방일각의 작은 나라
갈라진 우리 인민을 없애려
열다섯개 추종국가군대도 들이밀었으니

무엇과 무엇이 대결했는가
어떤 힘과 힘이 겨루었는가
놀랍구나
허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고
미제는 졌다!

긴 보총을 땅에 끄는 전사앞에
대륙을 메주밭듯했다는
《펜타곤》의 오성장군들이 졌다
갓 두살 요람기의 공화국앞에
《대아메리카》의 백년목은 《강대성》이
통짜로 자빠졌다

노예로 산 인민이
주인되어 살아본 해방의 5 년을
빼앗길수 없음을 미제는 몰랐다
그런 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미제는 계산하지 못했다

오, 김일성장군님!
발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귀여운 자식들에게 학교길 열어주신
그 은정에 목메여
감사에 젖던 가슴들에 우뢰치도록
멸적의 총창을 안겨주신 그 힘

천년이 흐른대도 미제는 가질수 없어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오늘은 더욱 백배해진 힘
영원히 승리만을 약속하는
조선의 이 힘을 건드릴자 세상에 없어라

비 돌 기

전승기념관
해빛에 창문이 웃는 지붕우로
깃을 치며 날아퍼지는
아 비둘기무리 비둘기무리

지금도 저 집안에서는
폭음소리 폭음소리 울리는듯한데
아는지 모르는지
젖어 바라보는 내 눈길우로
즐거움에 겨워 깃을 치는 비둘기

이 집에서 받은 걱정 커서인가
비둘기야 너의 하얀깃은
눈덮인 령길에서 더운 물 끓이며
전사들을 기다려준 너인들의
그 흰저고리 동정깃에 물든듯하구나

폭탄이 작렬하는 그 높은 철령으로
조명등도 없이 달리던
수송대의 차바퀴소리 지켜
밤지새도록 자리를 못뜨던
그 흰저고리 나뭇길은 아닌지

사랑하는 자식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내며
이겨서 돌아오라 간절히 바란 마음
이 나라 령길을 촌촌히 수놓아
피뿜는 가슴들
용감한 수리개 되어 적진에 펄펄 날아들었나니

그리운 고향으로
기다리던 영웅은 오지 못했어도
그들을 안고 땅에 오곡을 가꾸며

뺨을 비비던 그 어머니들 마음에서
비둘기 비둘기야 너는 날아올랐으리

아 승리한 조선의 녀이어
새 생활이 꽃피는 아름다운 땅에
창조의 훈향으로 나래짓는
자유론 평화의 순결한 녀이어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안아온 오늘의 행복이나
생각깊은 이 가슴속에 너는 속삭이누나

오늘을 위해 피흘린 사람들
3년 세월 짊없이 이어져 열린
푸른 하늘 높이 날며
전쟁을 모르고 자란 이 가슴속에
그날의 이야기 펼쳐주누나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너의 은빛나래 기쁨의 흰보라 되어
염원히 포연 없는 하늘에서 춤추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이야기 끊지 말고...

그 싸움의 나날 나뭇기던
그 흰저고리 못잊어선가
젖어 바라보는 내 눈길우로
전승기념관 푸른 하늘로
내 녀을 함께 실어보내는
내 마음의 흰 비둘기 비둘기무리 난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정일

실화문화

성 장

리대운

지난 2월 13일.

신의주시 일각에 자리잡은 도예술극장에서는 성대한 모임이 진행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피현군 백마협동농장에 파견된 3 대혁명소조원 최학룡동무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었다.

많은 돼지와 새끼뱀 염소 20마리를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주어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한 최학룡동무를 회의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축하하였다.

감사문전달에 이어 3 대혁명소조원 최학룡이 연단에 나섰다. 연방 흘러내리는 앞머리카락을 버릇처럼 쓸어넘기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결의토론을 하는 학룡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순진하고 티없이 깨끗한 새 세대청년의 모습을 보았다.

《어쩌면!》

《장하기두 하지!》

장내의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찬탄의 목소리들이었다.

하나 이 격동적인 자리에서 단 한사람만은 모든것을 잊고 무아경속에 잠겨있었으니 그는 맨 앞줄에 앉은 학룡의 어머니 리양주녀성이었다.

(여보, 들으세요? 학룡이가 토론을 해요. 당신이 그토록 녀원하던 이날이 왔는데 당신은 왜 칭찬의 말씀 한마디 없으시나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칠념도 않고 하염없이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는 리양주녀성의 눈앞에는 1년 전 뜻하지 않은 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최기순의 모습이 생시 그대로 우렁이 떠올랐다.

리양주가 최기순을 처음 만난것은 학룡이가 8살나던 해였다.

일본 도찌기현 우즈노미야시에서 살다가 1967년에 귀국한 양주에게는 조국의 들끓는 현실이 낯설었고 쉬이 몸에 배지 않았다. 처녀 나이 스물이면 세상리치에 말짱하고 한창 삶이 즐거울 때이다. 더우기 자본의 타락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는 힘들게 공부하고 뼈심들여 일하며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다는것이 좀처럼 리해되지 않았다.

《애야, 조국에 가거든 아버지, 어머니 뭍까지 합쳐 더 많이 일하거라. 이 아버지는 남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백두의 설한풍을 헤칠 때 그분들께 밥 한끼 지어드리지 못했고 미국놈들을 쳐부시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치를 때 응원하는 총 한방 쏘아주지 못했다.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조국을 일떠세울 때도 벽돌 한장 섬겨드리지 못했으니… 결국 한생을 헛나이만 먹었구나.

너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조국에 육신을 깡그리 바쳐라.》

외동딸을 조국에 보내는 부모님의 뜻은 그러했으나 황색문화에 몸이 젖은 양주에게 있어서 《육신을 깡그리》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일찌기 결혼하였다. 그러나 신혼의 단비가 생활이라는 대지를 채 적시기도전에 양주는 홀몸이 되어버렸다. 결혼의 표적으로 오누이만 남게 되었다.

아버지 없이도 애들은 잘만 자랐다. 일본같은데서라면 젊은 녀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산다는것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으나 여기서는 아무 걱정 없었다.

어느덧 학룡이가 학교갈 나이가 되었다. 입학하는 날 학적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나가던 담임교원은 아버지의 직업란을 두고 매우 딱해하면서 몸둘바를 몰라하는 양주의 거동을 의아쩍게 쳐다보았다.

(안되겠다. 역시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겠구나!)

가장의 필요성을 이처럼 절감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마침 일이 될 때라 최기순을 알게 되었다. 농장에서 트랙트르운전수로 일하는 수더분하고 의젓한 사나이는 양주의 마음에 들었다. 드넓은 대지처럼 안정감이 가고 반석처럼 굳건하여 마음놓고 의지하고싶어지는 그런 사내였다. 하여 그는 만남의 기념으로 옷 한벌을 지어놓고 최기순을 집에 청했다.

양주의 성의가 담긴 양복을 구경한 기순은 덤덤했다. 너무나도 무표정한 그의 거동에 양주는 의아

해졌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옷이 맘에 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시무룩이 웃기만 할뿐이었다. 돌아갈적에야 매우 주저하던 끝에 《저… 양주, 나한테는 저런 옷보다 당신의 진심이 소중하오.》 하고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진짜로구나! 저 사람은 진짜야!

하나의 점으로 가물가물 멀어져가는 최기순의 뒤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주는 자기를 향해 달음박질쳐오는 행복의 크기를 가늠해보려 애썼으나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크기의 행복이었다.

《아버지, 동물원구경 가자요.》

학룡이는 신통하리만치 아버지를 따랐다. 최기순은 좋은것중에도 이것을 제일 좋아했다. 오늘은 학룡이가 아버지더러 새 신발을 사달라고 했다.

《그래그래 사다주지.》

그날저녁 신의주신발공장에서 만든 하얀 고무바닥에 새빨간 테를 두른 운동화를 사들고 온 최기순은 아들의 기뻐하는 모양이 어서 보고싶어 안절부절했다.

허나 학교에서 돌아온 학룡은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신발을 보자 볼이 잔뜩 부어올랐다.

《씨, 그따위… 누구나 다 신는거… 우리 반 철웅이는 번쩍번쩍한거 신었는데…》

말리다 못해 난처한듯 두팔을 척 내리뜨리는 남편을 민망스럽게 바라보던 양주는 이럴 때마다 늘하던 버릇대로 주먹을 돌려댔다. 딱한 경우에 빠진 남편을 구원하고싶어하는 안해의 따뜻한 애정과 함께 자식을 버릇없이 길러낸 속죄의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을 그토록 성나게 할줄이야.

《누가 이애를 이렇게 만들었소. 제 나라것은 하찮게 보면서 두드러진것만을 중히 여기구… 당신의 생활방식이 아이를 이 지경 만들지 않았단말이요? 집안을 둘러보오. 여기 어디에 순수한 우리 식이 깃들어있는가… 언제부터 당신한테 하고싶은 말이었소. 참작하오.》

자기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성을 높이는데 겁을 집어먹은 학룡이는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다. 그러렴 무던하던 아버지가 왜 성을 낼까? 내가 멋진 신발을 사달라고 한것이 왜 나쁠까? …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학룡의 나이가 아직은 너무 어리었다.

다음날부터 최기순은 집에 돌아오면 학룡의 학습정형과 함께 정신생활에 큰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때로 반찬이 맞았지 않다고 투정이라도 부릴라치면 《학룡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하고 넌지시 옛날일을 상기시키곤 한다. 학룡이도 한두번만 듣지 않아 뜬금으로 외우다싶이한 옛말이다.

학룡이의 외할아버지 리학기는 원래 평남도 순천태생이었다. 아들 5 형제가 모두 머슴을 살아야 하리만치 가난에 찌들은 집안에서 그래도 유일한 기쁨은 하나밖에 없는 딸인 막내누이동생이 귀엽고 재롱스럽게 자라나는 것이었다.

학기는 일생동안 노래를 모르고 살았다. 언젠가 지주집에서 머슴살이할 때 안방에서 울려나오는 《류성기》 소리가 하도 신기해서 대청밑에까지 갔다가 들켜 실컷 얻어맞고 입술이 찢진 다음부터는 노래라는것 자체에 앙심이 생겨 일생을 입에 담아보지 못했다.

그런 그가 머슴살이기한이 끝나 집에 돌아와보니 그날인즉 마침 8살난 누이동생이 지주집 아이보개로 끌려가는 날이었다.

학기는 기가 막혔다. 그애 주자고 한푼두푼 모아온 푼돈으로 사온 갑사당기는 이제 무엇에 쓰며 글장님인 오빠들을 대신하여 제이름자라도 익히라고 사가지고 온 공책과 연필은 무엇에 쓴단말인가.

눈물로 빌고 인정에 하소연했으나 매정한 마름놈의 가슴속에는 얼음장이 들어앉았는지 요지부동이었다. 마침내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선 학기는 분별을 잃고말았다. 마름놈을 넘적하니 뺨아주고 그 달음으로 현해탄을 건너 학기는 살길을 찾아온 일본땅을 락엽처럼 굴러다녔다.

허나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하면 피했지 나라 잃은 망국노의 팔자도망이야 무슨 수로 하겠는가. 《징용》에 걸려든 학기는 두더지인생이 되어 탄광으로 광산으로 안가는데없이 돌아쳤다. 때로 《산미중식》의 미명아래 진행되는 저수지공사에 끌려가 질통도 지고 남포구멍도 뚫었다. 이러는 과정에 경상도 밀양태생의 착하고 부지런한 녀인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고 얼마후에는 딸자식도 하나 가지게 되었다.…

수난많은 전세대가 겪어온 이 가시덤불길은 물론 그자체로서 눈물겨운것임에 틀림없었다. 허나 학룡에게는 그 이야기에 감동되어 눈물은 흘리면서도 옛일은 옛일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옛날에 못살았으면 지금도 못살아야 하나뉘? 그땐 그때구 지금이야 지금이지!)

참말로 몸가까이 있는 행복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되고 생동한 것이었다. 이런 학룡이었기에 아버지의 검박하고 근면한 생활방식이 잘 리해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뵈가한 그 어떤 사치를 누린다는것은 웅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모종의 죄의식으로 늘 마음속을 편치 않게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견제하고 다잡도록 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세월은 흘렀다. 학룡이도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광제대학 립상학부에 입학했던 것이다.

사춘기의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학룡이한테도 머리기름이며 향수며 좋은 담배며 술같은것이 소용되게 되었다. 때로 동무들을 데리고 온 학룡은

어머니 몰래 술맛도 보려 했다. 그때마다 리양주는 아던정보던정 없이 된육을 퍼부었다. 네가 명색이 대학생이라는것이 벌써부터 어미한테 술심부름을 시켜? 술은 아깝지 않다만 쓸데없는 유흥에 홀려보 내려는 시간은 아깝구나. 이 어머니를 못보니, 나는 결국 시간을 놓쳐 한생을 잃었다...

그럴 때면 아들과 그의 동무들은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 묵묵히 멀어져가는 젊은이들의 뒤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보며 양주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만약 자기에게 20대의 청춘이 되돌아온다면 대학의 교정에서 칠판을 마주하여 과학과 진리를 마음껏 탐구할것이며 온몸에 넘치는 젊은 힘으로 조국을 위해 마음껏 일해볼것이다. 하지만 한생을 놓친 이제 와서 자기의 그 소원을 아들의 성장에 부쳐보려니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제가 하는것처럼 마음 가득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뜻대로 되는것 같지 않아 속이 불안했다.

혹시 저 애가 바른것 없는 생활에 자족하는것이 아닐까? 굳은 땅에 물 고인다고 살림을 하자면 툇전을 쪼개쓸줄도 알아야 할텐데. 지난날 지지리도 고생했던 외가집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줬건만 저 애는 왜 저 모양일까?

그런 밤이면 그는 남편과 마주앉아 가정일을 의논했다. 필요한 무엇무엇은 어떻게 구입하고 애들을 위한 지출에서 무엇무엇은 줄이고... 이야기를 하노라면 자연히 학룡의 이름이 묻어나오고 그러느라면 그 애의 생활에 대한 자기나름의 시름이 이야기되었다.

시름에 겨워 어깨마저 좁아진듯한 안해의 가름한 얼굴을 즐겁게 바라보며 남편은 껄껄 웃었다. 그나이적에야 누구나 어른후배를 내보고싶어 그러는 것인데 당신은 좀더 너그러워야 한다는것이였다.

《정말 일없을가요?》

《일없지 않구. 아 그 애가 전번학기에두 전과목 최우등을 하지 않았소. 학교 사로청위원장을 만나봤는데 조직생활에도 자각적이라군. 아직 능동적이 못되는것이 결함이지만 나이들면 차차 나아지겠지.》

《...》

《당신은 그런 걱정 말구 인민반사업이나 더 잘 하오. 뽕누에두 더 많이 기르구...》

파아란 형광등빛이 흐르는 아늑한 방안에서 남편과 더불어 다 자란 아들의 일을 걱정하는 그러한 밤은 한가슴에 겨우리만치 행복한 밤이였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갑절로 커지는 밤이였다. 오로지 직장일과 동무들의 일에만 골몰해있는 순박하고 성실한 남편에게서 그는 어린애와 같은 천진성을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천진한》 최기순이 천둥같이 성을 낼 때도 있었다. 학룡이가 허리에 생긴 약간한 병세로 며칠이고 등교할 생각을 안할 때였다.

《네가 아직 대학생이 되려면 멀었구나. 너를 하나 키우기 위해 나라에서는 귀중한 돈을 근 1 만 6 천원씩이나 쓰고있다. 그 돈이면 자동차가 몇대인지 아느냐?》

최기순은 올방자를 틀고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꼽아가며 학룡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있는 《나라돈》의 액수를 하나하나 꼽아나갔다. 것처럼 돈물계에 등한하던 사람의 입에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깨알같은 돈문세가 쏟아져나올적에 학룡이는 물론 양주도 깜짝 놀랐다. 그것은 여직껏 한번도 본적 없는 남편의 다른 한단면이었던것이다. 저이한테 저런 구석도 있었던가싶을 정도였다. 마치 남편의 혼계는 아들에게만이 아닌 자기에게 돈 회계는 이런 때 하는것이라고 깨우치는듯싶었다.

어느덧 말을 마친 남편은 《알만하냐 학룡아?》하고 아들을 굽어보고있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학룡은 머리를 깊이 수그렸다.

《그럼 됐다. 긴말이 무슨 소용있겠니. 여보, 거뭇 좀 없소?》

뭇 좀 없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양주였다. 아니나다를까 남편은 벌써 부엌쪽을 내다보고있었다. 이때라고 생각한 양주는 밋지 않게 눈을 할기며 이죽거렸다.

《잘해요. 일껏 교양하고나서는 아들하고 맞잔뽕구!》

《허허, 나는 술 잘 먹는것이 결함이구 당신은 속이 좁은것이 결함이지. 이러나저러나 우리야 사내대장부들이 아니요.》

그렇다. 아버지들이란 엄하게 타이르줄도 알지만 너그럽게 풀어줄줄도 아는 사람들이다. 오랜 광산로동으로 폐가 나빠져 일찌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그랬듯이 남편 최기순이도 그런 사람이라는것을 이와 같은 평범한 생활의 하찮은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게 될적에 양주는 뚫어오르는 기쁨과 함께 자기자신의 저급성과 패배감을 눈물겹도록 체험하게 되는것이였다.

나라없는탓에 이국살이까지 강요당한 부모님의 과거지사는 불문에 부치더라도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제앞에 내 과연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했던가. 조국을 받드는 주추들은 못될지언정 하나의 자그마한 못이라도 되여달라고 외동딸을 바다우에 띄울적에 나의 부모님이 과연 چه살림만 꾸리기를 기원했던가. 검박과 근면이 인간의 미덕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행복과 유족에 스스로 물젖어 피는 물나던 이국살이설음마저 감감 잊고있었으니 나라의 인간은 나라의 초석은 교사하고 자식된 도리도 못했다.

아 조국, 어머니 나의 조국,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이 없었다면 나의 한생은 무엇이 되었으며 오늘의 이 행복은 꿈이나 꿀것인가...

그것은 황색문화가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리익과 향락만을 일차적인 요구로 몸에 익혔던 한 녀성이 집단과 사회에 자신을 융합시켜가는 가장 어렵고 보람찬 풍토순화과정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마치 눈석이 밑에서 새싹이 움트듯이, 청춘의 가슴속에 사랑이 깃들듯이 너무도 조용히, 소리없이 찾아온 변화여서 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어느날 학룡이가 전신에 3도화상을 60프로나 입은 한 인민군전사를 위해 살점을 떼여주고 왔다. 학룡이는 이날 좀 빠지고싶은 심정을 안고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까지도 너무나도 덤덤한 표정이였다. 혹시 자기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해서 반복해보았으나 여전했다. 다만 여느때없이 밥상에 오른 반찬이 다양했고 그것들이 자기앞에 집중되어있는것이 류다를뿐이였다.

《오늘은 좀 일찍 자렴.》

상에서 물러나자마자 교과서를 집어드는 학룡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였다.

학룡은 공손히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가 스위치에 손을 얹었다. 자리에 누운 아들을 굽어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루 다 말할수 없는 애정과 긍지와 대견함이 엮여진 미소가 어려있었다.

《엄마, 내가 장하지 않아요?》

학룡은 어머니의 그 미소에 고무되어 웅석부리듯 물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침대머리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다 자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빙그레 웃었다.

《왜 장하지 않겠니. 용타. 그래야지. 하지만 우리 나라에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더구나. 참 세월두! ... 나두 이제 기회가 오면 너처럼 해보련다.》

《고마와요. 어머니.》

학룡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달덩이처럼 웃었다.

그 《기회》는 마침내 아들에 의해 찾아왔다.

아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한 새해 전투정치훈련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에게 지성어린 선물을 마련하자고 활적에 양주는 대답에 앞서 눈물부터 쏟았다. 아들의 성장이 대견했고 나라의 고마움에 보답할 기회가 생긴것이 기뻐던것이였다.

그것은 백두의 설한풍을 헤쳐온 혁명의 선렬들에게 밥 한끼 지어드리지 못한것을 한생의 원으로 가슴에 묻고 간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길인 동시에 나라에 그토록 근심만 끼치던 자신이 비로소 이 땅의 참다운 공민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세상에 알리는 고고성을 터뜨리는 순간이기도 한것이였다.

그런데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고싶어 한 자기의 소행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감사문을 보내주시는것이였다!

이 감격을 어서빨리 일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알리고싶어진 양주는 방금전 회의장으로 오던길에 체신소에 들렀다.

딸의 느닷없는 전화질에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딸은 지금 하늘의 별을 따왔다고 어머니한테 자랑하고있지 않는가?

《...됐다. 그만하자.》

좀체 믿으려 하지 않는 어머니가 야속스러워진 양주는 할수없이 곁에 서있는 동 녀맹위원장에게 송화구를 넘겼다. 귀익은 녀맹위원장의 목소리를 듣고나서야 어머니는 경악의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요, 어머니? ... 어머니! ... 어머니! ... 내 말을 들어요?》

오랜 침묵끝에 간신히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애 그만하자. 시... 심장이 터지겠구나!》

또 한차례의 우렁찬 박수소리에 양주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만장의 환호에 떠받들려 아들은 토론을 끝내가고있었다.

부리부리한 눈, 별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얼굴...

아들의 하잘것 없는 소행에 그리도 감동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지켜 총탄이 되고 폭탄이 되겠다고 주먹을 틀어쥐던 일당백용사들의 림름한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들이 지금 연단에 나선 저 애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참말로 자기 가정의 자그마한 성의가 조국을 지키는 성세에 하나의 성돌이 된다면 죽어도 원이 없을 양주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심하세요. 우리 온 식구는 대를 이어 이 길을 끝까지 갈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지 않았나요. 나도 아마 셈이 들었나봐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군요.)

학룡의 토론은 끝났다.

다음은 최학룡동무의 어머니 리양주녀성이 토론하겠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양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약간 비칠거리며 무대로 오르는 계단에 첫발을 올려놓았다. 인간이 도달할수 있는 영광의 상상봉은 지척에 있었으나 뽕양게 흐려진 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높고 아득히 멀어보였다.

박수소리는 더한층 고조되였다.

남조선에 류포된 구조주의문학리론의 반동성

박종식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어느때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식민지통치와 파쑈테로 통치를 합리화하고 숭미사상, 《반공사상》, 각종 퇴폐주의, 개인향락주의 등 온갖 부르조아반동사상을 퍼뜨림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적식과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특히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첨예화될수록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들은 비과학적이며 신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현대 부르조아반동철학 그리고 반동적문예리론을 류포시키여 남조선 지식인들과 인민들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식을 가로막고 저들의 침략과 파쑈통치를 용이하고 손쉽게 이루어 보려고 온갖 간교한 술책을 다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하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문화침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주되는 수단인 하나이다. 미제는 그중에서도 비과학적이며 신비적이며 반민족적인 부르조아반동문학예술리론을 퍼뜨리는데 각별한 힘을 경주하여왔다. 그것은 문학예술이 다른 사회적의식형태에 비하여 대중에게 쉽게 수용될수 있으며 또 인간생활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인 서술으로써 이해납득시키는것이 아니라 예술적화폭, 현실반영의 형상적형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서에 직접적인 감화력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6. 25 전쟁직후부터 60년대말까지 남조선에서 미제가 힘을 들여 류포한 실존주의문예사조의 왕성한 침투는 전쟁의 참화와 전후 사람들의 정신적혼란 및 정신적방황을 틈 타는 미제의 음흉한 《상황점검》과 함께 문학예술의 특성을 악용한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러나 《불안》과 《허무》, 《절망》과 《불신》, 《상실감》과 《좌절감》 등 비관주의와 패배

주의를 고취하는 실존주의의 반동적문예사조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자주의식, 주체의식에 눈뜨게 된 4. 19 봉기이후 점차로 쇠퇴몰락하기 시작하여 60년대말에는 표면화되지 못한 소멸상태에 처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남조선문학예술분야에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가 종식된것은 물론 아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 그리고 반동어용문학인들은 모순투성으로 일관된 실존주의문예사조가 남조선인민들, 문화인들의 날로 높아가는 자주의식과 혁명적식의 거센 파도에 의하여 머리를 추켜들지 못하게 되자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비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형식주의문예리론을 밀수입하여 남조선의 진보적문학, 민중민족문학을 압살하려고 은밀히 활동하였다.

이 반동적문예사상조류가 곧 1963년을 전후로 하여 서부도이칠란트(과거명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에 일시 등장한 구조주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조주의란 어떤 현대 반동문예리론이며 그것이 남조선문학계에 어떤 악영향과 해독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구조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세운다》, 《구축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구성하고있는 형식과 힘의 체계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을 가능케 만드는 구성의 원형모형을 의미하는것이다.

실존주의는 존재나 사물을 규제하는 본질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에게는 본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존은 본질에 선행하며 인간존재는 무에서 출발하는 《자유》이라는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나면서부터 자유인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을수 없다는 《론리》로부터 흘러나온다.

이와는 달리 구조주의는 인간의 행동, 정신세계에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곧 《구조》라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에 비하여 실존주의철학이 배척한 근대 실증주의철학의 합리주의에 보다 접근하고 인간의 전도와 운명에 대한 실존주의적허무주의를 일정하게 극복하였다고 볼수 있다. 현대 구조주의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류량은 실존주의는 자유의 보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 자유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한낱 자유의 무정부상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구조주의는 잃어버린 인간의 재발견, 실증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는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튜랑의 이 말은 실존주의에 의하여 잃어버린 인간존재, 인간본성을 실증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다시 찾는다는 뜻이다. 가령 문학의 경우 과거의 비평은 한 작가, 한 작품의 외적상황에 대한 관심 즉 작가의 작품출처(배경), 다른 작품과의 비교, 영향 등에 대한 고찰과 연구로 일관되어있지만 구조주의비평은 이러한 문학외적인것을 팔호속에 넣거나 부차적인것으로 고찰하고 그 연구방법은 직접 작품속에 있는 작품의 《현재성》가운데 파고들어간다는것이다. 이렇게 한편의 시를 분석한다면 시속에 표현된 이미지(심상), 비유, 리듬 등의 《현재성》(구조)을 발견하고 탐구하는것으로 된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문학연구에서 역사주의원칙을 근본적으로 배격한다.

그러면 구조주의가 의거하고있는 철학적이초는 무엇인가?

원래 현대구조주의자들은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다. 《인류학》을 연구한다는 이 학자들은 《역사가 없는 대상》을 고찰한다고 하면서 《사물의 가장 근원적인 원시적상태는 비역사적인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비역사적인 상태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역사에 호소함이 없이》 《인류학적》 대상을 그자체로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 립장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바로 구조주의의 방법론과 그 본질의 허약성이 있다. 결국 구조주의의 철학적이초는 《객관주의》, 《경험주의》로 가장한 극단의 주관주의적직관주의, 신비주의에 있는것이다.

구조주의는 그 흐름에서 두갈래의 류파를 볼수 있는데 하나는 레비 스트로우스와 로랑 바르트를 그 대표자로 하는 형식적구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튜랑을 대표로 하는 구상적구조주의이다. 그러나 이 두 류파는 인간정신에 어떤 《구조》, 《원형》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에서는 같은 립장에 서있다. 레비 스트로우스가 주장하는 《원시적사고》는 인간정신에 있는 원초적 《구조》, 《원형》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비 스트로우스는 구조주의의 대표자라고 말할수 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은 항상 훌륭히 사고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인간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사고의 어떤 원형이 있을뿐아니라 그것은 그자체로서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비 스트로우스의 이같은 구조주의의 철학적이초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한것일뿐아니라 인간 그자체의 본성도 해명하지 못한 형이상학적인 극단의 주관적관념론에 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이 구조주의가 제창하는 《인간사고의 원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것을 요청하였을 때 구조주의자들은 언제나 대답이 궁하였다.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오직 하나의 답은 사람의 《직관》

혹은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신비성》이란 말이었다.

구조주의의 총본산격인 레비 스트로우스의 저서 《야생의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주의자들의 《철학적》 주장 및 문하리론들은 제 2차대전후에 등장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길안내 역할을 담당한 실존주의철학과 문학이 내건 《인간의 본성은 자유》라는 구호가 장벽에 부딪쳐 머물러있을 때 여기로부터 출구를 찾아 방향한 끝에 이같이 애매몽롱하고 비과학적인 사이비철학 혹은 문하리론을 내놓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역사밖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해명한다는 그들의 사고방법부터가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레비 스트로우스와 튜랑이 제창하는 인간정신, 인간의 본성에 어떤 《구조》, 어떤 《원형》, 원시적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그 철학적이초는 세계의 가인식성을 부인하는 칸트의 《불가사의론》이 종당에는 《물질 그자체》를 인정한것처럼 세계의 가인식성을 부인한 관념론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끝에 역사를 포괄한 인간본성의 《그 어떤 구조》를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말았다. 이는 마치 인류학자가 시체화된 사람의 두개골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였다고 희희낙락하는것과 같은 철학적 망동이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물은 역사밖에서 역사를 초월하여서는 그 어떤 구체성도 발견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인간존재 그자체가 역사적산물이기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는 역사주의원칙에 철저히 립각한 주체철학에서 처음으로 완변한 해명을 주었다. 이것은 세계가 주지하는 사실이므로 여기에 다시 반복하는것을 피하거나와 구조주의자 튜랑은 구조주의의 철학적인리인 인간정신의 《구조》 혹은 사고의 《원형》, 레비 스트로우스의 《원시적사고》의 추상성과 주관성을 극복하고 보다 본질적해명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문학세계에 가까이 끌어들이었다. 그는 인간정신의 《구조》 또는 《원형》의 구체적내용을 밝히면서 문학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미지》를 들어 《구조》의 본질적내용을 설명하였다.

《구조》, 《원형》의 구체적내용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이미지〉라고 말할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의 사고는 이미지를 통하여 형성되고 활동하며 우리는 표현된 이미지를 통하여 사고의 원형-이 이미지를 탄생케 한 사고의 원시적모형을 밝혀내자는것이 나의 립장이다.》(《구조주의와 현대》)

구조주의자 튜랑은 표현된 현상인 《능기》(기록할수 있는 가능성)를 통하여 표현되지 않은것-신화, 신비, 운명 등을 직감하며 표현된 현상과 표현

되지 않는 본질을 알아내고 양자의 연관성을 밝혀낸다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본성의 《원형》을 밝힌다는것이다.

구조주의자 바르트는 이같은 《이미지》를 정신형태, 이미지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 종교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 어떤 《원형적인 신화》의 세계를 예감한다는것이다.

이렇게 구조주의의 예술관, 문학관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형상적사고와 의식활동의 소산인 작품의 사상성을 거부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작품을 작가의 주관적인 이미지 혹은 《명감》의 총체로 집착시키고마는 극단한 관념론적신비주의를 제창하며 문학과 예술을 형이상학적인 신화, 인간사고의 《원형적인 신화》를 예감하고 계시하는 부속물로, 수단으로 만들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튜랑은 예술, 특히 문학이 인간사고의 신비에 대한 가장 경이스러운 암시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술은 이미지의 보물고이므로 예술과 문학에 대한 구조주의적해석은 작품을 역사로부터 고립시키고 사회와 단절시키며 작품 그자체에서 출발한다는것이다. 이는 곧 인간본성의 신비, 신화를 발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결국 구조주의가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 직관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비론 또는 신화들을 창조하는것이다.

구조주의의 이러한 문학관은 사물의 발생, 발전과 진보의 역사주의적원칙도 거부하고 객관적존재의 구체성을 무시하며 문학을 추상주의적극대화, 주관주의적신령화, 신비주의의 절대화, 직관주의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반과학적인 그 어떤 추상적피물로 전변시켰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인간사고의 신비화에 대한 가장 놀라운 암시》를 담고있다고 하는 구조주의의 현실적정체이며 《이미지의 보물고》라고 하는 그 피물의 정체이다. 또한 이는 구조주의가 반력사주의에로 치닫는 결과에 도달한 종착지이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 비과학적이며 반과학적인 립장과 태도는 그들의 이른바 《세계관》이 인간의 이성 및 본성을 부인하고 인간사고의 《원형》 즉 원시적사고에서 그 어떤 원형적신화를 발견하였다는 구실밑에 인간의 원시상태를 신비화하려는 반력사주의적복고주의에 함몰되고말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는 곧 20 세기의 서유럽 지성인들이 두차례의 파괴적인 전쟁을 겪고난뒤 역사의 진보를 불신하고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인간정신구조의 와해상태에 영합하여 《야생의 사고》, 《사고의 원형》 등과 같은 복고주의에 손길을 뻗쳐보자는 광신적행위인것이다.

구조주의자들의 반력사주의적세계관은 튜랑이 어떤 탁월한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그 발전에 있어서 《역사주의원칙에 서거나 그것을 신빙할 때에는 언제나 사회주의적, 인종주의적, 제국주의적인 길

을 걷게》(《구조주의와 현대》)된다고 주장한데서 뚜렷이 표명되었다.

튜랑의 이같은 견해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그 실천적개조의 방도를 명백하게 제시한 과학적사회주의리론을 거부하고 휘손시킴으로써 헤겔의 출현으로 하여 그 허약성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을수 없었던 객관적관념론을 극복해보려는 실현 불가능의 망상이다. 특히 튜랑은 변증법적유물사관의 기초이며 근본원칙인 역사주의원칙을 거부하는 것으로 로동계급의 과학적세계관을 허물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무지의 모험이며 세계의 진보적지성에 대한 어리석은 도전일뿐이다.

튜랑이 과학적사회주의를 제국주의와 인종주의 또는 도이칠란드의 나치즘과 동일시하면서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는 목적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그 하나는 그가 죽어가는 현대제국주의, 특히는 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사환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는것, 다른 하나는 인류발전의 역사적단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원시적사고를 찬양하면서 복고주의를 고창하는 자신의 주관주의, 허황한 신비주의를 은폐하자는것이다. 그는 지어 《모든 후진국은 유럽이 밝아온 역사적과정을 그대로 밝아야만 사회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틈에 제국주의자가 되는것이다.》(《구조주의와 현대》)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오로지 그 내적요인에서만 보고 외적요인을 무시한 비속사회학적견해이며 제국주의가 죽어가는 자본주의의 역사적단계임을 조금도 보지 못하는 그의 고유한 형이상학적, 신비주의적 방법에서 흘러나온 어리석은 잡포대이다. 튜랑의 구조주의에 근거하여 현대제국주의를 《역사가 없는 대상》으로 본다면 제국주의의 본성은 무시될뿐아니라 개와 고양이도 가리지 못할만큼 참과 거짓을 분별할수 없으며 세계는 하나의 아메바상태로 되고말것이다.

역사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 사회발전의 역사적 《퇴화》, 《진보》의 단계를 무시하는 구조주의의 반력사주의적세계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사고의 어떤 원형》(튜랑)이 있다는 허황한 형이상학적신비론을 부활시키며 구경은 인간의 원시적사고를 미화하는 복고주의를 의미하는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구조주의의 이러한 신비주의와 복고주의는 문학,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평론의 역사성이 배제된 《이미지》론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구조주의자들은 문학을 대상함에 있어서 작품의 존재를 결정하는 근본주체인 현실과 작가를 무시하고 작품에 미치는 외부의 영향, 다른 작품과의 비교 등 일체 내용(사상정신적인것)을 구성하는 제요소를 배제한 기초우에서 《작품의 현재성》을 추

출한다고 한다. 그들은 《한편의 시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가운데서 표현된 이미지, 비유, 리듬 결국 세마(신호)가 문제로 된다》(《구조주의와 현대》)고 주장한다. 이는 곧 문학작품이란 그에 반영된 작가의 긴장한 사색 또는 《령감》의 산물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의 본성》 즉 《구조》, 《원시적사고》의 결과라는 것이다.

모든 사물을 대상함에 있어서 《력사성》을 배척하고있는 이 《이미지》론은 문학의 《자물성》론과 함께 본질적으로 극단한 신비론이며 문예학적으로는 현대의 극단적인 형식주의론이다.

근대사실주의를 반대하여 출현한 20 세기의 사실주의미술이 극단적으로 형식을 추구하여 추상과 미술을 낳듯이 모든 사물의 본질(본성)을 구명한다는 구조주의는 문학에서 력사주의원칙을 배격함으로써 신비론과 황당한 형식주의로 타락하고말았다. 그들이 극단한 형식주의자들이라는것은 로랑 바르트가 《문학한다는 행위는 자동사이다.》라고 한 말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었다. 그는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과 상인이 물건을 받고 《령수증》을 쓰는 행위를 대비하여 설명하기를 문학작품창작은 《령수증》을 쓰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으로서 어떤 목적이나 대상 《객관적현실》에 구애됨이 없는 자물적행위라고 하였다. 언뜻 생각하면 그의 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수도 있다. 순수문학과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형식주의자들이 특히 그럴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문학의 《자물성》을 그릇되게 합리화하는 방패를 주고있기때문이다.

문학의 자물성의 구조는 작가의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는 파썸독재하에서만 그 의의가 있을 뿐이고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처럼 《현실추방》의 원리로는 결단코 될수 없다.

문학하는 행위는 작가의 자연배설행위도 아니며 이미지의 자동방사도 아니다.

작품에서 이미지, 비유, 리듬 등만을 절대화하는 형식주의가 신비주의에 빠지는것이 현대예술발전의 법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형식주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력사적내용을 거세한 기초우에 세워진 허울, 틀, 허상일 따름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구조주의는 현대형식주의문예사조가 그 막다른 종점에서 나타난 서유럽의 형식주의문예사조의 마지막 림종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말하고있다. 그리고 경험은 서유럽의 현대형식주의문예사조가 그러한것처럼 력사의 전진과 진보를 거부함으로써 종당에는 허구의 신비주의, 복고주의에 매여달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고의 원형》, 《원시적사고》-이것들은 현대 부르조아 형식주의미학이 그 마지막 종착지에서 꾸며낸 신화이며 《원시에로의 동경》 등은 타락한 부르조아형식주의 문예사조의 마지막 지탱점이다.

2 차세계대전직후에 등장한 영미의 《비트, 제네레이슨》(두들겨 맞은 세대), 《앵그리영맨》(노한 세대) 등의 문학이 바로 이를 보여주고있다.

이 부르조아형식주의 문예사조는 복고주의정신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를 마비시키여 력사에 대한 그들의 주체적인식을 둔화케 하며 우매화하고있다.

구조주의는 1960 년대부터 남조선 부르조아형식주의문예사조속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4. 19 와 같은 문학의 현실적내용이 민중의식구조의 지평에 거창한 힘의 원천으로 부상되고 실존주의문학사조가 몰락하던 때에 구조주의문학비평이 등장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남조선에 류포된 부르조아형식주의문학사조가 구조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수명을 연장하려고 꾀하였기때문이다.

형식주의문예비평을 소개선전하였다가 80 년대 이후 급격히 양양된 민중문학의 거세찬 파도에 부딪쳐 머리를 못쳐들게 된 반동평론가 원형갑은 서유럽의 타락한 형식주의문예사조를 끌어들이면서 남조선에서 구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무지의 아집이다.》라고 쓴후 《구조주의를 만나지 못한것은 사상의 활력소와 새로운 정신세계의 가능성을 놓쳐버린 셈이다.》라고 지껄였다.(《구조와 야생의 사고》, 월간문학 1981. 8)

이로써 우리는 광주인민항쟁이후 원형갑을 비롯한 몇몇 평론가를 제외하고는 남조선문학계에서 구조주의를 영합하는 사회적지반이 이미 허물어졌다는것을 가히 알수 있다. 그러나 원형갑은 오래동안 남조선문학의 어용평론계와 사회계에 류포하고 선전하면서 문학의 진보적역할을 거세하고 문학의 내용과 사상성을 거부하려고 획책하였으며 독재정권에 집요하게 아부추종하였다. 그는 1980 년 3 월에는 《포알리즘과 현상학》이란 글에서 문학의 내용과 사상성을 존중하는 민중문학의 거센 흐름을 막아보려고 시도하면서 《...단적으로 사회학주의, 내용주의는 자기외의 가치에 대한 외면이며 결국 문학의 부정이다.》라고 썼다.(《현대문학》1980. 3)

그가 말한 이 《사회학주의》, 《내용주의》는 민중문학의 사회적내용을 존중하는 경향을 억제해보자는 어리석은 시도로서 한알의 답알을 던져 우람한 바위를 부시겠다는것과 같은 히스테리적인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의 유아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광주인민봉기이후 문학의 내용과 사상성을 존중하는 민중문학의 파도는 반미자주화, 반파썸민주화,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군사독재의 야성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남조선문학계와 사회계를 진감시켰으며 또 진감시키고있다.

구조주의를 끌어들이 한바탕 흥성거리게 해보려는 원형갑의 행위는 참으로 피이하였다. 그는 문학의 사상성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던 나

머지 자기가 신봉하는 구조주의 그자체도 외곡하여 선전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즉 그는 자기의 사이비평론에서 맞지도 않은 구조주의의 《이미지론》을 끌어들이는데 몰두하였다. 그는 비평(문학평론을 말함)은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에 참여하는 백지의 상태》라고 허튼 소리를 하였고 《비평은 어떠한 사상의 권리가 없어야 한다》고 지껄이기까지 하였다.

우에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구조주의의 《이미지론》은 세계에 대한 역사주의원칙을 거부한 기초우에서 시간성의 초월을 의미하는 가상과 허구(곧 신비성)이기때문에 역사와 인간존재박의 그 무엇인 허황한 형이상학적신비(그들이 말하는 원형)라고 할수 있다.

그런즉 구조주의의 《이미지론》은 마치 운동이 없는 물질, 물질이 없는 운동을 가상한것처럼 허구이며 비현실적인 신비론이다. 비평, 문학평론이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에 참여하는 백지의 《상태》라는 원형갑의 망언은 이렇게 하여 나왔다. 구조주의의 본질적특성도 이해하지 못한 원형갑은 비평의 기능을 놓고 《작품의 존재가치는 그속(내용상)의 어떤 명제에 있거나 리성과 기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지속적시간성의 흐름과 더불어 조성되고 빚어지는 시간적구조체에 다름바 없다》고 하는 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실상 구조주의의 본질은 《시간성의 흐름과 더불어 조성되고 벌어지는 시간적구조체》가 아니라 시간성을 배제한 불가사의한 신비성에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의 전도사 원형갑은 그 본질을 외곡하고 시간성을 부여하는것으로 죽은 구조주의의 입김을 불어넣으려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비평의 새로운 직능을 조작해보려고 꾀하였다. 하지만 거품같은 그 조작물 역시 무지의 궤변을 벗어날수 없었다.

비평의 직능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가치의 존재방식, 그 전달과 매개의 정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작가 및 독자들에게 작용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문학평론은 허무한 이미지의 세계에 참여할수도 없으며 더우기 《백지상태》로는 도저히 될수 없다. 그러니 원형갑의 궤변은 문학의 사상성을 거부하기 위한 미치광이 소리이다.

문학평론과 작가가 운운하는 《이미지》란 작가의 현실체험의 축적으로부터 점화되는 상상력의 긴장, 진실성을 조성하기 위한 형상수단일뿐이다.

구조주의 전도사 원형갑은 《구조와 야생의 사고》(1981. 8 월간문학)라는 글에서 레비 스트로우스의 《야생의 사고》를 신주처럼 떠받들면서 《이저서가 말하자면 실존주의나 모든 진보적혁명주의에 결정타를 먹이기 위한 글이다.》라고 쓴 다음 구

조주의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한마디로 말하여 구조주의는 역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적사실에 대한 발전의 정열... 직관적으로 돌아갈것을 다짐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서툰 무당의 요설이다. 구조주의에 대한 원형갑의 이같은 공념불은 일찌기 과학적사회주의학설을 비방하고 공격하던 모든 어중이떠중이철학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앞에서 참패를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처럼 역사적인 진보주의, 혁명주의 큰 파도에 부딪쳐 모래성마냥 허물어지고말았다.

구조주의의 《이미지론》이나 《직관론》이나 《사고의 원형》이나 그 어느 구조주의궤변도 근대 이후의 과학적합리주의를 배척한다는 구실밑에 조작되는 현대 부르조아형식주의적 신비주의, 복고주의의 엉터리 재판일따름이다.

《언제나 인간은 그 스스로의 자연성에 돌아갔을 때만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원형갑의 공념불은 문학에서 내용과 사상성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원시적몽매와 우매화에로 유혹하는 복고주의의 요언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혁명적파도는 원형갑을 비롯한 구조주의자들과 부르조아형식주의미학의 전도사들이 복창하는 구호들을 일소해버리고있다.

제국주의에 기생하는 독벌레들-파쑈독재자의 사환군들은 리론실천적으로 궁지에 빠지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들을 우매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연성》, 《원시적사고》에로 부르는 복고주의 복을 두드린다는것을 역사적경험은 웅변이상으로 증언하고있다.(원형갑, 김상일 등이 복고주의 또는 낱아빠진 부르조아형식주의미학의 독기를 풍기면서 우리 나라 고전들을 외곡한 사실들은 이미 적지않게 폭로비판되었기때문에 여기서 더이상 논하는 것을 피한다.)

현대구조주의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은 대체로 이리하다.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구조주의의 영향력은 비록 몇몇 반동적평론인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도 그로 인한 약간의 피해는 묵과할수 없을 정도로 남조선평론계에 흔적을 남기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고전문학 평가와 해석에서는 이 구조주의망령이 배회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양양되고있는 민중문학의 혁명적파도가 높아지면질수록 구조주의, 포스터 모더니즘 등 부르조아형식주의미학이 머리를 추켜들수 있다. 그러므로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그것을 제때에 사상리론적으로 분쇄해야 할 임무가 우리의 앞길에 가로놓여있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여기에 구조주의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을 간략하게 서술해둔다.

아들의 탄생

원현호

타다남은 잡관목울타리가
한옆으로 기울어진 트랙
토방우의 누런 종다래끼도
들판으로 주인을 부르는 봄날이건만

미친듯이 달려든 원쑤들 총구앞에서
어머니는 태연히 옷깃을 여미고있어라
트랙의 피자육을 디디고
원쑤들을 쏘아보는 엄엄한 눈빛앞에서
총구를 들이댄 놈들의 악청마저
기가 죽어 떨리고있어라

《공산군정찰병이
여기서 없어졌다
대라, 숨겨둔곳을
시간은 3 분...》

그렇다 지난밤 어머니는
마당에 쓰러진
인민군정찰병- 사랑하는 아들을
집뒤 바위굴에 숨겼다

정찰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나서 자란 고향 작은 오솔길도
손금보듯 잘 알기에
스스로 추격하는 적들을 유인하여
격전을 벌리다 쓰러진 아들을...

《내가 그 정찰병의 어머니다
쏟아면 쏘라
그러나 내 아들은 찾지 못할것이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제자식을 팔줄 모른다》

《좋다
대지 않으면
네년두, 이 마을두
몽땅 없애버릴테다》

삶의 줄기에 도끼날을 박는
장교놈의 악청
《절커덕-》
끌어낸 마을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에 총탄이 채워지는 소리

바로 그 찰나
숨이 타는 침묵을 견어차며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
《인민군정찰병이 여기 있다》

버쩍-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순간, 온 누리를 가득 채울듯
눈앞에 어려오는 아들의 모습이어

수류탄뭉음을 가슴에 안고
한자국, 한자국...
적들을 맞받아 나가는 전사,
놈들을 전률케 하는 저 전사가
지주집 꿀머슴으로 기를 못퍼던
내 아들이란 말인가!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로 내려쫓히는
저 천둥우뢰같은 소리가
스무해전 누더기강보에 싸여
새빨간 주먹을 파들파들 떨며
가날픈 고고성을 터치던
정녕 내 아들의 목소리란 말인가!

《원쑤놈들아, 똑똑히 알라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백번을 죽는다 해도
어머니와 나서 자란 고향앞에
욕됨을 모른다는것을...
김일성장군 만세!》

아 터져오르는 폭음을 누르며
조국땅에 울려퍼지는 아들의 웨침이여
치솟는 화염속에서 뚜렷이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아들의 미소여

어머니는 보았다 아들의 최후에서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그리고 들었다 인민공화국이 키워낸
아아, 사랑하는 아들의 영생의 고고성을!

조국의 아들 외 1 편

강현만

태를 물어준 조국땅이
가난에 빠져 모지름을 쓸 때
자래워준 조국땅이
원쑤의 발톱에 갈퀴여 몸부림칠 때

보집지고 홀 떠나버려
조국의 기억속에
이름조차 삭막해진
그런이들도 없지 않더라

허나 불굴의 투사여
그대를 품안아 키워준 어머니조국은
한시도
한시도 그대를 잊은적 없었나니

그대 어머니조국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일어번질 때

정든 고향, 사랑하는 처자를 뒤에 두고
떠난 그길이
제 한목숨 건지자고 떠난길 아니였기에

그대 기나긴 세월
어머니조국을 떠나있어도
헤쳐넘은 고초많은 40 여년
그 모든 나날들이
조국과 함께 숨쉬 세월이었기에...

오, 정녕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애타게 불려찾던 어머니조국은
장한 아들, 지극한 효자를
넓은 품에 감싸안고 뜨겁게 애무한다
-아들아, 장한 내 아들아!

자신들을 세워보는 세월앞에...

행복한 나날
내 무심히 달려온 넘긴것조차 부끄럽구나

이 땅에 태를 묻고산다고
제단엔 나라에 보탬주며 산다고
조국의 아들이라
스스럼없던 그 생각조차

나만이 아니다, 요즘은 온통
빠스정류소에서도
상점매대앞에서도
뜨겁게 오가는건
리인모동지, 그대
통일애국에 바친 40 여년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는 젖은 목소리들이거니

아, 문득 뜨거운 눈 들어보면
그대는
구름뚫고 솟아오른 상상봉
나는 한갓 밋밋한 야산...

불굴의 투사여, 그대 무슨 힘으로
고문과 살륙의 쇠고랑소리를 등에 지고
죽음도 아연실색하는 그 세월을 지르랴고

오늘로 곳곳이 걸어올수 있었더라

자나깨나 못잊은
정다운 안해의 모습이
귀여운 딸애의 까만 눈동자가
마를줄 모르는 새힘을 주었더냐
꿈에마져 그려보던
고향의 푸른 언덕이
지칠줄 모르는 용기를 주었더냐

장군님 은덕으로 맛본 꿈갈던 5년세월
그 행복한 생활이
그대로 애국의 밑거름되고
제 뼈 부스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은
허리끓인 어머니조국의 신음소리
그대로 통일의지로 장약되어
40 여년 가시덤불길 맨발로 헤쳐왔으리

오, 조국의 장한 아들이여
그대 흘러보낸 40 여년은 그저
칠혹을 백발과 바꾼 그런 세월 아니다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에게
어머니조국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깨우쳐준 값높은 생이거니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어

그대 빛나는 40 여년은
이 땅 누구나의 가슴속에
삶의 이정표를 높이 세워주었도다!

그대 말이 없어도

오혜선

그처럼 바라던 상봉의 그 순간
영웅은 왜 말이 없는가

검은머리 백발이 되도록
오매불망 그리던 조국
살아서 못오면 죽어서
넋이라도 오겠다던 이 땅에
그대는 돌아왔건만
어이하어 말이 없는가

진달래꽃잎에 마음을 실어
떠나온 고향산천, 그리운 부모처자
애타게 애타게 불러왔건만
어이하어 그대는
사랑하는 처자 안고서도 말이 없는가

어두운 감방속에서 수십년 세월
몸은 비록 악형에 병자가 되고
머리우엔 백발이 덮이였어도
신념만은 추호도 잃지 않은 그대
민족의 장한 아들로 그 이름 빛나건만
아, 어이하어 그대는 말이 없는가

지리산에 선혈을 뿌리며 쓰러진
못잊을 옛전우들 그리며
아픈 마음
묵묵히 참고참는것이나

량심의 의무로 써나간 종군수기
채 쓰지 못한 그 사연의 갈피갈피
한가슴에 다 안아
일시에 목이 메였는가

아니면
이루지 못한 통일을 두고
모대기는 그 마음에
자책의 채찍을 얻는것이나

전선으로 떠나던 그 시절엔

노래도 많고 웃음도 많은 《우리의 락천가》,
열정적인 《웅변가》로 사랑받던 그대건만
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여
그대 지금은 왜 말이 없는가

장장 기나긴 세월
지조를 지켜 침묵을 지킨 그대
조국의 품에 안기면
하고싶은 말도 많으려만은
간절한 그 소망 이룬 이 시각엔
가슴속 천만마디 말
어이하어 들려주지 못하느냐

더 묻지를 말자
어이하어 영웅이 말이 없는지
그의 심장에 귀기울이면
뜨거운 그 고동소리
그대의 말을 대신하여 울려오거니

자신의 위훈보다
자기를 낳아 키워주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안겨준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 드리기전에는

장군님의 전사답게
굴함없이 싸웠다는
충성의 보고 올리기전에는
제고향 제집에 와서도
마음의 행장을 풀수 없고
뿜어쏘는 그 많은 사연 터칠수 없어
영웅은 그렇듯 말이 없는것 아니냐

오, 민족의 장한 아들 리인모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리는 길지 않는 전사의 보고에
한생토록 쓰고 쓸 영웅의 장편수기가
만민의 심장벽을 높이높이 울리리라!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 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초소로 떠나는 아침에

량근영

기쁨이 커가면
그 기쁨 속삭이려
행복이 넘치면
그 행복 고마워서

눈이 오는 겨울에도
정을 다해 피운 꽃을 안고
꽃이 피는 봄날이면
첫 꽃뭉음을 안고 찾아오던 만경대

울적마다 어른처럼
마음도 자란곳
울적마다 새롭게
맹세도 다진곳

고향집 동구밖 저 언덕우에서
내 열살도 되기전에
첫 붉은넥타이를 매며
조국앞에 선서도 다졌지

이 트랙의 우물을 마시며
새힘을 얻고
만경봉 학습터의 고요속에
애국의 큰뜻도 키우며
나의 충심도 자래운 고향집이어서

또다시 왔노라
초소로 떠나는 이 아침에

이 고향집 사립문을 나선 걸음이면
눈바람 비바람도 다 이기며
한생을 걸을수 있기에

아직은 축하의 꽃송이만 가슴에 달고
몸에 배지 않은 군복을 입고 왔건만
조국을 위해 결연히 이 집을 나선
위대한분들의 뒤를 이어
나도 맹세높이 떠날수 있기에

시련의 눈바람 모질어도
조선의 정기만은 잃지 않았던 집
싸워서 조국을 찾고
한목숨 바쳐 행복을 안아오는
투사의 숨결을 안겨주는 고향집이여

내 저버리지 않으리
이 트랙에서 다진 맹세만은
내 한생을 이어가리라
이 트랙을 나서는 이날의 땀뻗은 걸음새를

아, 이 마음속엔
내 한가정의 아들이기전에
만경대의 트랙에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아들된 도리를 다할
신념의 발걸음 떼기 위해서임을
고향이여 기억해다오
조국이여 잊지 말아다오